



2

198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8. 2호

(루계 484)



◆◆◆◆◆◆◆◆ 차 례 ◆◆◆◆◆◆◆◆

| | |
|--|----|
| 2 월의 아침 | 4 |
| 아, 백두산고향집이여 | 5 |
| 백두산고향집뜨락에서 (외 1 편) | 6 |
| 어머니의 기쁨 | 6 |
| 나뭇겨라, 붉은넥타이 | 7 |
| 향도의 자욱을 따라 | 8 |
| 인민이 사는곳 천만리여도 | 10 |
| 산촌의 메아리 | 11 |
| 영 생 | 20 |
| 사랑의 샘 | 21 |
| 따스한 웃는길 | 28 |
| 위대한 지도자의 탁월한 령도풍모에 대한 빛나는 예술적 화폭 | 29 |
| 서로 아끼는 그 마음 있어 | 35 |
| 삶은 어디서 빛나는가 | 36 |
| 명제해설 | 41 |
| 한 당일군에 대한 추억 | 42 |
| 손님들을 맞으며 | 52 |

| | |
|------------------------------|----|
| 계급교양주제의 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하자 | 53 |
| 나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 55 |
| 생 일 상..... | 55 |
| 열 도 | 56 |
| 탁월한 령도에 대한 서사시 | 63 |
| 법 칙 | 64 |
| 작가의 문체 | 71 |
| 그날의 전호가에서 (외 1 편)..... | 74 |
| 그 어디에 가있어도 | 74 |
| 눈오는 계절은 있어도..... | 75 |
| 이 벌로 오시라 | 76 |
| 얼 굴..... | 77 |
| 씨 앓 | 77 |
| 시적 착상과 형상적 구현 | 78 |
| 동 지 | 79 |
| 심 장 | 80 |
| 금강의 문필봉 | 80 |

2 월의 아침

정영호

백두의 봄빛에
산천도 사람도 꽃피는 계절
영원한 그 봄빛이
눈서리를 밀어내고 꽃피우는
2 월의 아침

이 아침
삼가 우러러 인사 올리는
인민의 가슴엔
마음의 향기
아름아름 질게 어린 만수축원의 꽃

천지의 푸른 정기를
조선의 하늘에 펼쳐주시며
승엄함의 절정
백두산의 위용을
조선의 모습으로 빛내주시며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탄생하신
환희의 2 월

그 언제나
백두의 대으로
모진 시련도 이겨내고
조선의 발걸음
헛디딤이 없도록
주체의 한길로 이 끌어주시는분

우러르면
광복거리건설장

그 한복판을 걸으시면서도
다시금 조선사람의 본때를 펼치자고
그렇듯 심금을 울리던 말씀 뜨거웁고

우러르면
어서 관수체제도 새롭게 더 늘어
조국을 더욱더 꽃피우자 하시며
비뿌리는 다락밭 이랑이랑
몸소 걸음걸음 옮기시던
그 자욱 승엄히 어려오네

못잊어
세월이
세월이 갈수록 못잊는
인민의 그 마음이
한밤에도 쇠물의 노을로 타오르고
해마다 들에 넘치도록
언덕에 넘치도록
만풍의 금나락으로 실리고

우러러 끝없는
인민의 그 마음이
천길 땅속
검은 금의 폭포로 터져내리고
비날론공장건설장 하늘가
철탑의 숲으로 솟아오르거니

친애하는 그이는
우러러받드는

우리 인민의 드눌줄 모르는
마음의 기둥
세계만방에 빛을 뿌리는
우리 인민의 영광
천만년 세월우에 영원할
향도의 해발

인민의 마음속에
그이 계시고
그이의 심원한 사색속에
인민이 살아
오, 우리 조국의

양양한 미래여

아, 백두의 봄빛을 안고
무궁한 세월
지지않을 꽃들이
친애하는 우리의 지도자동지의
만년청춘을 바라는 소원
송이송이

간절히 향기로 터치는
축원의 꽃 만발한
2월의 아침이여

가사

아, 백두산고향집이여

윤병규

언제나 내 마음 달리여오던
백두산 밀영의 고향집이여
못잊을 그날의 자장가소리
오늘도 이 가슴 울리어주네

동트는 조선의 미래를 안고
찬란한 해발이 솟은 집이여
장쾌한 2월의 봄우뢰소리
이 땅에 영원한 봄을 주었네

온 세상 인민을 반기여맞는
우러러 한없이 숭엄한 집이여
락원의 창문을 거느리고서
혁명의 성산에 조용히 섰네

아, 향도의 해발을 받들어
누리에 빛나는 고향집이여

백두산고향집뜨락에서 외 1 편

정덕철

내 어린시절
나무 한집 해지고 돌아올 때면
어머니 마중 나오던
그 고향집 뜨락에 들어서는데

온갖 산새소리 피창가에 유정하고
햇빛도 추녀아래 따스한 집
통나무로 쌓아올린 귀틀집이여도
내 나서 자라난 집처럼 정깊은 집

오,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숨막히는 그 세월
등잔심지 가물거리던 겨레들의 집과
다름없는 지붕아래 탄생하시였어라

밤이면 그이께서는
백두의 설한풍을 막아내기엔
너무도 얇은 모포를 덮으시고
불편한 구름노전우에 누우셔야 했어라

새벽이면
물길러 나서시는 어머님께
성에 불린 부엌문도
열어드리셨어라

키낮은 책상우에
쪽무이 지도를 펴놓고
그것을 삼천리로 굽어보시며
행복이 깃드는 인민의 집을

몇번이고 마음속에 지어보시였어라
아, 그이께서는
내 조국의 아픔
구석마다 숨배인 집에서
가난에 허덕이는 동포들의 설음
인민의 불행을 한가슴에 다 안으셨기에

오늘도 우리들의 생각
그렇듯 속속들이 헤아리시고
크지 않은 불편에도
밤을 지새며 마음쓰고계시여라
인민이 좋아하고
인민이 기뻐하면
거기서 행복의 전부를 찾으시여라

내 긍지높이 웨치노라
우리에게
백두밀영의 이 나무껍질지붕이 있어
기와집 추녀아래 웃음소리 넘치고
락원의 거리 불 밝은 창가마다
인민의 행복이 꽃피난다고

오, 백두밀영의 귀틀집
조국의 영원한 행복의 추녀를
세기의 하늘높이 받들어올린 집
인민의 심장우에 받들린
영원한 행복의 고향집이여!

어머니의 기쁨

철없던 그 시절 발돋움끝에
담장 넘어 빨간 앵두 손에 따들고
부엌으로 뛰어들며 나는 소리쳤네
《어머니, 앵두가 익었어요 !》

어머니는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시고
앵두알을 집어서 내 입에 넣어주었네
그리고 안먹어도 배부르다 하시며

따스한 품에 껴안아주었네

내 땀젖은 감사마치를 두드리며
높은 산 험한 벼랑 넘고넘다
번쩍이는 쇠들을 찾아낸 그날
그만에야 어린시절 그 마음처럼
가슴은 한없이 설렘었네
우리 당에 기쁨 드릴

또하나의 사랑을 안고

자애로운 어머니 당은

조국앞에 큰 일을 했다고

내 가슴에 금별을 달아주었네

이 어깨를 오래도록 쓸어주었네

고향집 어머니처럼

나는 가네

배낭을 지고

어머니가 기다리는 보물 찾으러

나는 가네

눈이 오고 비가 내려도

마치 두드리며

또다시 어머니의 기쁨을 찾으려...

나뭇겨라, 붉은넥타이

문기창

봄빛 넘치는 오산덕 기슭에
오각별 빛나는 군모를 쓰시고
오늘도 햇빛같이 웃으시는
김정숙어머님

우러러 경건히 다가서는 마음들
숭엄히 옷깃을 여미는데
아이들 앞가슴에
붉은넥타이 매여주는 투사의 눈가에는
사연깊은 생각이 비껴 흘러라

아동단 그 시절
더벅머리 살뜰히 쓸어주시며
붉은넥타이 앞가슴에 매여주시던
어머님을 생각하는가

조국의 미래를 안으시고
봄빛같이 웃으시던 그 미소
오늘도 차넘치는 언덕에서
금별이 빛나는 투사의 가슴에도
나뭇기는 넥타이 붉은넥타이

펼럭이여 펼럭이여
눈앞에 어려오는듯
적후 천리 사나운 눈길을 헤쳐오시여
유격구의 귀여운 아동단원들에게
장군님 보내주신 그날의 붉은넥타이

얼마나 뜨거운 믿음이 깃든것인가
머나먼 항일전의 그날로부터
혁명의 귀중한 피줄기를 이어
오늘도 힘차게 나뭇기는 붉은넥타이

사랑의 붉은 기폭이여라
믿음의 붉은 상징이여라
이 나라 어린이들의 담찬 모습에서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시며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의 손길로
오늘도 어머님께서 매여주시는것 아닌가

아, 그 햇빛의 자양을 받아
무성한 숲처럼 설레이며
조국을 받드는 기둥이 되고
당의 기발 이어받는 기수로 자라는 새세대와 함께
그날의 마음 변치 않은 투사의 마음

마치 혁명의 숭고한 임무를 새겨주듯
소중히 매여주는 붉은넥타이
김정숙어머님의 손길에 받들려
혁명의 미래에 이어지는
믿음의 상징

힘차게 나뭇겨라
끝없이 찬란한 기발이 되어
해와 별 따르는 새세대들의
심장마다에 물들어 붉게 물들어...

향도의 자욱을 따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령도로 주체문학의 전성기를 펼쳐주신 문학예술의 위대한 영재이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문학의 본성을 과학적으로 밝힌 주체의 인간학에 관한 사상리론을 비롯하여 종자론과 속도전에 관한 사상리론, 우리식 창조체계와 창작지도체계에 관한 사상리론 등 탁월한 문예리론들을 새롭게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문학이 주체의 한길, 혁명문학의 길로 끊임없이 발전할수 있게 하시였다.

주체문학건설을 향도하시는 나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언제나 작가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창작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도록 하시였다.

편집부는 이번호부터 시작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체문학건설에 바치신 업적과 은정깊은 사랑의 이야기가운데서 그 일부를 실는다.

편집부

혁명문학의 길로 이끄시여

1966년 1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받기 위하여 서해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자그마한 휴양소를 찾아가 한 작가는 뜻밖에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만나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엄동의 찬바람이 부는 휴양소 뜰에 몸소 나오시여 작가를 반가이 맞아주시며 《수고했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으시였다.

작가는 북받치는 감격으로 하여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몸둘바를 몰라하며 몸이 튼튼하다고 말씀올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의 손을 꼭 잡으신채 건강하다니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며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장편소설을 쓰느라고 수고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작가는 크지 않은 성과를 두고 것처럼 기뻐하시며 고무의 말씀을 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는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났다.

그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까스로 누르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날부터 작가는 여러날에 걸쳐 우리 나라 문학건설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의 혁명문학에서 대작은 반드시 조선공산주의자들을 그려야 한다. 진정한 조선의 공신주의자들이란 그 어떤 특출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이다. 그렇기때문에 그 보통사람들의 세계관형성과정을 잘 그려야 한다.

작가들이 혁명가를 잘 그리자면 혁명가를 깊이 알아야 하고 자기의 체험으로 느껴야 한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창작에 앞서 자기자신을 혁명화해야 한다고 따뜻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의 실례를 들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하여 쓰면 훌륭한 문학작품이 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이미 두번에 걸쳐 혁명적문학예술 발전방향에 대하여 가르치심을 받은바 있는 작가는 여러날에 걸쳐 수령님의 교시를 받으며 새로운 혁명문학건설에서 력사적 전환이 이룩되리라느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작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께서 계시는곳으로 달려갔다.

오늘 동무를 부른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인민군군부대의 예술소조공연을 함께 보기 위해서였다고 하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를 승용차에로 이끄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긴장하여 앉아있는 작가더러 편히 앉도록 하시고 새로운 혁명문학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그의 소박한 의견도 허물없이 들어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명심해서 잘 들을데 대하여 간곡히 이리시였다.

그러시고는 잠시 차창밖을 내다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사색깊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의 교시대로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는것은 오늘 우리 혁명의 요구입니다. 작가들은 우리 문학이 수행하여야 할 사명과 임무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이 걸어온 길을 놓고 많은것을 생각하군합니다. 당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이 자기 사명을 다하는데서 근본적인 고리를 놓치고있는것은 없는가, 만일 놓치는것이 있다면 우리의 새로운 혁명문학에서 그것을 찾고 개척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순간 작가는 이이께서 우리 문학이 나아갈 앞길을 두고 얼마나 깊이 마음쓰고계시는가를 온몸으로 뜨겁게 느꼈다.

작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색깊은 말씀을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할 절박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전달받고 작가들은 크나큰 흥분에 휩싸여 새 작품들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당장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체의 인간학에 관한 사상리론을 창시하시고 문학건설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문제를 강하게 밀고나가면서 세계문학사상에 특기할 수령형상문제를 작가들앞에 제시하시였다.

수령형상문제! 이것은 참으로 사회주의사실주의 문학발전에 새로운 일대 변혁이였다.

잊을수 없는 그 겨울날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새로운 혁명문학건설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은 바로 수령형상문제를 념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였다.

이이께서는 수령형상문제를 제기하시면서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창조문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공산주의자의 전형에 대한 선행한 리론들의 본질적인 제약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기에 바로 진정한 공산주의자의 전형이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수령형상문제와 공산주의자의 전형창조문제를 새롭게 제시하심으로써 새로운 혁명문학, 주체문학의 새 모습이 환히 밝혀지게 되였다.

서해기슭 자그마한 휴양소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받은 때로부터 몇달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한 혁명가의 생활을 취급한 장편소설이 출판되였다.

두툼한 장편소설을 받아쥐는 순간 작가는 기쁨보다 불안스러워지는 마음을 어찌할수 없었다.

그것은 작품에 그려진 공산주의자의 전형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들려주신 그런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소박하고 순박하고 고결한 품성과 고상한 정신세계를 체현하지 못하였기때문이었다.

작품이 범한 파오는 심각하였다.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에 대한 외곡, 우리당의 혁명전통에 대한 외곡, 조선의 진정한 혁명가들에 대한 모독, 이것은 참으로 돌이킬수 없는 파오였다.

작가는 깊은 자책과 회오 속에 자신을 모질게 채찍질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작가는 천만뜻밖에도 전혀 예상치 않았던 장소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만나뵈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활달하신 음성으로

《몸은 좀 어떨습니까?》라고 물으시며 축 처진 그의 어깨를 다독여주시였다.

이윽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몸에 무리가 가고 수척해지도록 고민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마음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내가 벌써 좀 만나려고 했는데 그동안 급한 일때문에 짬을 못내고있다가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절대로 의기소침하거나 힘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을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은 이제부터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도 크고 뜨거운 사랑이였다. 작가는 참고 참아오던 눈물을 끝내 쏟고야말았다.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고맙습니다.》라고 한마디를 외웠을뿐 더 다른 말씀을 올리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부드러운 사랑의 눈길로 작가를 바라보시며 《힘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활개를 펴고 해봅시다.》라고 거듭 고무의 말씀을 주시였다.

작가는 활기를 띠고 자신을 더 깊이 검토해보았다.

그리고는 새로운 창작적 열정으로 심장을 끓이며 붓을 힘있게 들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러는 작가를 대견하게 생각하시며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옮긴 영화시사회나 가극시연회에 자주 불러주시고 그의 창작적 안목을 넓혀주시였다.

그러던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 작가를 극장으로 불러주시였다.

그가 급히 달려갔을 때는 벌써 가극공연이 시작되고있었다.

작가가 어두운 관람석으로 조심히 등을 굽히고 들어가고있는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느새 그를 알아보시고 여기 자리를 내놔다고 하시며 자신의 옆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무대에 시선을 보내신채 가극이 완벽한 형상단계에 들어선데 대하여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타이르시듯 말씀하시었다.

《혁명문학작품도 저렇게 써야 합니다. 저런 소박한 조선의 주인공을 그려야 합니다. 착취받고 압박받는 순박한 주인공이 피루성이생활의 라격속에서 눈이 떠지고 세계관이 한걸음한걸음 달라지고 낡은 사회의 기동뿌리를 들어엮겠다는 각오가 생기고 그래서 급기야는 저렇게 투쟁에 나서지 않습니까.》

작가가 흥분된 어조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통사람인 조선의 혁명가를 그려야 한다고 하신 교시의 진수를 이제 와서야 비로소 새로운 정신으로 감득하게 된다고 솔직히 말씀올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흥분으로 상기된 작가의 얼굴을 믿음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열정적으로 말씀하시었다.

《하나하나 배워가며 창작해봅시다. 서두른다고 작품이 잘되겠습니까. 자매예술도 보고 식견을 넓히고 생활도 체험하고 어쨌든 작가는 축적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붓을 들면 샘물터지듯 쏟아질것이 아닙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믿음과 사랑 속에 창작의 눈을 뜨고 날개를 펼친 작가들은 누구나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하여 낮에 밤을 이어 정력을 쏟아부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사업으로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작품들을 하나하나 읽어

보시고 거기에 심어져있는 종자로부터 작품의 구성과 인간관계의 설정, 하나의 사건, 하나의 세부, 하나의 대사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점들을 깨우쳐주시고 수정방향을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를 받으며 작가들은 창작에서 대담해지고 솜구치는 열정과 환상의 나래를 활짝 펼치었다.

드디어 문학작품창작에서 자랑스러운 첫 수확이 마련되었다.

장중편소설들이 출판되고 서사시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작가들은 새로 나온 책들을 받아안고 흥분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혁명문학건설에서 첫걸음을 뗀 작품들이 나온것을 두고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분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느날 장편소설을 쓴 한 작가를 만나시자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지금 수령님께서 작품을 보시는중입니다. 약 30 페이지가량 채 읽지 못하셨습니다. 작품이 좋다고 만족해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매우 기쁩니다.》

작품 한편한편이 모두다 이렇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깊은 사랑속에서 주체문학의 화원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참으로 우리의 문학은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지도밑에 위대한 주체시대의 새로운 혁명문학으로 휘황히 솟아올라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었다.

가사

인민이 사는곳 천만리여도

한관호

오시는 들길에 해가 솟더니
가시는 령길에 별빛 흐르네
인민의 행복 위해 우리 수령님
들길에 지새신 밤 얼마이시랴

외진섬 찾아서 파도를 넘고
두메산 덩불길 헤치시였네
인민이 사는곳 천만리여도
수령님 가시는 길 그끝 모르네

온 나라 인민의 기쁨이라면
하늘땅 끝이라도 찾아주시네
수령님 걸으시는 사랑의 길에
행복의 락원은 꽃피여났네

아, 수령님 사랑속에서
오늘의 이 행복 꽃피여났네

산촌의 메아리

1

앞을 바라보아도 산
뒤를 돌아보아도 산
병풍을 둘러친듯 산들이 둘러섰다고
예로부터 그 이름도 풍곡리-

령너머 고개너머
에서 철길까지 몇십리런가
읍에서도 삼십리 떨어진
한적한 산촌의 외진 마을

양지바른 풍악산 기슭에
오봇이 들어앉아있는 중학교-
교문앞 설레이는 백양나무밑에
아담한 문화주택 한채
여기서 신명훈교원이 산다

마을은 새벽안개속에 고요한데
어느새 아침달리기 끝냈는가
결승선을 넘어서 마라손선수인양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는 명훈

꼭지달린 푸른빛 뜨개모자에
흰줄이 뻗은 빨간 체육복
후리후리한 키팔에 다부진 체구
정녕 그 누가 예순나이로 보랴

좋구나, 험한 산도 날아넘을듯
펄펄뛰는 그 열정 그 기백
마당을 한바퀴 돌고난 명훈이
걸음멈추며 숨쉬기하는데

부엌문가에서 흘러나오는
안해의 비웃음에 젖은 목소리
- 여보, 이젠 좀 그만하시우
남들이 보구 웃겠어요

안충모

하건만 들은듯 못들은듯
명훈이 병글거리며 큰숨 쉰다
다시금 울리는 안해의 지청구소리
-에그, 아직 마음은 젊어서...

남편의 배심든든한 소리
-아무렴 마음이 중요하지
신심이, 신심!
-또 그 소리에요 참...
안해는 허를 차며 돌아서고

토방에 앉아 땀 식힌 명훈이
문득 잊었던게 생각나는듯
신문꽃이 앞으로 다가가더니
방금 온 신문 뽑아 펼쳐든다

별생각없이 신문을 들여다보던
명훈의 두눈 둥그래지누나
-아니, 이게 누구냐?!

화등잔같이 커진 눈 습벽이며
-우리 복순이가!!

아, 이게 웬일인가?
《왕관》을 쓰고 《왕피》를 메고
우승컵을 한가슴에 안은 복순이
만면에 웃음지으시는 수령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단발머리처녀
정녕 박복순이 뽕단말인가!

후들후들 떨리는 손
자꾸만 뜨거워지는 눈시울이여
《세계탁구녀왕...
박복순동지에게
인민체육인칭호를...》

제 눈을 의심하는가
몇번이나 눈곱을 훔치고난

명훈이 일어나 머리든다
살구꽃 하얗게 핀 언덕너머
저 멀리 하늘가를 바라보는
눈가에 맑은 이슬이 맺힌다
(복순이가 《세계탁구녀왕》이 되다니? !!)

부엌문앞으로 달려간 명훈이
신문을 내흔들며 소리친다
-여보! 《탁구녀왕》이 되었소
우리 복순이가

-뭐라구요
행주치마에 젖은 손 문지르며
신문을 받아보던 안해 실망한듯
-난 잘 모르겠는데요
누구라구요?

명훈의 서글픈 목소리 울린다
-거 왜 왼손잡이 있었지 않았소
걸어치기 잘못된다 욱먹구 울던...

-에그, 원죄긴지 뭔지
서른해동안 술한 아이들이
웃고 울며 들락날락했는데
무슨 머리가 좋아서 그걸 다...
안해 허를 차며 들어가고-

그런다고 탓하랴
끝없는 환희에 젖어 진정 못해라
명훈이 좋아라 싱글빙글
어깨춤이라도 출듯 들썩들썩

풍곡마을은 뒤설레였다
교원들도 학생들과 학부형들도...
기쁨에 휩싸여 술렁거렸다
《탁구녀왕》 고향의 자랑을 안고

교실과 마을에서도
오가는 길가, 씨뿌리는 밭에서도
박복순이에 대한 이야기
복순이 첫 걸음 뎌 탁아소에서도
날마다 영양제사랑을 쥐여주던 유치원에서도...

하거늘 탁구채를 처음 쥐여준
명훈의 기쁨이야 어떠하랴
-축하합니다 체육선생!
-기쁘겠습니다 신선생!

날마다 편지들이 온다
처녀통신원의 가방 가득채우는
축하전보와 축하편지들이여!
옛 스승에게 보내는 축하의 인사여!

후더워오는 눈곱 자꾸 누르며
밤마다 명훈이 편지들을 읽는다
읽을수록 기쁨이 커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량이 넘쳐나서

의아해하는 안해의 목소리
-뭘 자꾸만 뒤적거리우?
-...
명훈이 입을 열지 않는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가로 다가선 명훈이
달빛 푸른 밤하늘을 바라본다
(아, 복순이가 보고싶구나!)

하지만 다음 순간
명훈이 조용히 머리 젖는다
(아니야
헤어진지도 어느덧 칠년세월
나같은걸 기억이나 할는지...)

어제날 탁구소조원시절처럼
산촌의 이름없는 체육교원이
쉬이 만날수 있는 학생이 아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탁구계의 혜성!

아, 정녕 그러하구나
다시는 영영 만나지 못한다 해도
문안편지 한장 보내지 않는다 해도
복순아, 내 너를 탓하지 않으리

철부지 그 시절
탁구소조명단에 네 이름 적어넣은
그 한가지만으로도 더없이 기쁘노라
시골 옛 스승에겐 그 행복 과분하노라

안해의 서글픈 목소리 울린다
-에그, 촌구석에서 늙어가는
당신같은 사람
생각이나 할걸 그러는지...
하건만 명훈은 침묵

녀인의 음성 실망에 젖는다
-제자들은 《녀왕》이요 뭐요하는데
당신은 검은머리 회도록...

그래도 명훈이 말없구나
가볍게 떨리는 손으로
희스희스한 귀밑머리 쓸어넘길뿐
침묵, 또 침묵...

안해의 서글픈 목소리 또 울린다
-이제 와서 보니 교원이란
한평생 남만을 위해서...
순간 창가에서 돌아선 명훈이
안해의 얼굴 지켜본다

놀라움인가? 노여움인가?
명훈의 낮빛 컴컴해지누나
난생 처음 만나는 사람인양
안해를 지켜보는 침울한 눈빛이여

그럴수도 있으리
새벽이슬 내리는 오솔길에
눈보라치는 운동장에
무더운 탁구장에 땀흘려온지도
어느덧 짧지 않아 삼십여년

포부도 크던 꽃나이 때엔
명훈에게도 꿈이 많았노라
국경너머 멀리 어디 가서든지
패권자로 온 세상을 놀래우리라고

하였건만
인생의 운명이란 알길 없어
고요한 산골의 좁은 운동장에서
머리휘줄 그 누가 알았으랴

커가는 과일나무 바라보며
원예사 힘든줄 모르듯
자라나는 아이들 키워주며
명훈이도 제일에 정들었나니

사랑하는 제자들이
멀리 위도와 경도 너머에서
시상대우에 높이 올라
공화국기발 휘날린 소식이 올 때마다
아, 지구덩이를 통채로 안은듯
한가슴에 차넘치던 환희여!

-여보!
날카롭게 울리는 명훈의 음성
-머리 희도록 함께 살아오면서
아직도 내 마음 모르우?

안해도 한마디 더 한다
-모르지는 않지만...
-명예나 보수를 바라고
아들딸 키우는 어머니를 보았소?

조용히 방안을 오고가던
명훈의 눈시울에 이슬이 맺힌다
-난 요즘 정말 기쁘오!

정말 춤이라도 막 추고싶구려!

명훈이 걱정을 누르지 못한다
-사람들은 나를 축하하지만
열두살때 탁구채를 쥐여준게
도대체 무슨 큰게라고...
내가 기뻐서 눈물 흘리는건
두메에 묻혀있던 어린 싹을
활짝 꽃피워준 그 해빛이 고마워서...

2

세인을 경탄시키고 놀래운
뛰어난 명인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알고싶어했더라
어데서 어떻게 자라났는가?

인류력사의 갈피마다 남긴
곡절많은 재사들의 발자취
기구하지 않는 운명 없었거니
조선이 낳은 《탁구의 너왕》 박복순
파연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열아홉 꽃나이 이 좋은 세월에
류다르게 차려진 운명이야 있으랴만
복순이 자라온 나날에도
사연 깊은 이야기 많거니
그래서 고향으로 찾아가는
처녀의 가슴 설레이노라

차창가에 조용히 앉아
창밖으로 안겨오는 산말을 바라보는
복순의 마음 감회깊구나
(아, 내 고향, 정든 산천!)

붉은넥타이 날리며
평양으로 떠나올 때
성공을 축복하듯 설레이던
진달래 곱게 핀 언덕이여!

저기 들에서 씨뿌리는
농장원처녀 동갑일수도 있으리
유치원 어린이의 손잡고 걸어가는
교양원처녀 동창생일수도 있으려니

말해다오, 단말머리처녀여!
두메산골의 수수한 농장원의 딸이
어떻게 누리에 높이 올라
조선의 영예 빛내이게 되었는지

아, 감회도 새로워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속에서

재능을 꽃피워온 영광의 나날이여!
랑만속에 맞이한 청춘시절이여!

...

일곱해전 아직은 그때
시골학교 평범한 중학생이었다
전국소년경기에 나서는것만도
잠들수 없는 기쁨이었거니

크나큰 영광 그렇게도 빨리
차례질줄 어찌 알았으랴
경기록화화면을 보시던
친애하는 그이께서 기뻐하실줄
꿈엔들 생각이나 했으랴

나어린 학생이 잘한다고
침착하면서도 대담하고 패기있게
원손으로 걸어치기 재치있다는며
체육선수단에 데려다 명수로 키워보자고
믿음을 주실줄 누가 알았으랴

감격도 새롭구나
친애하는 그이의 부르심 받고
평양으로 평양으로 달리던
정가로운 기적소리 쇠바퀴의 동음이여

복순이 데려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유능한 지도원 파견해주시고
좋은 타구채도 보내주시더니

어느해 어느때였던가
그처럼 바쁘신 시간 내시여
몸소 체육단에까지 찾아오셨던
진달래도 붉게 핀 그 봄날-

허물없이 나무의자에 앉으시여
복순이의 훈련경기 보아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복순은 생각나지 않는다
그이앞에서 어떻게 공을 다루었는지
어떻게 이기고 졌는지

다만 생생히 떠올라라
경기 마지막 승패의 판가리
한알에 달려있던 아슬아슬한 그 순간에
높이 올리신 그이의 음성
-복순이, 신심을 가지라구
타구승패의 공개된 비결은
마지막 한알을 남기고도
끄떡하지 않는 철의 심장
백절불굴의 신심에 있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결심
반드시 이길수 있다는 투지
신심에 있소! 신심!

아, 생각할수록 꿈만 같아라
우승컵을 안고 귀국하던 날
드넓은 비행장의 꽃바다우에
설펀이는 연도의 꽃물결우에
번쩍이는 무개차에 세워주시고
성대한 국가축하연까지 베푸시여
고향의 부모님 한식탁에 불러주시
위대한 그 사랑 고귀한 은정이여!

해와 달이 다간들
어찌 잊을수 있으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부르심 받고
그이를 만나뵈던 영광의 그날을-

당중앙 집무실에 들어섰을 제
-아, 우리 복순이가 돌아왔구만!
손잡아주시며 기뻐하셨다
-참, 출룡하오! 장하오!

그이의 음성 격정에 넘쳤어라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동무는 모를게요
사람이 수십억이나 되는 세계에서
우리 나라 박복순이 1 등했다고
몇번이나 자랑높이 말씀하셨소

복순은 그저 흐느끼기만 했노라
한가슴에 받아안기엔 그 영광
너무도 커서 어깨만 들먹이는데
그이의 다정한 음성 울렸다
-어디 좀 자세히 말해보오
어떻게 이겼는지

하고싶은 말은 많았건만
웬일인가 목이 꼭 메여와서
복순이 입을 열지 못하는데
그이께서 다시 물으셨어라
-마지막 한알을 가지고
어떻게 이길수 있었는지?
그제야 고개를 든 복순이
웃깃 여미며 정중히 말씀올렸다
-한알이 남은 마지막 그 순간에
저의 심장에 울려온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신심을 잃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그이의 음성 떨렸어라
-정말 동무는 조선의 꽃이요!
항일선렬들의 넋을 이어받은
우리 시대 체육인들의 모범!
우리 당의 참된 딸이요!

아, 분에 넘쳐 송구스러워라
복순이 어쩔바 모르는데
그이께서 조용히 물으셨다
-고향이 풍곡이라 했지?

-네, 그렇습니다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신
친애하는 그이 말씀을 이으셨다
-풍곡이면 외진 산골이구만
그래 편지는 했소?

복순이 깊은 생각없이
-부모님은 벌써
비행장과 연회에서...
-그래두 고향엔 복순이 편지를 기다리는
정든 사람들이 많을텐데...

순간 복순이 머리숙이였다
과분한 영예와 환희에 잠겨
고향을 잊고있는 철없는 자신이
죄스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신
그이께서 방안을 거니시였다
(풍곡리! 외진 산촌!
체육선수들이 많이 나오는곳
물이 좋아선가 산새가 많아선가
아니, 분명 여기엔 그 누군가가...)

복순이 앞에서 걸음 멈추신
친애하는 그이께서 말씀하셨다
-휴가를 받도록 해줄테니
고향에 가서 쉬고 오시오

-일없습니다, 전 훈련을...
복순이 말끝을 맺지 못하는데
그이께서 나직이 물으셨어라
-복순에게 처음으로 탁구채를 쥐여준
옛 스승이 지금 어데 있소?

복순이 입을 열지 못했다
솔직히 알지 못하고있었다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땅
벽촌 체육교원의 안부조차도...

그날의 죄스런 마음 안고
렬차는 달린다
아, 산촌에 올리는 기적소리
고향으로 가는 복순의 기쁨 싣고
렬차는 산골이 돌아선다

3

새벽마다 달리기로 키워온
무쇠같은 그 힘 어데다 쓰랴
빠스시간 놓친 복순이 걸었다

감회깊은 수려한 산촌길-

종구나! 정든 고향길
경기에 갔다 이기고 돌아오던
중학시절의 그날처럼 걸었다
헐헐-날개라도 돋친듯...

한굽이 돌면 또 한굽이
진달래 붉게 타는 굽이굽이
 시내물은 은구슬로 돌돌 흐르고
향기 안은 꽃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뒤시간이면 풍곡리에 가닿으리
복순이 춤추듯 헐헐 걸어가는데
저쪽 산굽이 하얀 신작로로
승용차행렬 마주오고있어라

걸음 멈춘 복순이
길옆에 조심히 비껴섰다
앞을 지나 달리던 차행렬
저쪽에서 천천히 멀어졌다

웬일일까?
복순이 어리둥절해하는데
차문을 열고 길우에 내려서시는
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박복순동무가 아니요?!
어느새 알아보셨는가
환하게 웃으시며 걸어오시는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복순이 웃기어미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허리굽혀 정중히 인사드려라
복순이를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성공하고 찾아오는
고향길을 축하하오!

생각깊으신 다심한 시선으로
첨첨이 둘러선 산밭을 둘러보시던 그이
이윽고 나직이 물으신다
-그런데 왜 걸어서 가우?

다소곳이 고개속였던 복순이
송구스러이 말씀을렸노라
-동무를 만나 이야기하다나니
그만 빠스시간을 놓쳐서...

복순이 앞으로 다가서신 그이
두손에 든 손짐을 훑어보시며
힘있게 말씀하시여라
-《개선장군》의 고향방문을

우리 몇몇이 내세웁시다!

4

그이께선 수원들을 돌아보시며
-이 동무를 태워다줍시다
-전 일없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복순이 안절부절 못하는데

대견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세상사람들이 떠받드는 《너왕》이
걸어서 고향으로 들어가다니...
그러지 말고 어서 타고 가요

어느새 머리 돌린 승용차 한대
복순이 앞에 와서 멎어섰다
하긴만 복순이 송구스러워서
-전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바쁘신데 어서...

복순은 과분한 그 사랑에 목매여서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꼈다
분초가 새로우신 그이께서
로상에 서계시게 함이 죄스러워서...

아, 정녕 목매여와라
공화국기발 누리에 높이 휘날린
조선의 꽃, 당의 참된 딸이라고
분에 넘친 치하를 주시며
어버이수령님 만나뵈고 기념사진 찍는
크나큰 영광 안겨주신것만도 과분한데

오늘 또 휴가가는 고향길에
바쁜 승용차까지 몸소 내주시니
오오, 처녀의 작은 가슴에 받아안기엔
너무나도 벅찬 은정이어!

-자, 어서 오르라구!
몸소 차문앞에까지 데려다주시는
친근하신 우리의 지도자동지
-복순이가 떠나야 우리도 떠나지

목매여 흐느끼던 복순이
그이앞에 큰 절 드리고
어깨 떨며 차에 오르려 할 때
뜨겁게 울리는 다심한 음성-
-《탁구너왕》을 키워준 옛 스승에게
나의 인사도 함께 전해주시오!

아, 자애로운 미소 지으시며
손 흔들어 배려주시는 그이를 우러러
복순이 차창에서 눈길 떼지 못해라
흐려지는 눈굽을 닦고닦으며...

오늘도 명훈은 시간가는줄 모르고
노상 탁구훈련장에서 산다
어느새 점심때가 지나가고
언제 해가 저무는지 모른다

문돌쩌귀에 불이 나리라
학생들이 다투어 찾아온다
-저도 탁구소조에 들겠습니다!
-저도 넣어주십시오!

문턱이 닳게 학부형도 찾아온다
-우리 집 영남이도 넣어주시우!
-우리 옥란이도 키워주십시오!
뜨거운 목소리 간절한 부탁

새로 받아들인 소조원에게
탁구채 쥐는 법 배워주는데
교문쪽에서 승용차경적소리 울리더니
누군가 뛰어들며 소리친다
-선생님, 왔습니다!

명훈이 놀라 돌아서며
-오다니? 누가...
-신문에 난 우리 학교...
눈이 둥그레진 명훈이
-아니 뭐라구?

그 물음에 대답이라도 하는듯
조용히 탁구장문으로 들어서누나
무용수마냥 몸매 날씬한 단발머리처녀
-선생님!!

순간 못박힌듯 굳어진 명훈
두눈만 습먹이며 서있었다
-접니다, 박복순이가...
복순이 목매여 울먹이는데

그제야 두팔 벌리고
명훈이 허둥지둥 달려나가며
-복순아!!
처녀를 와락 부여안는다

-선생님!!
옛 스승의 가슴에 얼굴 묻고
복순이 어깨 물결친다
-왔구나! 《너왕》이 왔어!
제자의 어깨 쓰다듬는 떨리는 손길이어

명훈의 목소리도 떨린다
-신문에서 다 보았다!

-축하한다! 정말 장하다!
-선생님, 이러시면...

명훈이 주먹으로 눈곱을 누른다
-너무 기뻐서 그런다
얼마나 보고싶었다구
가슴을 들먹이며 목메이며...

영화의 화면을 보는듯
탁구소조원들도 흥성거리는데
명훈의 자랑넘친 목소리 울린다
-인사들 하거라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던 탁구선수다!

순간 복순에게 쏘리는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 눈동자
명훈의 목소리 감회도 깊어라
-칠년전에 이 방에서
너희들처럼 처넣기를 배웠지

탁구대앞으로 다가선 복순이
반들거리는 판을 쏘아보며 말한다
-채도 제대로 칠줄 모르던 저를 위해
하나하나 배워주던 그때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명훈이 송구스러운듯 손저으며
진정을 터놓는다
-고맙다
이렇게 찾아와주어

그 말에 얼굴 붉히며
웃기 정중히 여미며 복순이 말한다
-선생님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냐?

명훈이 놀라 쳐다보는데
복순이 목소리 떨린다
-제가 선생님을 찾아오게 된건
사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말문이 막히는가
복순이 어깨만 들먹이여라
-뭐라구?!

명훈의 눈 등그래진다

복순이 목이 메여 말했노라
신문에 다 쓰지 못한 이야기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히 만나주시고
고향길에 차까지 태워 보내주시어
옛 스승에게 인사전하라시던 이야기...

명훈은 말없이 서있었다
친애하는 그이께서 따듯이 잡아주신
복순의 손 자꾸만 쓸어만지며

오래오래 움직일줄 몰랐다
하염없이 흐르는 후더운 눈물
제자들앞이라 숨길 생각도 없이...

5

산촌의 밤은 깊어가건만
명훈은 잠들지 못해라
끝없는 자랑을 안고
과분한 영광을 안고-

생각갈아서는 열흘이고 한달이고
복순이를 붙잡아두고싶건만
어서 가서 부모님 만나뵈라고
떠날 차비 해주느라 바쁘더니

별방에선 산나물도 귀하리라고
드릅나물과 도라지도 짜넣고
들깨와 줄당콩종자도 골라넣고
나들이 왔다 돌아가는 딸 보내듯
안해도 분주히 돌아가더니

복순이와 함께 잠들었는가
불꺼진 아래방은 고요한데
옷방 서가앞에 앉아있는 명훈
이밤도 진정할줄 몰라라

복순이 전해준 고귀한 그 말씀
가슴으로 젖어들어 심장불타라
-《탁구녀왕》을 키워준 옛 스승에게
나의 인사도 함께 전해주시오!

아, 생각할수록 가슴후더워오는
그이의 높고 숭고한 뜻이여!
소문없이 산촌에서 늙어오는
교원에게 안겨주시는 깊은 믿음이여!

자리에서 일어난 명훈이
편지통과 사진첩을 내려 펼친다
정녕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편지들에 기쁜 소식 담아보냈던가!

빛이 났고 보풀이 인
수백수천장의 뜻깊은 사진들이여!
붉은넥타이 날리던
소박한 분단별 체육경기로부터
세계선수권대회 높은 시상대까지
다감한 생활과 승리의 화폭들이여!

명훈이 깊은 감회에 잠겨

사진첩 한장한장 번지는데
죄지은 사람과도 같이
송구스러이 곁에 와앉는 안해
-아직도 쉬지 않구...
-당신은 왜 자지 않구

안해앞으로 사진첩 내민다
-불수록 감회가 새롭구만
참말로 사진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말없이 머리 깊이 숙이는
안해의 떨리는 목소리-
-여보, 절 용서하시우
이제야 당신의 마음을...

허허-너그럽게 웃으며
명훈이 손을 젖는다
-됐소! 그만하우
알았더니 기쁘오!

한장 또 한장
사진을 펼치는 부부의 마음
천금나락 설레이는 황금벌 바라보는
농민의 흐뭇함에 비기라
백과주령진 과원을 바라보는
원예사의 환희에 비기라

6

산촌의 밤은 깊어가건만
살구꽃 하얗게 핀 과수원기슭
리당위원회 작은 창문엔
불빛 꺼질줄 몰라라

따로 마련한 숙소에 모시려고
몇번이나 말씀 올렸건만
숙소에 가면 거기 동무들에게
깊은 밤 수고를 끼친다시며
사양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송구스러워 어쩔줄 모르던
도당책임비서도 돌아가고
죄송스러워 차마 발길 떼지 못하던
군당책임비서도 돌아간 깊은 밤-

크지 않는 검소한 방이여라
키낮은 책상에 마주앉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보고서와 료해문건들을 읽고계신다

산간지대에도 만풍년 안아오시려

험한 산밭도 넘으시고 강도 건느신
사랑의 길 몇백리 몇천리런가
동트는 이른새벽부터
달지는 늦은 밤까지
순간도 쉬실줄 모르시여라

길지도 않았노라
풍곡군당에서 올린 료해자료-
한줄 또 한줄 읽으시는
그이의 안광 밝아지신다

...교육년한 33년
키워낸 체육선수 176명
그중 체육명수 13명
공훈체육인 3명
인민체육인 2명
세계선수권보유자 1명

나라의 통성과 번영을 좌우하는
국가경제발전계획의 수자도 아니건만
읽고 다시 읽으시는 그이
(체육교원 신명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조용히 방안을 오고가신다

(33년! 검은머리 백발이 되도록
외진 산골학교에서 묵묵히
수많은 선수를 키워낸 체육교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순간순간이 천추를 대신해야 하는
그처럼 위급한 때
불뽕는 적화구를 가슴으로 막는 일
누구나 쉬이 할수 있는것 아니지만
짧은 순간과 순간을 빛내여
기나긴 한생을 빛내이기도
누구나 쉬이 할수 있는것 아니거니

이런 사람이 바로 애국자이다
보수도 명예도 바람이 없이
나라의 체육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온
이런 사람이 바로 영웅이다

언제 한번 수만관중의 환호 받으며
결승선 테프를 끊어본적 없고
박수갈채속에 시상대에 올라
화려한 꽃다발 받은적도 없는 사람

오직 깨끗한 량심과 불타는 열정

사랑하는 제자 위해 바쳐온
그 삶을 그대로 행복으로 간직한
이런 사람이 바로 혁명가이다!

이렇듯 성실한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주어야 하는가?
이런 사람들을 높이 내세워
세상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는
그런 칭호는 없는가?)

봄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건만
그이께선 오래오래 방안을 거니셨다
(그 스승에 그 제자!
얼마나 정이 가는 사람들인가)

7

산촌의 빠스정류소는 실레고있었다
떠나가는 박복순을 바래주노라
모여온 교원들과 학생들...
논밭으로 나가던 농장원들...

보다 큰 성공을 계속 쫓아우라!
떠나보내는 얼굴마다
축복과 기대의 빛 어렸는데
읍쪽 큰길에서 달려오는 《갱생》한대
명훈이와 복순이 앞에서 벗어선다

누군가 차에서 내리더니
손저어부르며 급히 달려온다
-신선생! 복순동무!
명훈이 영문몰라 마주나가며
-군대책임비서동지가 어떻게?...

모여선 사람들 둘러보던 책임비서
정중한 목소리로 말한다
-여러분! 기뻐들 하십시오
우리 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고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어제 여기 풍곡중학교에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셨습니다

-네?! !
명훈이 걱정에 휩싸이고
교원들과 학생들 눈이 둥그래서
서로 부여잡고 뒤설레이는데
명훈이 앞으로 다가선 책임비서
떨리는 음성 건잡지 못해라

-봄날 과수나무를 키운 원예사는
가을날 탐스런 과일에 가리워
눈에 잘 띄우지 않듯이
훌륭한 사람뒤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서있듯이
훌륭한 인재뒤에는 어김없이
훌륭한 스승이 서있는것이라시며

산골학교에서 검은머리 회도록
수많은 체육선수들을 키워
국제경기장에 내세운 그 교원이야말로
진짜배기 애국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단에서 한생을 바쳐오지만
나라의 체육발전에
큰 공을 세웠기에
공훈체육인칭호를 주는것이 좋겠다시며
평양으로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그자리에 굳어진 명훈이
어깨만 세차게 들먹거리는데
책임비서 그의 손 잡아흔든다
-축하합니다! 신선생
그다음은 복순이 팔에 매달린다
-선생님 축하합니다!!
교원들도 학생들과 학부형들도
-축하합니다!
-영광입니다!
흐느끼는 명훈의 안해에게도
-기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주먹으로 눈굽을 훔친 명훈이
머리들더니 정중한 몸가짐으로
노을이 붉게 타는 하늘가를 우러른다
-고맙습니다! 황송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세계선수권대회 높은 시상대에서
공화국기발 누리에 날린 선수도
쉬이 받지 못하는 고귀한 칭호를
저에게 안겨주시니 황송합니다!

모여선 사람들에게로 돌아선 명훈이
목메여 흐느끼며 말하누나
-여러분!
원예사의 정성 아무리 지극한들
따사로운 해빛이 없다면
어찌 탐스런 열매 익을수 있겠습니까

훌륭한 사람뒤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서있는것처럼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인민앞에는
탁월한 령도자가 서계십니다

산골에 살든 섬마을에 살든
나어린 학생이든 머리흰 교원이든
재능을 키워주시고 영광으로 이끄시는
우리모두의 위대한 스승이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만세!

만세소리 터져오른다
감격에 울며 웃으며
목메여 부르는 만세환호소리
풍곡땅을 뒤흔드는 심장의 웨침소리
시대의 송가, 충성의 노래로 메아리친다

그 메아리를 타고
훨훨 하늘가로 날아가는듯
해빛이 눈부신 산굽이 돌아
달려간다 뜨거운 마음들이
위대한 스승의 품으로
자애로운 삶의 해발을 우러러

영 생

김재윤

그날의 조국강산을 눈앞에 그려보는것인가

눈 먼 추격의 총소리 멎다...

산마루에 다달은
유격대의 두 공작원

가닿아야 할 사령부는
두만강 건너 보이는듯하건만
원쑤의 흉탄에 쓰러진 한 대원
에서 진정 눈을 감는단말인가

...이윽고 머리들어
조용히 눈을 뜬 대원
오래도록 먼 하늘가를 바라보는
그 눈길에 그 입가에
한없는 미소 피여오른다

맑고 푸른 조국의 봄하늘
그 하늘 어디선가
끝없이 들려오는 종다리의 우짚음소리...
끝없이 울려오는 계곡의 맑은 물소리...

아아
이제 머지 않아
조국이 광복되는 날
장군님 모시고 돌아올

걸어온 삶의 길 짧아도
오로지 그날을 위해 한생을 다 바쳤고
그날을 보며 미소는 끝없이 피여오르는가

쓰러져도
한번 들어선 그 길에 쓰러졌고
죽어도
영원한 신념이
피워주는 그 미소

이제 더는
발길 뻗수 없어도
피여 질수 없는 그 밝은 미소...
그대 어찌 숨지였다 하라
그대는 영원히 장군님의 품에 안긴 몸

아아
끝없이 끝없이 울리어
하늘땅에 가득찬 종다리의 우짚음소리여!
끝없이 끝없이 넘치여
하늘땅에 가득찬 계곡의 맑은 물소리여!
그 영원한 행복한 메아리와 함께
영생하는 삶이어!

사랑의 샘

백은팔

1

여름내 산과 들을 물들였던 푸른빛이 이제 겨우 누런 색깔로 변하기 시작한 초가을이었다. 가을바람은 제법 연한 갈색으로 익어가는 나무잎들을 가볍게 흔들며 설렁설렁 불어왔다.

현성민은 즐거운 기분에 사로잡혀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풍만한 자연풍경을 욕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문학예술부문의 중요직책에서 일하며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사업을 몸가かり에서 보좌해드리고있는 지도일군의 한사람이라는것도 감감 잊고있었다. 그것도 그럴것이 요즘 내내 더미로 겹쌓이는 수많은 일감들을 처리하시느라 좀처럼 잠을 못내시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시려고 오늘 사냥을 떠나셨던것이다.

현성민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부르신다는 연락을 받고 당중앙위원회청사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일전에 파업을 주신 문학예술부문일군 협의회 준비정형을 료해하시려고 찾으신줄 알았지 이처럼 사냥을 같이 나가자고 부르신줄은 전혀 예견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래서 그는 모처럼 마련된 이 기회에 그이께서 정말 즐겁고 기쁘게 휴식하시도록 잘 보장해드려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있었다.

정오무렵에 당중앙위원회청사를 떠난 두대의 승용차는 서북쪽을 향하여 쾌속으로 달리였다.

속도를 높여 한 300 리가량 내달린 승용차는 큰 길에서 벗어나 산골길로 들어섰다. 산기슭을 에돌고 골짜기를 따라 50 리쯤 들어가니 집주변에 대추나무와 돌배나무들이 짙 들어선 자그마한 마을이 나타났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마을앞에 차를 세우도록 하시고 동네에서 제일 오래 산 늙은이 한분을 만나보자고 하시였다. 현성민이 마을로 들어가 옛날 젊었을 때 매사냥을 하며 험산준령을 제 집문턱 넘나들듯했다는 풍채좋은 로인을 데리고 나왔다. 너구리털을 대고 만든 가죽조끼를 꺼입은 로인은 허연 수염발을 펄펄 날리며 씨영씨영 걸어나왔다.

《할아버님, 안녕하십니까?》

그이께서는 로인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신 다음 여기에 부엉이가 있을만한곳이 어딘가고 물으시였다.

《부엉이말입니까?》

김정일 동지께서 방금전에 현성민이더러 자신께서 사냥에 나오신것을 비밀에 붙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인은 수수한 옷차림을 하신 지도자동지를 진짜 사냥군인줄로만 안고 무릅없이 반문하였다.

《예.》

《그러니 젊은이들은 부엉이를 잡으러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답들이 큼니다.》

길쭉한 얼굴에 주름발이 얼기설기 건너간 로인은 껌질을 벗기고 만든 노가치나무지팡이끝으로 하늘을 치받으며 아찔하게 솟은 벼랑턱을 가리키였다.

《저기서 올봄에 새끼 한배를 쳤수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거기엔 산양이나 발을 붙이겠는지 사람은 얼씬도 못합니다. 자고로 이 아근엔 저기에 올라가본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로인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귀중한 동지 한사람이 중병에 걸려 고생하고있습니다. 그 병엔 부엉이가 좋은 약재로 된다고 합니다.》

《음-》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절절한 말씀에 표표한 기상으로 서있던 로인은 연방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러나 더욱 놀란것은 로인이 아니라 현성민이였다. 그이께서 오늘 갑자기 사냥을 나오신것은 그저 휴식의 한때를 보내시려는것이 아니였다.

하다면 방금 그이께서 동지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이며 무슨 병을 앓고있기에 그 희귀한 날짐승을 잡으러 하시는가?

그렇다고 로인앞에서 물어볼수도 없고 하여 현성민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의문을 그대로 안은 채 묵묵히 서있었다.

《의리가 깊으신분들이군!...》

로인의 석씩하고 목갈린 소리가 현성민의 생각을 깨뜨렸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의 가슴앓이를 고쳐주려구 오동지달에 눈속을 헤치고 까마귀열매를 따온 효자가 있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혈육도 아닌 친구의 병을 고치려구 저 험한 벼랑에 올라가 부엉이를 잡으려는 사람은 젊은이들 말고 내 여적 보지를 못했습니다. 참 장하이...》

《그러게 친구는 부모보다 귀중하고 동지간의 사랑은 처자간의 사랑보다 더 뜨겁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아하니 젊은분은 건문도 넓으시군.》

로인은 동지에 대한 그이의 뜨거운 지성에 감심되어 자꾸 고개를 끄덕이였다.

《로인님, 고맙습니다.》

《그게 뭘 그리 고맙겠습니까. 내 조금만 젊었드래두 길안내를 해드리며 올라가는건데 이젠 다리가 말을 안들어줍니다. 허허...》

심산유곡에서 고스란히 살아온 로인은 인생말년에 인정 많고 도량이 넓은 귀한 손님을 맞아본 그 기쁨과 환희때문인지 무슨 말인가 더 자꾸 하고 싶어했고 헤어지기 아쉬워하였다.

《로인님, 친철히 대주신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힘으로 됩니다. 어서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로인과 헤어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차들을 산기슭에 들여세우도록 하시고 두명은 벼랑 밑에, 다른 사람들은 맞은편 산으로 올라가게 하시였다.

탄피를 허리에 두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현성민이를 데리고 벼랑중턱을 뚫아오르시였다.

현성민이 그이의 신변안전이 걱정되어 올라가지 마시라고 몇번이고 간청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이께서는 일단 결심만 하면 중도에서 철회하는 법을 모르신다.

현성민은 하는수없이 그이의 뒤를 따라 물푸레 나무와 참나무들이 들성들성 서있는 벼랑을 뚫아올랐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끼덮인 바위들을 하나하나 골라질으시며 날과람있게 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무가지들을 량옆으로 휘어눌히시며 현성민의 앞길을 띄여놓곤하셨다. 그렇게 한참 오르시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노가지나무가 엇비듬히 서있는 평퍼짐한 바위우에 자리를 정하고 앉으시였다. 사방 어디나 다 굵어볼수 있게 전망이 탁 트인곳이다. 현성민은 이마에 돋은 땀방울들을 손수건으로 씻으며 주위를 휘-돌러보았다. 돌우에 돌이 없혀있고 까부랑소나무들이 묘하게 붙어있는 깎아지른 절벽엔 빨간 단풍나무까지 점점이 널려있어

서 주변은 그대로 한쪽의 그림같았다. 그러나 현성민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심취할 그런 정신적 여유가 없었다. 잠시도 마음을 놓을수 없는 그의 눈길은 이 험한 벼랑턱에 올라와 앉아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로만 자꾸 쏠리였다. 그이께서는 쌍안경을 높이 드시고 산벼랑 여기저기를 살살이 훑어보시였다. 온 신경을 부엉이를 찾는데만 집중하고 계셨다.

머리우에서는 수리개가 서서히 감돌고 까치들까지 한데 모여들어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것처럼 찾는 부엉이는 눈에 띄이지 않았다.

《그 명물이 우리의 정성과 인내력을 시험하는게 아닌가?》

현성민은 날짐승을 잡으려고 것처럼 애쓰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바라뵈기가 너무도 민망스럽고 송구하여 부엉이가 없으면 그 사촌이라도 볼썽 눈앞에 나타나주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하며 아까부터 알고싶던것을 종내 묻고야말았다.

《꼭 부엉이를 잡으셔야 합니까?》

《그렇소. 참, 내 현동무한테 그 말을 안했던가?》

현성민은 영문을 알수 없어 그저 묵묵히 앉아 그이의 얼굴을 우두머니 바라보기만 하였다.

《내 요즘 며칠동안 의서들도 좀 들춰보고 민간료법이란 연구해보았는데 뇌진탕후유증엔 부엉이 꿀이 좋다고 했소. 그래서 어제 이름있는 동의사 한분을 허창규동무 부인에게 보내여 진찰을 해보고 처방을 내려달라고 했더니 그 선생도 그렇게 말합디다. 그게 진짜 명처방인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머리 아픈데는 비둘기나 맹수의 꿀을 쓴걸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것도 아닌것 같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현동무까지 산으로 끌고와 고생을 시키누만...》

(그래서 오늘 우정 시간을 내시여 몸소 사냥에 나오셨구나!)

여직껏 머리속에 떠돌던 의문이 한순간에 다 풀린 현성민은 부드럽게 울리는 그이의 자애로운 목소리를 귀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들으며 머리를 깊이 수그리였다.

사실 허창규와 그의 부인을 위해서 기율이시는 그이의 수고에 비하면 자기가 오늘 산에 온것은 하나의 행복한 산책에 불과하였다.

《저야 뭐...》

현성민은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을지 도무지 종잡을수가 없었다.

메세들의 울음소리조차 뜨음해진 석양무렵의 이 한적한 산협에 앉아 그이의 후대운 인간미를 다시금 절감한 현성민의 머리속엔 열흘전에 있던 일이 생생한 표상으로 삼삼히 떠올랐다. .

2

환희와 기쁨에 넘쳐 웃고떠들던 수도시민들이 행복의 요람속에 깊이 잠든지도 퍼그나 오래되었다.

하지만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명도로 주체문학 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마련해나가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밤도 주무시지 않고 수많은 문학예술작품들을 한편한편 지도해주고계시었다.

낮에는 수십편의 시와 노래를 들어주시고 밤에는 또 각 촬영소들에서 올라온 작업필름들을 보아 주시었다.

벌써 밤은 자정을 훨씬 넘어섰건만 그이께서는 다음작품을 마저 보자고 하시었다.

《이번엔 누구의 작품입니까?》

《허창규동무가 쓴 농촌현실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이께서는 허창규동무가 썼다면 작품이 팬치 않게 되었을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어서 영사기를 돌려라고 이리시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오래전부터 작가 허창규를 잘 알고계시었다. 허창규가 쓴 여러편의 작품들을 지도해주시는 과정을 통하여 그의 성격과 취미는 물론 작품창작의 개성적 특질과 지어 가정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꿰들고계시었고 친분관계를 두터이 해오시었다. 그래서 언제나 허창규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그처럼 크게 가지시는 지도자동지시었다.

영사막에는 농민들의 생활이 극적으로 펼쳐지고 주인공들의 대사가 자주 흘러나왔다.

작품은 절반쯤 지날 때까지도 별로 무리없이 순탄하게 흘러갔다.

탁상우에 두손을 올려놓으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작품의 매 장면과 화폭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간간히 뜯어보시었다. 영화는 어느덧 절정대목에 이르렀다.

《가만!》

그이께서는 오른손을 높이 드시며 영사기를 세우라고 하시었다.

《이자 그 장면을 다시 돌리시오.》

영사막에는 방금전에 펼쳐졌던 장면이 다시 나타나고 주인공의 대사가 은근히 흘러나왔다.

작품을 다 보고나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자리틀넘을 안하시고 의자에 그냥 앉아계시었다.

《그래 작품을 본 인상이 어떻습니까?》

그이께서는 현성민을 돌아보시며 나직이 물으시었다.

《성격도 새롭고 생활도 진실하게 안겨옵니다.》

《내 보기에도 그런것 같습니다. 오래동안 현지에 나가있으면서 체험을 깊이 했다는게 알립니다. 그런데 주인공 금순이가 리당비서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왜 그렇게 서글프게 느껴지는지 모르겠거든?…》

현성민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말씀을 듣고보니 처녀관리위원장 금순이의 대사는 어딘가 좀 쓸쓸한 인상을 주었다.

《그건 역인물과 적지 않게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주인공역을 맡은 동무는 성격이 아련하고

늘 수심에 잠긴듯한 표정입니다. 그 동무는 대사도 언제나 그렇게 감상적으로 형상합니다.》

《아무리 배우의 성격이 그렇다고 해도 너무 서글프게 들립니다. 그러해보면 단지 배우의 연기나 연출상 부족점에서만 오는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시사실안을 천천히 걸으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언제나 생활을 낭만적으로만 그리던 허창규동무가 왜 이번 작품에선 양상을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이께서는 걸음을 툇 멈추시고 가까이에 있는 의자를 당겨앉으시었다.

소음이 사라진 시사실안엔 형광등불빛만이 깜박거리고있었다.

방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다.

현성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런듯이 서있었다.

허창규를 너무도 잘 알고있는 그는 사실상 툇툇한 견해표명을 할수가 없었다.

허창규로 말하면 지금까지 좋은 작품을 많이 써서 당에 기쁨을 드린 중견작가의 한사람이다. 그는 창작은 물론 생활도 언제나 락천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당의 커다란 신임과 남다른 관심속에서 창작활동을 벌리고있는 그에겐 아무런 정신적 고민도 사소한 생활상 불편도 있을수 없는것이다. 그러한 허창규가 사회주의농촌현실을 취급한 작품에서 자기의 본래의 개성과는 달리 의도적으로 양상을 어둡게 잡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금순이가 리당비서에게 《전 이젠 지쳤어요. 나에겐 관리위원장사업을 맡아할만한 능력이 없는가봐요.》라고 하는 대사는 주인공이 당조직안에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한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현성민이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그이의 음성이 다시 웅글게 울리였다.

《그새 허창규동무를 한번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예.》

《아무리 바빠도 만나볼걸 그랬습니다. 가정방문도 좀 해보고…》

현성민은 지금 그이께서 무엇을 념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얼른 리해가 되지 않아 잠차코 서있기만 하였다.

《나도 관심을 못돌렸습니다. 지난봄에 잠간 그의 집에 들러보고는 아직 허창규동무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이의 말씀은 정적이 흐르는 시사실안을 조용히 울리였다.

현성민의 가슴속엔 갑자기 뜨거운것이 짝 차올랐다. 당과 국가사업전반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한 작가를 만나보지 못하신것을 못내 아쉬워하시는 동지에 대한 그이의 사려깊은 은정이 꿔부를 찌르며 뜨겁게 안겨왔다.

《제가 래일 허창규동무를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의 안해도 만나보고…》

김정일 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창문턱을 짚으신채 수도의 밤전경을 생각깊은 눈길로 내다보시었다.

《허창규동무의 부인 채순실은 전쟁시기에 부상을 크게 당한적이 있기때문에 그리 건강치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허창규동무에게 가정적 부담이 많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이튿날아침 현성민은 창작실에 나가 허창규를 만나보았다. 그런데 그의 신변엔 크게 변화가 생긴 것 같지 않았다.

현성민은 허창규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갔다. 주인을 따라 방에 들어서니 집안은 별로 어수선하고 정돈되어있지 않았다. 부엌에는 그릇들이 되는대로 놓여있고 목욕탕문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빨래감을 담은 늪버치가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어딜 보나 녀성의 손길이 덜 미쳤다는것이 한눈에 알렸다. 이전에는 늘 알뜰하고 생활의 정서가 진하게 풍기던 집이었다.

현성민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전보다 머리가 더 허해진것 같은 허창규를 측은한 눈길로 돌아보았다.

《부인은 어디에 갔소?》

《예, 잠간...》

허창규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하기를 주저하였다.

《그러지 말고 어디 갔는지 솔직히 말하오. 나한테야 뭘 숨길게 있소.》

그제야 허창규는 뒤더수기를 문대며 사실대로 고백하였다.

《병원엘 좀...》

《병원예요? 그래 무슨 병으로 어느 병원엘 갔소?》

《뇌진탕후유증으로...》

《뇌진탕후유증?》

(그이의 예측이 틀림없으시구나!)

그이상 더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현성민은 어제밤 허창규동무의 개인생활에 무슨 변화가 생긴 것 같다고 하시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말씀을 머리속에 되새기며 구역병원으로 달려갔다.

입원실에 들러 환자를 보니 그의 몸상태는 말이 아니였다. 일체 음식을 전폐한 환자는 머리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말도 툭툭히 번지지 못하였다. 여위고 창백해진 채순실에게서는 본래의 그 아름답고 현숙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수가 없었다.

현성민은 당중앙위원회청사에 도착한 즉시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보고를 드리였다. 현성민으로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동안 아무말씀없이 서계시다가 《내 그럴줄 알았습니다. 그러고보면 사람의 예감이라는데 전혀 무근거한게 아닌것 같소.》하고 조용히 외우시었다.

현성민은 그이의 심려어린 안색을 이윽히 바라보며 환자의 병상태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지 말걸 공연히 다 말씀드렸다는 후회를 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진작 그 모든것을 알아보고 미리 대책을 세웠더라면 그이께 이처럼 커다란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았을것이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있었다.

《뇌진탕후유증이라면 전쟁시기 다쳤다면 그 뇌타박이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도졌단말이겠소?》

《예.》

허창규의 안해 채순실은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국놈들이 떨군 폭탄이 터질 때 폭풍에 날려 전신타박을 입고 오래동안 병고에 시달리였다. 그러다 정전후 도병원의료집단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병을 완전히 고치였다. 그때부터 채순실은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고 남편의 창작사업을 성실하게 도우며 가정의 행복을 유지해왔다.

《그런 불행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걱정할가봐 내색조차 하지 않았단말이지?》

그이께서는 마음 청렴하고 량심 깨긋한 허창규 내외를 너무도 잘 알고계시기에 그토록 가슴아파하시였다.

더우기 그이께서는 허창규의 부인 채순실을 남달리 아끼고 사랑해오시었다.

언제보나 몸가집이 단정하고 순박하던 녀성, 그 어떤 사소한 명에도 추구함이 없이 오직 작품창작에만 온 심혈을 기울이고있는 남편의 사업을 말없이 도우며 지성과 도덕을 함께 수양해온 현숙한 녀인, 그러한 채순실을 대할 때마다 늘 마음이 즐겁고 기쁘시던 그이였다.

《본래 허창규동무는 사람이 너무 고지식해서 탈입니다.》

《고지식한게야 좋지. 그러나 이번엔 너무하단말이요. 그래 전화라도 한통 걸면 무슨 큰 변이 생긴답니까?》

그이의 음성은 몹시 떨리였다.

《제 잘못이 더 큼니다.》

현성민은 송구하고 죄송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러니 때식이나 빨래같은것도 허창규동무자신이 직접 하겠무만?》

김정일 동지께서는 머리가 허연 허창규의 시름 짙은 얼굴을 그러보시는지 한동안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렇게 물으시였다.

《작년에 출가한 딸이 와있다고 합니다.》

《딸이 아무리 살뜰하다고 해도 제 안해만이야 하겠소. 사람두 원참.》

현성민은 마치 자기가 허창규이거나 한것처럼 송구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공연히 손에 든 수첩만 만지작거렸다.

《우리는 이번 일에서 내담없이 다 교훈을 찾읍시다. 무슨 일이나 다 그러하지만 특히 작품창작은 작가의 높은 정신적 양양에 의해서만 담보되는것입니다. 때문에 작품을 쓰는 작가에겐 사소한 마음의 고충이나 생활상 불편이 있어선 절대로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창규동무에게서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었지 그의 아픈 마음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단말이요. 매우 무관심했거든...》

그이의 말씀 마디마디에서 울려나오는 애정어린 목소리는 심한 자책속에 모대기는 현성민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우리 어떻게 하나 채순실동무의 병을 꼭 고쳐 줍시다.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 혁명동지라고 했는데 동지를 위한 일에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현성민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한편의 작품을 보시면서도 그저 스쳐 지나지 않으시고 매개 장면과 대사에 담겨진 작가의 고심어린 흔적과 마음속그늘까지도 속속들이 헤아려보시는 그이의 예지로 빛나는 통찰력과 고결한 인품에 저절로 머리가 숙어졌다.

《환자를 빨리 중앙병원에 옮기고 집중적인 치료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즉시로 채순실을 중앙병원으로 후송하게 하고 여러가지 약제들도 보내주시었다. ...

해는 벌써 서쪽에 기울고 저녁해빛이 남긴 마지막 역광만이 산그림자를 길게 그리며 깊은 골짜기에 어둡침침한 그늘을 던져주었다.

《현동무, 요즘 허창규동무 부인의 병이 꺾 나아졌는지요?》

그이께서는 이슬을 맞아 눅눅해진 외투깃을 여미며 나직이 물으시었다.

《예,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는 완전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제 동의사선생도 그러더군.》

날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지고 옆사람도 분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옷깃에 스며들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래일 다시 오시더라도 오려는 그만 내려가십시오.》

《좀더 기다려보지요. 이제 그놈의 부영이가 〈부영, 부영〉 하고 울게요. 아까 까치들이 소란을 피운걸 보면 이 주변에 부영이가 있는게 분명한것 같소.》

그이께서는 급년봄에 부영이가 새끼 한배를 쳤다고 하던 사냥군로인의 말을 상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그러나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부영이소리는 종시 들리지 않았다. 산아래와 맞은편 산에 있는 동무들한테서도 부영이를 발견했다는 신호가 없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하시었다.

《그렇게 조급해 그러지 말고 편안히 앉소. 우리가 부영이는 못잡는다고 해도 혁명동지를 위해서 마음을 바쳤다는것만 해도 얼마나 자랑스럽소. 또 언제 우리가 이렇게 향긋한 이끼냄새가 풍기는 산골에 와서 품을 놓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겠소. 참, 좋은 밤이요.》

그이의 말씀을 듣고보니 정말 락엽이 부식된 구수한 냄새와 들크무레하고 삼삼한 냄새가 한데 어울린 계곡의 독특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와 폐부를 자극하였다. 어느덧 만월에 가까운 둥근달이 높은

산 뒤에서 불쑥 솟아오르자 주위는 삽시에 푸른 달빛속에 환히 드러났다.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그렇게 기다리던 부영이가 그 특유한 소리로 《부영, 부영》 울기 시작하였다.

부영이소리는 벼랑턱이 아니라 참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산꼭대기에서 들려왔다.

《그 명물이 이제야 나타났군.》

그이께서는 미리 준비해가지고간 먹이를 풀밭에 놓아주도록 하시었다. 부영이의 생리적 특성을 리용하시려는것이다. 먹이를 발견한 두마리의 부영이는 소리없이 날아와 예리한 집게발톱으로 토끼와 닭을 단숨에 덮쳐안고 서서히 떠올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집중사격을 퍼부으시었다.

연딩이에 얻어맞은 부영이들은 더 높이 날지 못하고 잡관목속에 철썩철썩 떨어졌다.

두마리의 부영이를 단번에 잡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무가지들을 마구 휘어잡으시며 산아래로 급히 내려오시었다.

《빨리 떠납시다.》

3

현성민은 이미 계획한대로 문학예술부문 일군 협의회를 준비하느라 바빠 돌아갔다. 그가 회의준비를 다 끝내고 막 문을 나서려는데 전화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왔다.

《현동무니까. 김정일입니다. 협의회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지금 회의실에 다 모였습니다.》

《외국에 보낼 대표단명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명단을 가지고 우리한테 잠깐 왔다가시오.》

《알겠습니다.》

현성민은 당중앙위원회청사를 향하여 급히 달려갔다. 그가 출입문을 조심히 열고 집무실에 들어서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안경을 벗어들며 몸을 약간 뒤로 젖히시었다. 안색을 보니 어제 사냥에서 늦게 돌아와 쉬지 않고 또 밤을 새우셨다는게 험동히 알렸다. 현성민은 그이께 대표단명단을 정중히 드리었다.

이름 밑에 밑줄을 그으시며 명단을 깐깐히 훑어보시던 그이께서는 두사람분의 러퀀을 더 준비하라고 이르시었다.

《허창규동무내의를 외국에 보내여 료양을 하고 오게 해야겠습니까.》

《외국엘말입니까?》

《왜?》

현성민은 일전에 보신 작업필름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기가 오늘아침 또 올라왔다고 말씀올렸다.

《허창규동무의 작품말이지요?》

《예.》

《아직 좀더 기다리란다고 하시오. 내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의견을 준댔자 당장 고칠수 없습니다. 그 작품은 어느 한 장면이나 대사 몇군데를 바꾸는 방법으로는 완성할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 그의 정신상태로써는 작품을 제대로 고칠수가 없습니다. 작품에 대해선 더 걱정하지 말고 허동무와 그의 안해를 외국에 보내어 한달쯤 료양을 하고 오게 합시다. 지금이 그 나라의 기후조건으로 보아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채순실의 병이 어느 정도 호전된것만치 안심하고 떠나라고 합시다.》

그러시고는 협의회에 허창규동무도 왔는가고 물으시였다.

《병원에 갔다기에 부르지 않았습시다.》

《잘했습니다. 그래 부영이를 가져다주니 의사들이랑 뭐라고 합니까?》

현성민은 그만 가슴이 철렁하였다. 협의회를 끝낸 다음에 가져가려고 아직 땡동고에 넣어둔채로 있었다. 사실 그는 채순실의 병이 초기보다 훨씬 나아졌고 또 신약이 아니라 동약인 조건에서 한두시간 늦어진다고 해도 환자의 병치료에 별로 큰 지장을 줄것 같지 않아 협의회소집에만 정신을 팔고있었다.

한동안 어찌할바를 모르고 허둥거리던 그는 자기의 주관적인 속단이 그이께 커다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며 솔직하게 말씀드리었다.

《협의회가 끝난 다음에 가져가려구 아직...》

《그게 무슨 소리요?》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성큼 일어서시였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있는 현성민결로 걸어가는 그의 안광엔 노여움이 어려있었다.

《그처럼 애써 구해온 약재를 아직도 안갖다주다니...》

그이께서는 도저히 믿을수 없으신듯 연신 머리를 흔들시였다.

《물론 협의회도 해야지.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보다야 더 중요하겠소. 아마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동무의 안해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게요. 언제부터 동무는 혁명동지의 생사와 관련되는 문제에 그렇게 무관심한 실무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소.》

그이의 격한 목소리는 현성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현성민은 금시 심장이 얼어드는것 같았다. 그이께서 지금처럼 흥분하신것을 처음보는 그는 너무도 송구하고 죄송스러워 더는 그자리에 서있을수가 없었다.

현성민은 휘청거리는 두다리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때론 혁명과업을 잘못 수행하여 그이의 사업에 혼란을 준적도 있었고 일처리를 잘못하여 큰 사업을 그르치게 한 때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하지만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런 경우에조차도 엄하게 비판은 하시면서도 하나하나 일깨워주고 가르쳐주시였지 오늘처럼 격분을 터뜨린적은 한번도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늘 옆에 끼고계시면서 인정이 있는 충복이 되라고 천백번도 더 강조하시였다. 그렇게 키워오신 현성민이기에 그에게 아픈 말을 하기가 몹시 피로우신듯 그이께서는 한참이나 아무 말씀없이 방안을 거니시다가 원탁앞에서 걸음을 뚝 멈추시였다.

《물론 그 약재가 신약처럼 즉시 효험을 나타내는것도 아니고 또 한두시간 늦어진다고 하여 환자가 당장 어떻게 되는것도 아니요. 그런데 왜 내가 동무에게 이처럼 가슴아픈 말을 하는가. 그것은 우리 일군들이 동지들에 대한 사랑을 한순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기때문이요. 내 늘 말하는것이지만 그것이 정치적 생명에 관한 문제이든 육체적 생명에 관한 문제이든 사람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사소한 에누리나 털끝만한 실수를 해서는 절대로 안되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셨다가 계속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전투에서 만명의 적을 소멸하여도 혁명동지가 한사람이라도 희생되면 그 싸움은 이긴 싸움으로 볼수 없다고 말씀하시였소. 혁명동지 한사람한사람이 그렇게 귀중하기때문에 동지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이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의리이며 신념이요. 그래서 옛날부터 팔백금으로 집을 사고 천금으로는 이웃을 산다고 했소. 그러나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 혁명동지요. 한가하고 편안히 살 때에는 처자가 제일 살뜰한것 같지만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생사운명을 같이할 사람은 혁명동지밖에 없소. ...》

그이께서 하시는 절절한 말씀은 현성민의 흥벽을 쿵쿵 두드리며 세차게 메아리쳐왔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고요가 깃든 방안엔 정적이 흘렀다.

현성민은 두눈을 지그시 내리감고 심한 자책속에 모대기였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문학예술부문을 지도하기 시작한 초시기부터 그이를 몸가까이 모시고 사업해온 현성민은 그이께서 작가들 한사람한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귀중히 여기시였고 그들의 가정생활에 대해서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려오셨는가를 너무도 많이 목격하고 체휼하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려면 글을 쓰는 작가들의 일신상에 사소한 마음의 동요

나 생활상 애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천백번도 더 강조하시었고 몸소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그 시범을 보여주시곤하시였다. 10 여년을 그이의 측근에서 일해오며 그렇게도 뜨겁게 절감하였고 그래서 자신도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고매한 덕망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온몸에 체질화시키려고 남달리 애써온 현성민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이의 뜻을 만분의 일도 따르지 못하고있으니 내가 무슨 그이의 혁명전사이고 인정미가 있는 지도일꾼이라고 말할수 있단말인가?

심한 자책에 잠겨 돌리목처럼 묵묵히 서있던 그는 머리로 들지 못한채 잦아드는 목소리로 나직이 말씀드렸다.

《사실 전 허창규동무 부인의 병을 빨리 고쳐줘야 작품을 잘 만들수 있다는 지도자동지의 의도와 뜻을 충실히 받들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난 동지관계에서 그 어떤 조건부를 제하지 않소.》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현성민의 말허리를 단호하게 잘라버리시였다.

《동무는 마치도 내가 허창규동무 부인의 병을 고쳐주고 가정의 안정을 회복시켜줌으로써 좋은 작품이나 뽑아내려고 밤을 새우며 약재를 구해온것처럼 말하는데 **김정일**은 그런 사람이 아니요.》

그이의 우렁우렁한 목소리는 온 방안을 짝 채우며 찌르릉 울리였다. 어찌보면 아까보다 더 흥분하진것 같으셨다.

(아니 그럼?!)

현성민은 놀라운 눈으로 그이를 우러러보기만 하였다.

《원래 보답을 바라는 사랑은 그자체가 벌써 사랑이 아니라 가식이요. 우리 어머니들이 오만가지 정성을 다 기울여 자식을 사랑하는것이 후날 그 무슨 덕을 보고 팔자를 고치자고 그러겠소. 아니지. 그저 자기 자식이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랄뿐이요. 그런데 동무는...》

그이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셨다가 계속 이으시였다.

《동무 말고 다른 일꾼들도 다 그렇게들 생각한다면 난 정말 섭섭하기 그지없소.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자그마한 사심이라도 추구했다면 벌써 인간되기를 그만두었어야 했을거요.》

현성민은 심장이 후드득 뛰였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강쇠라도 녹여버릴듯 이글이글 타번지는 눈길을 한곳에 건주신채 오래도록 말씀을 안하시였다. 침묵은 한동안 계속되였다. 그 침묵속에서 아직은 무엇이라 이름할수 없는 가장 귀중한것을 받아안게 될 그러한 시각이 도래하고있음을 현성민은 룡감으로 느끼였다. 그는 저도 모르게 후- 하고 모두숨을 내그으며 고개를

번쩍 들었다. 잠시후 그이의 저력있는 목소리가 귀전에 울려왔다.

《난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했던것처럼 한 혁명동지가 겪고있는 고통을 덜어주고싶었고 그의 생기없는 눈동자에 나의 정을 부어주고싶었을뿐이요. 채순실이에겐 그 어떤 천만금의 보약보다도 애정이 요구되었고 정성이 필요했소. 그것 없이 그 녀성은 정말 소생하지 못하고... 이것외에 내가 바란것이란 아무것도 없소. 나의 이 마음은 그가 허창규동무 부인이 아니고 다른 평범한 로동자이든 농민이든 조금도 다를수 없소. 나는 오직 우리 인민모두에게 조건부 없는 헌신과 배려할 의무만을 지니고있을따름이요.》

마치 깊고깊은 물속에 큰돌을 던졌을 때처럼 웅글게 울리는 그이의 절절한 말씀은 현성민의 심장을 뜨겁게 적셔주며 세찬 파도마냥 끓어번지게 하였다.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사람은 정에 녹는다는 옛속담 한구절이 피곳 떠올랐다. 사실 현성민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혁명전사로서의 의무감에서만이 아니라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고매한 인품에 매혹되어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일해오는 일꾼중의 한사람이였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그이의 고결한 인품과 덕망은 너무도 넓고 깊은것이여서 그것을 한순간에 다 받아안기엔 자기의 가슴이 너무도 작고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줄장부같은 자신을 아득한 거리감속에서 절감하였다.

참으로 그이께서 허창규와 그의 부인에게 기울으신 사랑과 배려는 불행에 처한 한 인간과 가정에 베푸신 단순한 의리심이 아니라 우리 인민모두에게 기울이시는 사랑의 총체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느라니 현성민은 갑자기 마음이 넓어지면서 그 어떤 인생의 높은 령마루우에 올라서서 만물을 비쳐주며 두둥실 떠오르는 커다란 불덩어리를 맞이하는것 같은 환희를 느끼였다. 그것은 위대한 인간이 지닌 위대한 심장의 불덩어리였다. 그 뜨거운 심장은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심장과 뇌수에 더운 피를 뿜어주며 영생의 활력을 끊임 없이 부어주고있는것이다.

현성민은 저도 모르게 두볼을 적시며 주르르 흘러내리는 더운 물을 손등으로 훑치였다. 그는 지금 자기가 행복에 울고있다는것을 의식하지 못한채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치고있었다.

(참으로 그이의 신념과 의지속에 충충 고여 넘쳐나는 사랑의 샘줄기는 영원히 마를줄 모르고 변함없이 솟구쳐흐르는 영생의 샘줄기가 아닌가!)

《현동무, 우오?》

《예.》

《매가 몹시 아픈모양이지?》

김정일 동지께서는 현성민의 넓은 어깨우에 다
정히 손을 얹으시었다.

《그래 …서가 아…아닙니다.》

현성민은 계속 흐느끼고있었다.

《그만하오. 깨달았으면 됐소.》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현성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시며 애정이 담긴 부드러운 눈길로

회오와 가책 그리고 기쁨으로 몸부림치는 그의 상
기된 얼굴을 조용히 어루만지시었다.

《어서 약재를 갖다주고 오우. 내 동무가 올 때까
지 기다리겠소.》

그이께서는 만면에 너그러운 미소를 그리시며
현성민의 잔등을 힘껏 떠밀어주시었다.

따스한 숫눈길

윤승흠

서리꽃 하얗게 피어난 이른아침
출근길에 나서니
숫눈우에 찍힌 첫 발자국
낮이 익구나
성큼성큼 앞서간 큰 발자국

길을 걸어도
씨엉씨엉 걷는 사람
《붉은기》호 기관차를 못고 떠나보내며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는 그 일숨씨
새로 무어낸 중량화차를 닦아
발자국 이리도 무게있는것인가

3 차 7 개년의 첫해과업을
넘쳐해낸 그 기세로
난관이 막아서면 뚫고나가라고
등을 떠밀어주던 그 손길인듯
곧추 뻗어간 발자국 발자국…

이 발자국따라 걸으면
혼자 아니 걷는듯
마음은 즐거워지고
그 누구와 살뜰한 이야기
자꾸만 속삭이고싶어

정답구나
흰눈도 손에 쥐면
햇숨처럼 포근할듯
찬바람도 나에겐
오히려 따스해

아마도 지금쯤

출근길에 누구나 환히 볼수 있도록
힘있는 전투속보도 내다세우겠지
혁신자축하모임도 마련하고있을
이런 날에사
하루 계획 두뎀은 문제없지

보기만 해도
정이 드는 발자국
다른 사람의 발자국은 잘 몰라도
우리 공장 당비서의 듬직한 발자국은
아무렴, 내사 잘 알지
단조공 내 발자국과 다름없는…

아마도 지금쯤
언제나 마주잡으면 정이 들던 그 손으로
공장정문을 활짝 열어놓을걸세
혁신의 불바람 한껏 안아들이며
우리네 로동자들 활개치며 들어가라고

어허 좋구나 이런 발자국
나보다 앞서 길을 열어주며
다정히 이끌어주기에
기쁨이 샘솟고 웃음이 벅그는
따스한 숫눈길

인민경제의 선행관
두줄기의 철길우를 달리는 기관차처럼
대오의 기발을 들고 앞서걷는 당일군
미더운 그 모습 눈앞에 그리며
불꽃 튀는 일터로 가는
아, 따스한 숫눈길

위대한 지도자의 탁월한 령도품모에 대한 빛나는 예술적 화폭

-서사시 《불타는 해》에 대하여-

리동수

1

작품의 성과여부는 창작에 들어서기 이전부터 마련되기 시작한다. 다시말하여 창작가가 자기 작품을 준비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대와 정황을 선택하고 소재를 마련하며 거기에 심을 의의있는 사상을 마련하기 위해 피타는 노력과 열정을 쏟아붓는 때로부터 담보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실제로 작품의 사상에 예술적 높이와 풍격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어떤 대상을 취급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작가가 자기 창작의 목적과 의도를 어떻게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데 많이 좌우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서사시 《불타는 해》의 소재와 작가의 창작의도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충성으로 받드시여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비쌍히 빠른 속도로 전진시켜나가는 우리 시대의 걸출한 지도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품모와 빛나는 령도업적을 높이 칭송하려 하였다.

이러한 창작목적으로부터 작가는 전진하는 우리의 력사우에 새로운 비약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위대한 령도의 해, 우리 인민의 뜨거운 충성심이 최상의 높이에서 발양된 불타는 해의 《70 일전투》를 취급하고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시위한 1974 년의 《70 일전투》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성과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인간적 품모를 온 세상에 파시한 뜻깊은 사변이었다.

작가는 이 력사의 단면을 깊이 파고들어가 위대한 지도자의 탁월한 령도업적이 집중적으로 구현되어있는 이 소재에 가장 의의있고 전형적인 생활이 표현되어있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에서 《70 일전투》가 마련되던무렵은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6 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가 힘차게 벌어지고있던 보람찬 시기였으며 한편 방대한

혁명과업앞에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고있던 긴장하고 어려운 시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조성된 사태를 깊이 통찰하시고 1974 년 2 월 당중앙위원회 제 5 기 제 8 차전원회의를 여시여 사회주의대건설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어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다음해까지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고 그다음부터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향하여 총진군하여야 하겠습니다.》

1974 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것은 나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끊임없는 앙양으로 끌어올리며 근로자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전망을 안겨주기 위한 의의있고 보람찬 전투였다.

그러나 설비와 자재, 노력을 비롯하여 나라의 안팎에 조성된 어렵고 복잡한 정세로 하여 그 수행 전망이 담보되기 어려울만큼 매우 긴장되어있었다. 어떤 어려운 조건에 부딪친다 하더라도 계획은 무조건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방도는 나르지 않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아버지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한 길에 그이의 전사된 도리와 숭고한 의무를 다하는 길이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신 석상에서 몸소 당에서 그 난국을 열어나가겠다고 아버지수령님께 말씀하시였다.

작품에서는 강태하지배인이 사업하는 어느 한 제철련합기업소를 무대로 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경제건설의 이 어려운 난국을 승리적으로 헤치시고 비약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신 탁월한 령도의 산 모범을 참신한 형상속에 집약화하고있다.

시인의 의도는 작품에 펼쳐진 사상의 핵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서사시 《불타는 해》는 8 개장으로 구성된 화폭의 갈피마다에서 지도자와 인민, 지도와 대중에 관

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감동깊은 화폭으로 표현하고있다.

시인은 이 시의 마감장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그 크나큰 사랑속에서
그 넓고넓은 품속에서
수많은 로력영웅들이 온 나라에
하늘의 별바다같이 태어났어라
《70 일전투》!
이 자랑찬 영광의 전투속에서
인민들은 심장도 커지고 담도 커지고
세계를 놀래운 기적의 창조자로 자라났어라
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인민을 영웅으로 키우시였어라!
정녕 위대한 심장이 위대한 인민을 낳았도다!
위대한 심장이 위대한 역사를 낳았도다!

서사시는 위대한 지도자의 탁월한 령도풍모와 그이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 속에 성장한 강대하지배인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지도자가 위대한 인민, 위대한 역사를 낳는다는 심오한 종자를 밝히고있다.

인민대중은 온갖 재부를 창조하여 자연을 지배하고 사회를 전진시키는 력사의 주체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그 힘과 지혜는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것이 아니며 또 저절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와 지도를 받을 때야만 비로소 실현되게 된다.

지도를 받지 못한 대중의 힘은 무력하며 그들의 존재는 보잘것 없는것이다.

서사시는 바로 위대한 심장을 지닌 위대한 지도자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난국의 돌파구가 열려질수 있었으며 그이의 령도밑에 인민은 투쟁속에 영웅으로 자라 크나큰 심장을 지닌 위대한 인민으로 성장할수 있었다는 진리를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작품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과 탁월한 령도풍모를 정면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 첫 서사시로서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는것이다.

지난 시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형상한 작품들은 많은 경우 인민의 친근한 어버이로서의 고매한 덕성을 형상하는데 치우침으로써 그이의 위대한 풍모의 전모를 포괄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있었다.

서사시 《불타는 해》는 바로 이러한 일면성을 극복하고 사상의 영재로서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 빛나는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 강철의 의지와 거대한 담력으로 모든 일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일판을 벌려나가는 탁월한 령도에술을 보여주는데 력점을 찍고있다.

이런점에서 서사시는 종래의 작품들보다 한결음 전진하고있다.

서사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에 한몸 바치시며 어려운 난국을 진두에서 헤쳐나가는 숭고한 모습을 통하여 수령님에 대한 한없이 순결한 충성심의 산모범으로 일군들을 키워나가시면서 크나큰 신임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고매한 풍모를 감동깊은 화폭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이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형상과제로부터 서사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화폭의 중심에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위대한 풍모를 전면적으로 폭넓게 형상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서사시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사회주의대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통이 크게 구상하시고 《70 일전투》의 불길을 온 나라에 지펴나가는 눈부신 활동을 통하여 그이의 위대한 풍모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시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몸소 대중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여시고 내외의 복잡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적 난국을 타개해나가실 방책을 심중히 의논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6 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여 세계가 식량, 연료 위기에 직면하여 아우성을치고있는 때에 우리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시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기된 실패자료를 보면 일군들이 일시적 난관과 조건을 앞세우면서 일부계획을 조절해달라고 하고있는데 과연 이러한 때 사회주의대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겠는가, 일군들에게 누가 일어나 말해보라고 안타까이 호소하신다.

허나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하다.

수령님께서서는 정치위원들의 의견을 물으시고 책임일군들의 실패자료도 주의깊게 들으시며 대답을 기다리신다. 허나 누구도 감히 엄숙한 공기를 깨뜨리고 대책안을 내놓는 사람이 없다.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강대하지배인을 부르시여 물으신다. 허나 그는 죄스럽고 면구한 마음으로 아직 방도를 찾지 못했다고 대답올린다.

순간 가장 마음 애타하신분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였다.

납덩이같이 드리운 침묵의 바다를 지켜보시는 그이의 심중의 세계를 섬세하게 헤쳐보이면서 시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따뜻한 사랑과 애무

깊은 자애와련민의 마음속에서도

그이께선 깊은 사색의 심연을

끝없이 헤치고계시여라

예지의 빛발은 침묵의 바다를 가르고

소리없는 번개같이 날고있어라

투쟁의 활력이 격동하는 이 해에

뜻하지 않게 드리운 이 침묵-

일군들의 머리속에 깃든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이께선 느끼시여라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 범상치 않은 침묵-
이것은 일군들의 나약한 한숨!
이것은 조건타발 혁명의 금물!

그이의 안색에는 심중한 빛...
이 순간 그이께선 듣고계시여라
혁명의 준엄한 속삭임을
끊임없이 더 높은령마루에로 부르는
조국의 엄숙한 목소리를
...
침묵에 잠긴 장래를
말없이 굽어보시던 그이
흐르는 이 무거운 침묵을 멈춰세우시려는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
긴장된 일순간-
마치도 폭풍전야의 숲속인양
장내는 더욱 조용한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한결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여라 겸허하게
《당에서 한번 말아서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 나직이 울리었으나
지심을 흔드는듯
삽시에 넘치는 활기
일어번지는 흥분과 환희의 물결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벌써 심상치 않은 이 침묵 속에서 일군들의 머리속에 나약성과 보수주의, 조건타발 등과 같은 낡은 사상이 지배하고있다는 것과 혁명이 용납할수 없는 이 금물이 바로 전진을 가로막는 기본요인임을 간파하시고 사상전의 포화로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비약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시는것이다.

세인을 경탄시킨 《70 일전투》의 장엄한 서곡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이께서는 자재와 자금을 믿고 《70 일전투》를 벌리신것이 아니라 대중의 불타는 심장을 믿고 거기에서 비약의 예비, 전진의 열쇠를 찾으신데 기초하시여 이 전투의 봉화를 지피신것이다.

그리고 바로 혁명의 원리와 방법론으로 일군들을 깨우치시고 이끌어나가시였다.

그이의 사상의 위대성과 특출한 령도의 모범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투철한 판단력, 강철의 의지와 거대한 담력으로 통이 크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일판을 크게 벌려나가시면서 《70 일전투》를 현지

에서 몸소 진두지휘하시는 승고한 모습에서 부각되고있다.

서사시는 친히 강태하지배인이 사업하는 제철련합기업소현지에 나오시여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방도를 찾았다고 만족해하는 지배인의 보고를 들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렇게 강도나 뚫고
오물조물해선
일을 내밀지 못합니다
우리가 <70 일전투>만 하고 말겠습니까
이 대도로와 고압철탑들을 통채로 들어서
저산너머에 옮겨놓읍시다.
이 큰길에 대발파를 들이댁시다
그러면 광산의 전망이
환히 열리지 않겠습니까.》
...

아 그 심원한 사색
그 위대한 심장
강토를 한손에 거머쥐시고
통이 크게 변혁해나가시는
그 거대한 담력

그 크나큰 심장으로
우리가 숨쉬고 약동하는듯
강산도 모습을 바꾸며
금시 새로이 태어나는듯...

그이께서는 일군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담력을 키워주시며 돌파구를 열어나갈 방도를 밝혀주시는 한편 채취공업과 수송, 수출 등 세 전선에 《70 일전투》의 주공을 설정하고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도록 이끌어주신다.

그이의 사상전의 방침에 따라 경제선동의 힘찬 북소리가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지핀다.

실로 사상의 영재,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련된 지도밑에 《70 일전투》의 불길은 온 나라를 뒤덮고 사회주의대건설은 위대한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서사시는 또한 당중앙청사의 집무실에서 밤과 낮을 이으시며 온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능숙하게 처리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분초를 다투는 긴급문건들과 해명을 기다리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그이앞에 덧쌓인다. 말그대로 그이의 집무탁우엔 온 나라가 얹혀있다.

그이께선 어느 한 기계공장을 찾으시여 기증기 생산을 알아보시고 먼 산촌의 군당을 찾으시여 아이들에게 입힐 솜옷문제를 심려하신다.

정무원의 한 일군을 부르시여 손수 예비도 찾아주시고 중앙전투지휘부를 찾으시여 수송혁명을 다그칠 방도도 일깨워주신다.

끝없이 이어지는 수많은 지시와 명석한 결론으로 그이께서 온 나라에 넋을 주고 지혜를 주고 힘과 용기를 주신다.

그이앞에선 어떤 사나운 폭풍도 겁을 먹고 어떤 험한 장벽도 길을 연다.

서사시는 온 나라 인민들을 요람속에 잠재우시고 홀로 밤을 밝히시며 제철련합기업소 사업정형을 료해하시던 그이께서 위성찬과 함께 새로 나온 노래 한곡을 감상하시는 장면과 눈갈기를 날리시며 백마를 달리시어 신비로운 눈의 장막을 헤쳐나가시면서 어머님께서 백두의 산밭에 비껴드셨던 권총을 목표판에 겨누신채 사색의 문을 여시여 본위주의 낡은 사상과 결별할 긴급전화회의를 열어야겠다고 선언하시는 빛나는 화폭들을 통하여 심원한 사색과 열정과 호방한 기상을 지니시고 패기와 정열에 넘쳐 쉬임없는 령도의 나날을 이어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매한 풍모를 인상깊게 펼쳐보여준다.

서사시는 또한 숭고한 충성심의 산 모범으로 전사들을 이끌어주시고 그들을 뜨거운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어 지혜와 믿음과 한량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한없이 고매한 덕성을 생동한 생활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종파들의 책동에 의하여 수령님께 충성을 다해오던 강태하지배인이 관리국장자리에서 해임되어 이사진을 싸고있는 사실을 뒤늦게야 아시고 급히 찾아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참대나무화분에 기든 일화와 동물원의 잠든 사자에 비겨 자신을 돌이키게 하시는 뜻깊은 사연에 대한 회상등은 식어가는 전사의 가슴속에 숭고한 충성심과 열정의 넋을 키우고 힘과 지혜와 은정을 부어주는 위대한 사랑으로 수놓아진 화폭들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제철소 로동계급들이 로를 멈추지 않고 종대보호가라키를 교체하기 위한 전투를 벌려 용광로를 살려낸 기적적인 사변을 높이 치하하시면서 이 전투에서 위급한 지경에 처한 립성진작업반장을 사경에서 구원해주시는 한편 자신을 공화국영웅으로 높이 모시려는 인민들의 절절한 청원마저 거절하시고 그대신 립성진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안겨주도록 크나큰 영광을 베풀어주신다.

그리고 최명일기사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주시는 겸허하신 풍모를 보여주면서 그의 아들의 순결한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시어 그를 화선입당시키도록 크나큰 신임과 은정을 부어주신다.

실로 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그이의 사랑이야말로 그 폭과 깊이를 헤아릴수 없을만큼 뜨겁고 열렬한것이였다.

이렇듯 서사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매한 풍모를 다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면서 위대한 지도자의 숭고한 풍모를 최상의 수준에서 감명깊게 보여주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서사시는 위대한 지도자와 전사와의 관계를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통일된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 관계로 묘사하면서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들과 교락을 나누시며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나가는 인민의 참된 총복, 위대한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그이의 숭고한 형상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고있다.

서사시는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형상을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위대한 인간의 평범한 모습으로 의의있게 재현함으로써 형상에서 격식과 틀을 마스고 친근감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2

서사시 《불타는 해》가 보여준 일련의 형상적 특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작품의 사상예술적 성과를 담보하고있다.

서사시는 무엇보다먼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성장하는 전사들의 불타는 충성심을 생동하게 재현함으로써 하나의 생명체로 이루어진 수령, 당, 대중사이의 단결의 위력과 혁명적 의리로 수놓아진 숭고한 세계를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이기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사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정치적 생명을 받아안고 끝없는 행복과 영광을 누리는 강태하, 립성진을 비롯한 제철소 로동계급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당과 수령을 변함없이 받들어나가는 순결한 세계를 통하여 하나의 정치적 생명체로 이어진 혁명적 의리와 뜨거운 동지애의 관계를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제철련합기업소 지배인 강태하와 작업반장 립성진, 립창범아바이와 최명일기사, 지배인의 딸이며 성진의 애인인 옥주와 같은 인물들은 다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서 숭고한 충성심을 키우며 자라나는 그이의 참된 전사들이다.

특히 강태하지배인과 립성진반장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각별한 인연관계를 맺고있는 충직한 전사의 전형들로 형상되고있다.

작품에서 이들의 형상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매한 풍모를 폭넓고 깊이있게 돈구어주는 인물들로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을뿐아니라 지도자와 전사들사이의 의리와 신념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강태하는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이 고매한 풍모를 몸가까이 체현해나가는 과정에 전사의 참된 본분과 도리를 다해나가는 인물로 형상되고있을뿐아니라 위대한 지도자의 숭고한 풍모와 믿음과 사랑을 뜨겁게 받아안은 계기마다에서 강한 충격속에 위대한 지도자를 모시고 살며 일하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체득하면서 성장해나가는 인물로 그려지고있다.

서사시는 《70 일전투》를 몸소 지휘하시며 현지에 나오시여 막혔던 고리를 순간에 풀어주시며 《70 일전투》를 앞장에서 몸소 지휘하시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그이를 높이 우러르는 강태하의 체험세계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그이결에 선 강태하
 벽찬 가슴 억제할길 없어라
 당중앙위원회의 집무실을
 광산의 언덕우에 옮겨놓으시는듯
 몸소 진군의 돌과구를 열어나가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 **김정일**동지!
 《아, 내가 어떤분을 모시였는가!》

하늘도 휘영청 더 넓어진듯
 가슴도 툭 튀어 더 넓어진듯
 온몸엔 쟁쟁히 젊은 피 뛰고
 얼굴의 주름살도 활짝 퍼질듯
 숨차도록 들끓는 환희, 솟구치는 용맹
 천만봉우리를 한손에 움켜쥐고
 무지무지 보화를 하늘가득 쌓아놓을듯
 강태하는 황홀하니 그이를 우러리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라
 《아, 내가 어떤분을 모시였는가!》

서사시는 위대한 지도자를 모신 한없는 영광과 자부심을 심장으로 체득해나가는 충격적인 계기들과 강태하의 심리체험과정을 그이의 위대한 풍모를 부각시키며 자신의 성장과정을 촉진시키는 계기들과 일치시켜나가면서 동시에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기대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한 헌신적 투쟁과정을 통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순결한 충성심과 변함없는 의리를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여주고 있다.

특히 립성진과 옥주, 최명일기사에게 돌려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은정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한 그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 오직 한몸을 혁명에 바쳐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청춘과 사랑과 영예를 보람찬 창조의 력사우에 새겨나가는 위훈의 세계를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서사시는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과 빛나는 령도업적의 한 단면을 포착하여 깊이있게 파고들어가 폭을 넓혀 형상하고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작품은 하나를 통하여 열백을 보여줄데 대한 당의 독창적인 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사건을 라렬하거나 제시한것과 같은 단조로운 평면적 구성에서 벗어나 위대한 지도자의 고매한 풍모를 세부적으로 파고들어가 다면적으로 품위있게 형상하고있을뿐 아니라 사건과 정황, 인물들의 행동 등에 심각한 의의를 부여하면서 그들이 체험하는 내면세계를 깊이

있게 추구하여나감으로써 형상의 폭과 심도를 보장하고있다.

서사시는 《70 일전투》의 개시와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간단한 이야기줄거리로 되고있으나 강태하의 운명선을 주선으로 립성찬의 생활선, 최명일기사의 운명선, 강태하와 립창범아바이사이의 인연관계, 립성진과 옥주와의 사랑선 등을 자연스럽게 교차시키면서 구성을 립체화하고있으며 강태하의 운명선상에 있었던 우여곡절과 거기에 깃든 크나큰 은정에 대한 이야기, 의식을 잃고 침대에 누운 립성진을 소생시켜주시면서 그와의 인연관계를 회상하여주시는 감동적인 장면 등을 설정함으로써 줄거리의 단조성을 극복하고 변화롭고 굴곡있게 재현할수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형상의 폭을 넓히고 그 깊이를 담보할수 있게 하였다.

특히 눈갈기를 날리시며 백마를 타고 달리시면서 사색의 과녁을 목표판에 겨누시는 장면을 비롯하여 참대나무화분과 동물원의 잠든 사자를 보여주는 세부형상 등은 서사시의 품격을 특색있게 돋구어주는 빛나는 화폭들이다.

함박눈 퍼붓는 이른새벽 눈발이 날리는 아슬한 산허리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백마우에 몸을 굽히시고 비호같이 달리신다. 산정사격장앞에서 길길이 뛰는 사나운 말을 달래시며 백마를 세우신 그이께서는 권총을 곧추 드시여 목표판을 겨냥하신다.

잠시 산정은 교묘한 정적속에 묻히고 총구는 목표를 향해 열려있는데 웬일인가 총성은 울리지 않는다.

순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백마우에 몸을 돌리시더니
 우렁우렁 말쑥하시여라
 《이제는 사상전의 예봉을
 본위주의 요령주의에 돌려야겠소.
 그것이 지금 <70 일전투>의
 전진을 가로막고있소
 전국에 전화회의를 여시오
 이런 낡은 사상과 결별할 때가 왔소!》

요란한 총성이 울렸다
 하늘을 부시는듯 산을 깨치는듯
 연거퍼 총성이 울렸다. 우뢰같은 총성이
 산정에 내려치는 령장의 기상
 천리를 내달을듯
 백마우에 높이 앉으신
 청년장군의 기개여
 어느사이 눈이 멎었는가
 노을이 피어난다 장쾌하게
 흰눈세계에 불길같이 서리는
 노을의 붉은 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백마우에 말고삐를 거머쥐시고
 붉게 물든 절벽우에서
 동녘하늘을 바라보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여라
 《이제는 피곤도 줄음도
 다 달아났소
 자 내려갑시다!》
 말발굽소리 울린다
 누리를 흔들며 울려 퍼진다

그이께서 백마를 타시고 겨울날의 새벽공기를
 헤치신것은 단순히 줄음을 물기 위해 위성찬과 동
 행한 산책이 아니었다.

하루의 한초 한시각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며
 모든 사색과 탐구와 열정을 혁명에 바쳐나가는
 그이의 눈부신 활동이 이 아침 또다시 비약과 전진
 을 불러올 귀중한 한순간을 그렇듯 빛나게 장식하
 였던것이다.

서사시는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도 순간순간을
 뜻깊은 사색으로 이어가시며 위대한 전환을 불러올
 력사적인 사변들을 마련해나가는 그이의 정력적
 인 활동을 집약적으로 품위있게 보여주고있으며 예
 리한 판단력과 결단성을 지니시고 열정과 기백에
 넘치시여 모든 일을 참신하고 쾌기있게 벌려나가는
 청년장군다운 호방한 기개를 인상깊게 보여주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
 이 지적하시였다.

**《본질적이며 특징적인 생활세부들을 골라잡고
 깊이있게 그려내는데 형상을 간결하고 명백하게
 창조하는 비결이 있으며 성격을 인상깊게 특징지
 으며 생활을 의의있게 보여주는 열쇠가 있다.》**

생활세부는 그것이 전형적인것으로 되면서도
 작은것을 통해서 큰것을 보여줄수 있도록 집약화되
 고 립체화되어야 하며 감동깊고 인상적인것으로 되
 여야 한다.

그것이 인물의 성격을 부각시키거나 줄거리발
 전에 보탬으로 되는 의의있는 세부로 되지 못하고
 다만 흥미본위적이거나 세부를 위한 세부로 되어서
 는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서사시에 설정된 세부들은 적
 중하게 리용되고있으며 따라서 생활을 깊이 파고들
 어가 형상의 폭을 넓히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되고
 있다.

서사시는 또한 일정한 사건론리를 타고나가면
 서 간결하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전개시키고있을뿐
 아니라 그것을 풍만한 서정과 통일시켜 재현하고있
 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서사적인것과 서정적인것의 유기적인 결합, 이
 것은 서사시의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오는 본성적요
 구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사시는 본질에 있어서 장편적
 인 서정서사시로 되여야 한다.

서사시는 완결된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고 서사
 적인 화폭속에서 인물들의 성격을 개성적으로 제시
 해야 하지만 이 모든 형상과제는 엄격히 서정적인
 것에 안받침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에만 시적감
 흥과 충격을 불러일으킬수 있게 된다.

서사시에서의 서정성은 주로 시인의 양양된 서
 정토로, 시적 표현과 묘사 그리고 정서적으로 채색
 된 운률 등에 의하여 실현되지만 시적 형상의 모든
 요소와 고리 등이 서정적 계기를 안고있어야 하며
 또 그 모든 형상적 고리들이 사건줄거리발전에 통
 일적으로 맞물리고 유착되어야 한다. 시인의 재능
 과 기교는 바로 이런 서정적 계기들을 어떻게 서사
 적인 요소들과 하나로 통일시키고 결합시키는가 하
 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서사시 《불타는 해》에서 우리는 서사적인 내
 용을 시적으로 소화시켜 서정서사적 특성을 훌륭히
 살려내기 위하여 시인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탐구
 해낸 흔적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자재와 수자를 보기
 전에 먼저 대중의 심장을 볼줄 알아야 한다고 깨우
 치신 참뜻을 가슴깊이 새기는 강태하의 체험세계
 를 두고 시인은 이렇게 토로한다.

...
 아, 심장!
 그속엔 피가 아니라
 불이 담겨있음을!

...
 심장! 대중의 심장!
 바로 그속에
 절벽도 무너버릴 격랑이 있고
 하늘을 태우는 화산이 있지 않느냐
 바로 그속에 억만의 보화가 있고
 무진장한 예비가 있지 않느냐

가슴속에 품고있다고
 심장을 지닌것이 아니여라
 심장의 불!
 그 불을 보지 못하면
 심장이 없는 사람
 ...

이렇듯 시인의 주정토로는 사실의 전달이나 확
 인으로 그치는 이야기를 서정적으로 승화시켜 감성
 적으로 느끼게 하고 시적 환상과 사색의 도움으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어 격동과 충격을 불러일으키
 면서 시적으로 둔구어주는 정서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정서적 계기와 정황이 성숙되지 않은 상
 태에서 《아! 오!》하고 구태의연한 본색으로 분별없
 이 주정을 토로시켜서는 안된다.

서사시 《불타는 해》에서는 주정토로가 사건발전의 계기와 주어진 정황들이 시인의 양양된 서정적 호소를 절절히 동반하도록 충분한 정서적 전제를 성숙시킨 조건에서 주어지게 함으로써 서정성과 서사성을 자연스럽게 밀착시켜나가고있다.

서사시의 3장 화불장면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담력을 보여주는 장면, 4장 림성진과 옥주사이의 순결한 사랑으로 이어진 동지관계를 보여주는 장면, 5장 당중앙의 꺼지지 않는 불빛을 보여주는 장면과 그이께서 첫새벽을 맞으시는 장면 등에 주어진 서정토로 등이 바로 그러하다.

이밖에도 서사시는 깊은 뜻을 안고있는 상징적인 표현들과 비유 과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수사학적인 묘사수법들을 널리 적중하게 리용하고있을뿐 아니라 《70 일전투》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는 장엄한 양상적 특성에 맞게 장중하면서도 기백있고

약동적인 운률로 시적 정서를 충만시킴으로써 비교적 서사시적 풍격을 원만히 갖춘 성과작으로 완성될수 있었다.

서사시 《불타는 해》는 현시기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켜나아가야 할 절박한 시기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서사시로 세상에 나온 의의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가문학이 개척해나아가야 할 진로에서 아직은 미숙한 성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과 그이의 탁월한 령도업적, 고매한 공산주의적 품모를 최상의 수준에서 다면적으로 형상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계속 즐기차게 밀고나가야 할것이다.

서로 아끼는 그 마음 있어

방만필

깊은 밤 창가에 눈발이 날리면
초소의 병사들 생각에
따끈한 아래목은 비어놓고싶고

소금꽃 핀 군복입고
행군하는 병사를 볼 때면
시원한 샘물 떠안고
천리인들 따라서는 마음이
인민의 마음이라

엎드린 전호턱에 햇잔디 돌을 때면
마음은 향시
파란 애기모 살랑이는 논벌이 그림고

때늦은 찬서리 귀밑머리 스칠 때면
더운 가슴 다 덮어 어린 모 지키고픈
병사의 마음이라

아기의 재롱이
노을속에 고운 아침이면

이 행복 지켜 간밤도 지새운
병사들에게로 인민의 마음 달리고

눈내린 산정길 오르는 새벽이면
군복깃 혼솔마다 습배여있는
인민의 따뜻한 손길 온몸에 느끼며
병사들 마음 인민에게로 이어지고

아, 서로 이어지는 그 마음 있어
인민과 병사
그 이름도 하나로 이어져
인민군대라 부르거니

가꾸는 땅도
한마음이 옥토되어
만풍년 이룩되교
지키는 땅도
한마음이 방패되어
철벽이라

삶은 어디서 빛나는가

문상봉

이 땅에 포성이 울부짖던 전화의 날이었다.

어느 산기슭에 자리잡은 학원창가에서는 전쟁의 온갖 소음을 짓누르며 흥분되고 열띤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지도하에 단편소설 《불타는 섬》에 대한 문학소조원들의 감상토론이 한창 고조에 이르렀던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토론은 더욱 활발해지고 열렬한 감정으로 번져갔다. 그만큼 소설은 조국과 인간의 운명을 두고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심각한 문체점을 안고있었다.

그때 한 문학소조원은 중대전원이 장렬히 희생된데 대하여 매우 섭섭해하면서 왜 작가가 등장인물을 다 죽이였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학생은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어린 무전수처녀 한명만이라도 살렸으면 좋았을것이라고 동감을 표시하였다.

토론을 주의깊게 들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동무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창가로 다가서시였다. 그이의 근엄하신 안광은 타래치는 불구름속을 뚫고 멀리 남쪽을 향하고있었다.

이윽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학소조원들에게 작품에 나오는 월미도의 해안포중대원들은 모두 희생되었지만 그들의 넋은 죽지 않았다고, 그들의 넋은 조국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다고 하시며 바로 여기에 이 소설의 핵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되새기는 문화소조원들의 얼굴은 어느덧 숙연한 표정으로 변하였다. 어째선지 그 영웅전사들이 성스런 모습으로 가슴마다에 안겨오며 죽은 사람들로 생각되지 않았다.

(장렬한 최후를 마친 그들이 어째서 살아있다고 느껴질까? ...)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원인은 월미도 용사들은 비록 희생되었으나 조국과 함께 그들의 삶은 영생하기때문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고는 애국적인 작가의 높은 정신세계와 창작적 재능에 의해서 작품이 더욱 감명깊게 인식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가르치심이였다.

잊지 못할 그날의 작품토론회에서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깊은 말씀은 수십년 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 창작가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문학을 새로운 경지로 이끄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던 그 시절에 높이 평가하시고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신 작가 황건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70 고향으로 새로운 중편소설창작에서 성과를 올리고있다는 그를 찾아 취재의 길에 올랐다.

조국과 작가의 인생

한송이, 또 한송이...

햇숨같은 첫눈이 복받은 대지에 내려덮이기 시작했다. 바람 한점 없이 푸근한 날씨에 때맞춰서 오는 풍년눈이다.

하건만 로작가가 살고있는 개선거리를 가까이 할수록 우리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안에 가까운 그 무엇이 밀려들고있었다.

창작과 사색에 치명적이라고 하는 《뇌혈전증》을 심하게 앓은 그와 장시간 이야기를 나눌수 있을까? 근래의 번덕심한 날씨로 하여 건강이 더 악화되지나 않았는지?...

이런 위구심은 공연한것이였다.

우리가 차에서 내리니 작가 황건은 방금 현관문을 나서고있었다. 운동복우에 로인용 자켓트를 걸친것으로 보아 오늘도 운동일과를 어김없이 지키려는 모양이다.

인사가 끝난후 우리는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했다. 로작가는 우선우선한 얼굴로 잠깐 생각하더니 빙그레 웃었다.

《눈오는 자연의 정서속에 몸을 푹 잠그어보려던 참인데 마침 잘 오셨습니다. 함께 거닐면서 이야길 나누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의 운동일과에 방해되지 않는다면야...》

《산보나 같은건데요. 오히려 인상적일겁니다.》 하고 그는 먼저 발자국을 떼었다.

어느덧 길가며 웅기중기한 둔덕의 나무아지들에는 정갈한 눈꽃들이 소담하게 피어나기 시작했다.

모란봉기슭의 수려한 송림에 들어서자 로작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눈덮인 포석길에는 그의 큼직한 발자욱만이 또렷하게 새겨지고있었다.

《조국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찌될뻔했는지 아십니까?》

로작가는 눈속에서 그 모습 더욱 웅장하게 안겨오는 개선문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가 문학에 뜻을 품었던 그 시기는 참으로 암담한 시절이었다. 일제침략자들은 온 삼천리강토를 노예의 쇄사로 칭칭 묶어놓고 민족의 넋을 사정없이 란도질하고있었다.

신문, 잡지들에서는 우리 활자가 종적을 감추었고 아이들까지도 조선말을 하면 가혹하게 형벌을 받았다.

《나는 우리 글로 된 발표할수 없는 원고몬테기를 들고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먹장구름뿐이고 앞에는 숨막히는 절벽이었지요.

희망을 잃어버린 나는 붓대를 꺾어던지고 고향산골에 돌아가 목부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가 한창 끓던 20대에 은둔을 한다는것은 처량하기 그지없는 일이지요. 참 그때를 생각하면...》

열네살부터 모진 세파에 이국땅까지 떠밀리워 가구점직공으로, 신문배달로, 식당급사로 고역을 치르면서 어떻게나 문학을 해보려던 그 소망도 나라없는 식민지청년에게 한갓 꿈에 지나지 않았다.

왜놈의 세월에서 작가 황건의 운명은 허천강 기슭의 초야에 묻힌 티끌로밖에 달리는 뭇수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을 해방하고 평양에 개설했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들려오자 나는 한달음에 평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격동된 사실이 나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 글마저 빼앗긴 설움을 안고 각지에 흩어졌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북조선예술총련맹을 무어주시고 새 조국 건설을 위한 문화전선의 투사로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작가의 가슴속에서 기름없는 등잔불처럼 사라졌던 문학에 대한 열망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소생의 기쁨, 새조선의 힘찬 목소리가 그대로 열정이 되고 힘이 되어 밤을 새워가며 글을 썼다.

《그 충격적인 심정을 담은 작품이 〈문학예술〉 잡지(조선문학의 전신임) 1948년 1호에 실린 〈산곡〉 이였겠습니까. 이야길 듣고보니 단편소설

〈산곡〉에 나오는 하몽이라는 주인공의 생활과 당시 선생님의 생활이 신동합니다.》 하고 우리는 그의 말을 받았다.

《지금 보면 낮이 뜨거울 정도로 미숙한것이지만 우리 활자로 찍힌 자기의 첫 작품을 받아보던 그 기쁨이란!...

그때부터 나의 앞에는 문학의 길이 활짝 열렸지요. 나는 겁나거나 부러운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나의 삶을 빛내이고 시대와 조국 앞에 지닌 자신의 의무를 다하겠는가.

이런 간절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작가이기전에 새 조국 건설을 위한 로력전선의 투사가 되고싶었다. 하여 그는 가족과 함께 북부탄전의 로동계급속으로 들어갔다.

탄광생활 6개월만에 발표된 단편소설 《탄맥》은 작가의 이런 시대정신의 반영으로서 민주건설시기 우리 로동계급의 형상에서 문학사적인 기여를 하였다.

작가의 희망은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다. 하늘도 땅도 우리것ियो 기쁨도 미래도 우리것인 내 나라, 그 품에 안겨 사는 한없는 궁지...

그는 환희로 끓어번지는 마음을 붓에 듬뿍 적어 내어 중편소설 《행복》의 화폭을 펼쳐나갔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봄동산에 침략의 검은구름이 비껴들었다. 이 무슨 일인가. 행복이 꽃망울을 터치기도전에 찬서리를 맞아야 하는가?

그는 치를 떨었다. 다시는 노예살이를 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작가 황건은 분명히 전선으로 달려나갔다.

《...행복을 가꾸기전에 조국이 귀중함을 알아야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원쑤와 판가리하는 준엄한 결전장에서 푹푹히 깨달았지요.

조국이 없는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로작가는 흥분되어 숨소리를 높였다. 서글서글하던 두눈에서는 불이 황황 일었다. 그 불빛이 가닿은곳에 포연이 날리던 그날의 전호가 있는듯싶었다.

총탄이 귀전을 스치는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그는 바로 저 모습을 하고 《불타는 섬》의 주인공들과 끊임없이 속삭였으리라.

우리 앞에는 월미도 용사들의 숭고한 군상이 점점 더 심금을 울리며 안겨왔다.

그가 바라는것

《창작가의 보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로작가는 운동하느라 잠시 동안을 두었던 대화를 다시 이었다. 혈색이 좋아진 그의 준수한 얼굴은 십년 더 젊어진듯싶었다.

《자기의 주인공이 그를 낳은 사람은 돌아보는 일도 없이 못사람들속에 파묻혀서 그들의 친근한 벗으로, 떨어질래야 떨어질수 없는 혁명동지로 사는 그것이지요.

우리의 주인공들은 가끔 세계여행의 길에 오릅니다. 언어와 피부색같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선망과 존경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때에는 작가의 보람이 절정에 이르지요.

그러나 주인공이 생기가 없고 부실해서 사람들과 섞일리지 못하고 그를 낳은 작가의 곁으로 자꾸 돌아와 칭얼거린다면 그것처럼 민망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웃음으로 스쳐버릴수 없는 그의 해학적 인 비유를 두고 무겁게 머리를 끄덕이였다.

사실 체통만 커서 여물지 못한 작품보다 작지만 한껏 익어서 사람들의 가슴을 치며 기억에서 사라질줄 모르는 작품이 얼마나 귀중한가. 또 거기에 형상된 매혹적인 인간들이 남긴 여무진 말로 하여 후세에도 이름을 날리는 작가는 얼마나 행복한것인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고 평범한것이라 하여도 그속에 생활의 정수가 담겨져있다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큰 사상을 보여줄수 있다. 세상에는 전인류적인 문제를 들고나온다고 하면서 한 가정, 한 인간에 대해서조차 바로 말하지 못하는 <예술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 가정과 한 인간의 운명을 통하여 민족과 계급의 운명을 밝혀내며 역사의 흐름을 특징짓는 훌륭한 예술가도 있다.》

작품은 어차피 그 시기 작가의 인간장성정도의 반영이다. 왜냐하면 작품에는 그 시기 작가의 정신적 풍모가 그대로 반영되어있기때문이다.

물론 작가의 창작적 기량도 첨가된다. 그러나 기본은 인간이며 혁명가로서의 작가의 준비와 자세를 바로 가졌는가가 문제인것이다.

작가 황건은 바로 이런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장편소설 《개마고원》을 써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은 작가로 자라났다.

작가의 수양에서 결정적인 계기로 된것은 1959년에 있는 근 5개월동안의 항일혁명전적지 답사생활이었다. 이 기간에 영광스러운 20 여성상의 갈피를 다 헤쳐볼수는 없었지만 그는 하나의 거대한 혁명대학을 마친것과 같았다.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한 항일혁명투사들은 작가 황건을 매혹시켰고 그들처럼 자신을 열렬한 혁명가로 준비하기 위하여 생활의 목표를 높이 세웠던것이다.

그것은 곧 창작실천에 옮겨졌다. 그는 1930년대 후반기 조선사람들의 처지와 운명, 그들의 지향과 감정에 깊이 침투함으로써 주인공들의 영웅적 성격과 숭고한 정신세계를 감각적인 생활의 밑뿌리로부터 자라도록 꾸준히 흙을 가꾸었다.

작가의 이런 성실하고 근면한 탐구에 의해서 장편소설 《아들딸》의 첫 페이지가 시작되였다.

이것은 60년대이전의 일부 혁명전통주제 작품들에서 혁명가들을 그들이 활동한 지대의 기질과 생활과는 동본 투사일반으로 묘사하던 제한성을 깨뜨리고 주체형의 인간성격을 높은 차원에서 형상할수 있는 문학사적인 의의를 가지는 일이었다.

소설은 발표되자마자 독자들의 열렬한 찬사와 환영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헐뜯던 어중이떠중이들에게 호된 매를 안겼던것이다.

《선생님은 <불타는 섬>을 비롯하여 <개마고원>, <아들딸>, <탄맥>과 같은 성과작을 창작해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니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에게 말을 건네였다. 그러자 로작가는 수북한 장미를 쥘것했다.

《독자들로부터 과남한 칭찬을 받곤했지요. 그럴때마다 죄스러움이 더 커집니다.》

《?...》

《세상에 떳떳하게 내놓고싶은 생각이 안나는 작품을 쓴 시기를 돌이켜보면 이 시기의 나는 확실히 작가적 성실성과 노력이 부족했다는 가책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결국 나는 작가로서의 전 생애를 그렇게 지성껏 살지 못했습니다.》

로작가의 어조는 가늘게 떨렸고 얼굴은 피로움에 실그러졌다.

허나 우리는 뜨거운 그 무엇이 혈관을 타고 심장에 흘러들음을 느꼈다. 순간 순간을 이런 값높은 삶의 언덕에 자신을 세워놓고 창작의 붓을 고수였을 그의 저 흰눈처럼 깨끗한 심정을 들여다보았기때문이었다.

우리의 시야에 안겨온 로작가 황건은 시대의 정수를 체현한 인간으로서 동시대작가들과 후배들에게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었다. ...

다시 찾은 청춘

함박눈을 펄펄 쏟아붓던 재빛 구름은 도시를 포근한 이불속에 밀어넣은 다음에야 몽게몽게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칠색령룡한 햇빛이 온 누리에 부채살모양으로 펼쳐졌다. 무대의 국부조명같은 빛줄기가 이곳의 나무아지머 잎새들을 누비자 우리는 탄성을 올렸다. 송림속에 몸을 가리우고있던 한그루의 푸른 거목이 우람찬 자태를 드러내놓았던것이다.

《거 실한데 ! 》

《저 우거진 가지들을 좀 보우.》

《나이는 얼마나 됐을가?...》

싱그레 웃고있던 로작가가 화제에 점잖게 끼여들었다.

《저 락락장송두 근본은 씨앗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불모지에 묻혔더라면 어찌됐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어디에 뿌리내리고 어떻게 자랐는가가 중요한것이 아닐가요?》

역시 문단의 원로다운 분석적이고 의미깊은 말이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조용히 음미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로작가는 저 나무를 보고 의미심장한 말을 할가? 우리는 그에게 물었다.

거기에는 전설같은 뜨거운 사연이 있었다.

...현실속에서 새로운 주체형의 인간성격을 탐구하던 작가 황건은 자기 몸의 혈액순환과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긴것을 무시로 감촉했다. 그것은 작가의 사색을 방해하며 심신을 괴롭혔다. 확실히 간파할수 없는 일이었다.

당조직에서는 창작에서 당분간 손을 떼고 료양치료를 할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미 성숙된 작품에서 손을 떼는것은 작가로서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더구나 이 소설은 작가들이 당앞에 맹세한 100 편의 장중편창작과제중의 하나인것이다.

작가는 이마에 수건을 질끈 동이고 강행군을 시작했다. 하루에 30~40 매 이상의 긴장한 창작과정, 병에 시달리는속에서 이것은 보통의지와 자각으로 써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그는 무더운 낮시간을 피하고 밤시간을 리용했다.

장편소설 《새로운 항로》에서 작가는 해방전후와 조국해방전쟁시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수령님의 품에 안기여서야 참된 인생의 봄을 맛고 삶의 길을 걸어가는 지식인과학자의 형상을 시대의 높은 요구에 올려세우려고 하였다.

성공의 희열을 안고 활달하게 움직이던 손이 갑자기 굳어졌다. 눈앞에서 무수한 불씨들이 아물거리는 순간 그는 원고지에 머리를 툄씩 떨어뜨렸다. 《뇌혈전증》이라는 무서운 병마가 작가를 불의에 타격했던것이다. 이어 여러 합병이 겹쳐 달려들었다. 이것은 치명적인것이어서 의사들도 속수무책이었다.

얼마후 몽롱하게 정신을 차린 그가 처음 부르짖은 말은 《원고...》, 그다음 《만년필...》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지어는 사랑하는 안해도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이미 그는 전신이 마비되어있었다.

환자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것처럼 열렬히 조국을 사랑하던, 락동강의 불바다를 헤쳐온 종군작가 황건은 의식을 잃은채 숨져가고있었다.

바로 그때 전설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불사의 광명이 작가의 심장에 비쳐들었던것이다.

작가 황건이 충성의 창작전투를 벌리다가 현지에서 쓰러졌다는 보고를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급히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구하신 희귀한 약재를 일군에게 들려보내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귀중한 작가의 생명을 구원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 사랑의 불사약에 떠받들리어 작가는 눈을 떴다. 순간 그는 광휘로운 해빛이 자기를 포근히 감싸 안고있다는것을 심장으로 느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가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작가대오에 서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리시고 사려깊이 보살펴주시였다.

이리하여 끊어졌던 《새로운 항로》는 다시 이어졌고 태양의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뻗어갔다.

《장편소설 <새로운 항로>는 사랑의 불사약으로 나를 안아일으키시고 청춘의 열정을 되찾아주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배려와 보살피심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작품이 거둔 성과를 모두 저한테 돌리시고 대를 이어 길이 전할 은정어린 선물과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까지 안겨주시였습니다.》

축축하게 젖어들던 로작가의 눈곱에서 맑은것이 핑그르 고이더니 흰눈우에 처뚝 떨어졌다. 불시에 우리의 눈시울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로작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나서 피염 피염 이야기를 계속했다.

...다시금 당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를 받아안은 그는 밤늦도록 잠들수 없었다.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제가 뭐길래 세월이 흐를수록 대를 이어가며 베푸시는 사랑이 더욱 뜨겁고 믿음은 두터워만 지는것입니까?! ...)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몇 번이고 뇌이던 로작가는 책상에 마주앉았다. 창작일지에 충성의 결의를 심장으로 써내려갔다.

이튿날 로작가는 현실체험을 떠났다. 앓고난 뒤였고 또 고령의 몸으로 오래동안 현실체험을 한다는것은 그야말로 쉬운 일이 아니였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넘려하여 축적된 생활체험도 풍부한데 지방산골까지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고 했다.

《난 지금 청춘기처럼 창작의욕에 불타고있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나를 영원한 청춘으로 보살펴주고계신단말이요.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는 이 심정을 리해하여주소.》

사람들은 해변속에서 잔파도가 유난히 자글거리는 그날 동해선을 달리는 렬차를 보았으리라. 그 렬차의 어느 차창가에 앉아 전적지답사를 떠난 소년단원들과 함께 혁명가요를 부르는 한 로인을 눈여겨본적은 없는지? 그가 바로 황건이였다.

《그때 현실체험은 아주 성과적이였다던데요,》

우리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예, 짧은 기간에 중편소설 <딸>을 써서 발표하였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원형에 기초해서 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했을뿐입니다. 나는 이미 창작실천으로 그 정당성을 확신하고있었습니다.》

이윽고 우리는 로작가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였다.

로작가의 서재 겸 창작실에 들어선 우리는 원탁을 마주하고앉았다.

어항에서 한가로이 꼬리를 젓고있던 금붕어가 툭 빠져져나온 눈을 가늠에 바투대고 입을 빠금빠금 벌린다.

벽체를 가득채운 서가들, 창가에서 청신한 기운을 풍기는 대나무화분, 원고지가 두툼히 쌓인 랑수책상...

여기서 로작가는 우리를 만나기전까지 창작에 몰두했을것이였다.

우리는 작가의 창작수첩을 펼쳐들었다. 대단했다. 창작생활 40 여년에 8 권의 장중편소설, 3 개의 단편소설집, 100 여편의 예술산문과 평론들...

시대의 거세찬 숨결속에서 창작의 붓을 순간도 멈추지 않고 달려온 로작가의 헌신성이 다시금 새삼스레 느껴진다.

《선생님이 지금 창작하는 작품의 제목을 어떻게 부릅니까?》

《<잠 못드는 기슭>이라고 합니다.》

《호기심이 나는데요. 어떤 주제가요?》

《혁명전통주제입니다.》

《간단한 내용을 이야기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설하신 유격구를 열렬히 동경하고 장군님을 희망의 별로 우러르던 그때 인민들의 생활감정을 청춘남녀들의 생활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합니다. 유격구에서 파견된 정치공작원의 영향하에 점차 계급의식이 싹트고 자라 장군님의 품으로 찾아가는 주인공들의 앞길에는 보람찬 삶이 있고 그속에서 청춘의 사랑도 아름답게 꽃피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자들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어떤 글을 쓰시려는지요?》

《로파심이랄가, 저의 문학수업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문학신문>에 나오는 선생님의 짧은 글이 중견들속에서도 인기가 대단합니다.》

《변변치 못한 글인데요. 더 진심으로 깊이있게 쓰겠습니다.》

《작가와 시대정신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한마디만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로작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어 입을 열었다.

《정말 수령님의 품속에서 당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우리처럼 행복한 작가는 그 어디에도 없을겁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격동적인 시대이지요. 삶의 보람이 극치에 이른 이 시대에 웅당 동서고금의 레를 찾아볼수 없는 기념비적 걸작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젠 이 땅에 생을 둔 우리 작가들의 의무이기전에 숭고한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동안을 두었던 그는 확신성있는 어조로 말을 다시 이었다.

《시대를 노래하는 작가는 먼저 시대의 전형을 통가하는 인간이 되여야 합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이 그것을 요구하지요. 나는 자신을 그렇게 수양하렵니다.》

어느덧 해는 서산에 뉘엿뉘엿 기울어지고있었다. 우리는 작가의 건강과 창작에서의 성과를 바라며 귀로에 올랐다.

로작가가 비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운동일과를 어기지 않는 인상깊은 둔덕이 또다시 눈앞에 안겨왔다. 우리는 생각에 잠겼다.

그가 이곳에서 몸을 단련하고 정력을 보충하는 것은 단순히 생에 대한 애착에서일가? 아니였다. 은혜론 품속에서 보람찬 삶을 오래오래 꽃피우려는 한 로당원의 소박한 념원이 신념으로 굳어져 생의 마감순간까지 전사의 의리를 지켜가려는 값높은 자각이였다.

저 푸른 거목이 무수한 년륜을 새기며 청청 우거지는것은 어머니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따사로운 햇빛과 마를줄 모르는 생명수를 자양분으로 하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로작가의 삶은 위대한 당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 속에서 저 우거지는 높은 아지처럼 오늘도 영광과 존엄으로 청청 비껴가는것이다.

우리는 락락장송의 거연한 모습에서 오래도록 시선을 떼지 못하였다.

방금전만 해도 흰 국화송이 같은 눈꽃들이 우듬지에 피어있었는데 타는듯한 저녁노을이 그것을 선홍색으로 물들였다. 이어 가지도, 줄기도 그리고 온 숲이 붉은 노을빛속에 잠겨버렸다.

좋은 날씨를 예고하는 노을이였다.

명제해설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

김 정 일

당과 수령, 혁명에 대한 충실성은 민족에 대한 사랑과 뗄수 없이 연결되어있다. 혁명은 자기 나라와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따라서 자기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지니지 않고서는 혁명에 한 몸 바쳐 나설수 없다.

우리 인민이 지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곧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영명한 지도자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며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아가는 인민으로서의 혁명적 긍지와 자부심이다. 이러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기초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우리 인민의 고결한 사상정신적 특징으로 되고있으며 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 간직할 때 혁명에 대한 충실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혁명과 건설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될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혁명적 문학예술에서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활과 투쟁을 그리면서 그속에 체현되어있는 조선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정신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지도자를 모신 우리 인민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다.

지난날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들이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고 우리 나라가 주체의 조국으로 세계 만방에 빛을 뿌리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였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이 지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민족제일주의정신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신데서 이루어지고 공고화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때문에 문학예술작품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자리잡고있는 끝없는 자량과 행복, 긍지를 웅심깊게 그려야 한다. 그래야 조선민족제일주

의정신의 참다운 본질과 근원을 형상적으로 옹계 밝힐수 있으며 그 정신의 불멸성과 생활력을 심오하게 형상화할수 있다.

예술영화 《조선의 별》(1~10 부)의 불멸의 화폭들에서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향도성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모신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환희와 기쁨, 감격을 격동적으로 받아안으며 예술영화 《추억의 노래》와 가요 《우리가 제일일세》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긍지와 자량, 행복을 느낀다. 그리하여 이 작품들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조선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빛내이게 하고있는것이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정신,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있게 밝히기 위해서는 또한 민족적 자존심과 조국의 소중함을 구체적인 생활형상을 통하여 잘 구현하는것이 중요하다.

단편소설 《담임선생》과 《조국》은 해외에 사는 조선동포들의 생활을 취급하고있다. 《담임선생》은 한 어린 학생에게 조선사람의 넋을 심어주는 교원의 높은 정신세계를 통하여, 《조국》에서는 조선사람으로 태어난것을 수치로 여기던 한 해외동포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권위로 하여 빛나는 공화국이야말로 진정한 조국이라는것을 깨닫는 과정을 통하여 숭고한 조국애를 깊이있게 구현함으로써 조선민족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심원하게 형상하였다.

물론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정신,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이밖에도 다양한 형상을 통하여 실현될수 있다.

작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서 주인공들의 형상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정신을 깊이있게 반영함으로써 문학예술작품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을 깊이있게 심어주고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한 당일군에 대한 추억

삶의 길위에 력연한 흔적을 남겨준 그런 인간에 대한 추억은 무시로 더듬어지며 마음속에 못내 그리움을 자아내게 한다.

나에게는 한 당일군에 대한 못잊을 추억이 있다.

1

전쟁이 끝난지 한해가 지났으나 미국놈 폭격에 아버지를 잃고 병약한 홀어머니슬하에 올망졸망한 여섯 자식이 붙어사는 우리 집 생활형편은 여전히 어려웠다.

식량도 나라에서 주는 대여곡을 받아야 했고 땀 나뭇도 동리 어른들의 손을 빌어 해야만 했다.

어머니와 동생들 옷주제 또한 말이 아니었다. 나만은 그래도 맏이이고 중학생이라고 아버지가 남기고 간 가름옷을 줄여주어 비교적성한것을 입고 있었다.

아버지를 잃은후부터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 모르게 자주 울었다. 내가 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가슴저리게 띄어본것은 중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날 밤잠자리에서였다.

유난히 밝은 달빛이 께진 문창호지구멍으로 흘러들어 외로가로 누워자는 우리 형제들을 은은히 어루비쳐주던 그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고 뒤척거려있었다.

상급학교 진학문제가 제기되어 동창생들 대다수가 앞날에 대한 포부와 희망으로 흥떠있는 때에 그속에 섞일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안타깝고 서글퍼서였다.

아버지를 빼앗아간 미국놈이 가증스러웠고 손우가 없이 맏이로 태어난것이 또한 한스러웠다.

그렇게 속을 태우다가 어슬피 잠이 들었는데 얼굴에 무엇인가 뜨거운것이 떨어지는것이 느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올려 얼굴을 문지르며 눈을 번쩍 떴다.

그 찰나 머리맡에 앉아 나를 내려다보는 어머니와 시선이 맞부딪쳤다.

어머니는 소리없이 울고있었다.

아, 그 눈물방울! 말로 표현할수 없는 그 눈길...

나는 얼른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 급히 모로 돌아누웠다.

서러움이 와락 북받쳐오른것은 그다음이었다.

장기성

그밤에 나는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한가닥 미련을 끊어버리고말았다.

다음날부터 나는 학습의욕을 잃어버리었다. 공부시간에 멍청히 앉아있기가 일쑤였고 집에 돌아오면 책보를 방구석에 집어던지고 나무하러 앞산으로 오르곤했다.

그때는 졸업시험을 며칠 앞둔 때였다. 하지만 시험은 잘 쳐서 무엇하랴. 나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는데...

그런 나를 보며 어머니는 가슴꺼지는듯한 한숨을 지었을뿐 달래는 말은 하지 못했다. 나를 도회지로 공부보낼만한 힘이 없는 어머니였던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두번째 수업시간이었다.

종소리가 울려 교실에 들어가니 맨뒤자리에 어론한분이 앉아있었다. 검은 눈썹이 유난히 수북하고 등이 활사한 40대의 그는 달포전에 새로 부임되어온 리당위원장 박동진이었다.

그는 오른다리를 살룩살룩 저는 영예군인이었다.

그는 미소어린 눈길로 우리 졸업반 학생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는가 하면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들으며 노트에 무엇인가 적기도 했다.

그는 한껏내내 우리와 함께 수업을 받았다.

그리고는 아무말없이 교실을 떠나갔다.

그가 가자 우리는 리당위원장이 왜 우리 교실에와서 세시간동안이나 수업을 받았을까? 하고 제 나름으로 추측을 하며 떠들어댔다. 그러나 누구하나 리당위원장의 속내를 알아맞힐수는 없었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알아보려 왔겠으리라는것이 그래도 제일 그럴사한 판단이었다.

그날저녁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어느때보다 좀 늦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에없이 얼굴이 밝아보였다.

《명현아, 너도 졸업시험을 잘 치고 상급학교에갈 준비를 하거라.》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이였다.

(?...)

나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잘못 들은상싶었다.

《이제 협동조합을 못는다더라. 이웃끼리 함께 일해서 일한것만큼 나누어먹는대. 나라에서 도와주

고, 그러면 로력자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같은 집도 살아갈수 있다더라. 그러니 넌 상급학교에 가거라.》

《어머니, 누가 그래요?!》

《리당위원장어른이 밭에 날 찾아와서 그러더라. 너처럼 머리가 좋은 애는 공부를 시켜야 한다면서.》

《그게 정말이에요요? 야!》

나의 입에서는 부지중 환성이 터져나왔다. 가슴이 대뜸 부풀어올랐다.

우리 집뒤에는 그리 높지 않은 동산이 솟아있었다.

나는 무작정 동산으로 치달아올라갔다. 저도 의식하지 못한채 경충경충 뿔뿔기를 했다. 저 하늘에 떠흐르는 노을비끼 흰구름우에 뛰어올라 훨훨 날고 싶은 심정이였다.

2

나는 도소재지에 있는 사범전문학교로 가기로 했다.

교육자가 되고싶은 꿈이 있어 택한 학교는 아니였다.

그때도 사범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많이 주어 나는 홀어머니에게 부담을 적게 주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 그 학교를 지망한것이였다.

졸업시험을 전과목 최우등으로 쳤고 상급학교 입학시험준비도 밤을 패며 직심스럽게 했다. 전문학교 입학비률이 아무리 높아도 능히 합격할것만 같았다.

내가 도소재지로 입학시험을 치러 떠나기 전날 저녁이였다. 우리 어머니의 얼굴은 다시 컴컴하게 흐려졌다. 나를 떠나보낼 준비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였다. 웃은 빨아 다렸으니 퇴색한대로 입을만했고 왕복 로차는 어머니가 25리 광산마을 장마당에 몇행보 하면서 고비며, 송이, 취파위 산나물을 팔아 번 돈으로 빠듯이 뿔뿔했다. 제일 문제는 신발이였다. 엄지발가락이 쑥 나가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도회지로 상급학교 입학시험을 치러 간다는것은 아무리 신발이 귀한 그때였어도 차마 못나설 일이였다.

새 신발을 사신을 돈도 없었지만 내 밭에 맞을 만한 신발이 당장 눈에 띄우지도 않았다. 하는수없이 꿰진 신발을 기워신고 가기로 했다.

어머니는 석유등을 들고 부엌으로 나가며 나에게 말했다.

《어서 자거라, 그래야 새벽에 떠나지.》

심심산골인 우리 마을에서 도소재지로 가려면 25리밖 만년광산에 내려가 8시에 떠나는 첫 버스를 타야 했다. 그 버스로 100리길을 달려 읍에 들렀다가 다시 250리를 더 가 평산역에 이르러 기차를 타야 하는것이였다.

광산마을에서 오후 3시에 떠나는 두번째 버스는 읍에까지밖에 가지 않았다. 그러니 도소재지로 가려면 우리 집에서 새벽 5시에는 떠나야 했다.

나서 처음 먼길을 떠나게 되는 흥분으로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수 없었다.

한여름밤은 길지 않았다.

문밖이 푸름푸름 밝아올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는 온밤 부엌에서 망질도 하고 또 무엇인가 한듯했다. 나를 떠나보낼 준비인것이다.

아직 정신없이 자고있는 동생들 머리맡을 지나 부엌으로 나가는 사이문을 열려던 나는 그만 무춤어지고말았다.

장난 세찬 동생들에 의하여 승승 궤진 문창오지 째므로 울고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언뜻 눈에 띄었기때문이였다.

어머니는 아궁앞에서 엄지발가락이 나가는 내 곤색운동화에 검정색 천조박을 덧대 기우며 소리없이 굵은 눈물을 짓고있었다.

순간 나의 가슴은 찢릿했다. 코마루가 시큰해나고 눈앞이 확 흐려졌다. 아, 나때문에 어머니는 또 우시는구나. 전번날에는 날 상급학교에 못보내는 안타까움에 우시더니 오늘은 번듯하게 차려입혀 보내지 못해 또 우시누나. 아, 어머니! 웬 눈물이 그리 해퍼요. 우지 마세요. 남이 보고 비웃은들 뭐래요. 난 일없어요. 궤진 신발이 아니라 맨발로라도 공부만 할수 있으면 돼요. 어머니가 우시면 나도 눈물이 나요. 나때문에 어머니가 자주 우시면 난 학교를 그만두겠어요. 어머니-

나는 발끝을 돌려 소리없이 앞문으로 나가 굴뚝 모퉁이에서 한식경이나 멍하니 서있었다.

그 새벽에 나는 어머니가 채간젓 기워준 운동화를 신고 밤도와 만들어준 찰강냉이떡을 도중식사로 배보자기에 싸 끼고 집을 나섰다.

《명현아, 꼭 합격하고 오나라.》

어머니는 내 발끝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갈린 낮은 음성으로 당부했다.

《예, 갔다오겠어요.》

나는 이 한마디를 가까스로 남기고 휙 돌아서 강냉이대가 우거진 좁은 길로 부지런히 내걸었다.

《형 잘 갔다 와-아-》하는 동생들의 인사말에는 응대도 않고 큰길쪽으로 반달음을 놓았다.

어머니마음이 더 아프지 않게 어서 빨리 어머니 시야에서 사라지려는 생각에서였다.

큰길에 나서서야 나는 걸음발을 늦추었다.

여러날째 가물어 행길우에서 먼지가 풀썩풀썩 일어서인지 나의 눈길은 저절로 발치에로 갔다. 그러자 검정색 천조박을 동그랗게 오려 덧대기운 퇴색한 곤색운동화가 눈뿌리를 자극했다. 실밥 한뼘 안보이게 공돌여 기운것이어서 그토록 눈길을 안놓는지 몰랐다.

어느새 먼지발이 뿌옇게 오르기 시작한 신발우에 눈물짓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히 어려왔다. 이어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뒤편 더 먹고싶어하는 다섯 동생들의 얼굴이 한데 어울려 떠올랐다.

아, 나까지 없으면 어머니를 누가 도와줄까, 어머니가 앓을 땐 누가 돌봐주고, 동생들 때식은 누가 끊어주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목이 짹 메오며 더는 발걸음이 나가지 않았다.

뜨적뜨적 걸음을 옮기다가 나중에는 길한복판에 멎어서버리고말았다.

보이지 않는 누구의 아귀센 손이 뒤덜미를 잡아당기는듯했다.

한편 꼭 합격하고 오라고 당부하던 어머니의 목갈린 음성이 귀전에 울려왔다.

어떻게 할까? 갈까? 돌아설까?

얼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멍청히 서있던 나는 저도 모르는새 길아래컨으로 흐르는 개울가에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키높이 자란 나무숲에 싸여 흐르는 맑고 시원한 고향의 내물-두무천에는 군데군데 방아확처럼 꽤여 소를 이룬곳이 있었다.

내가 가당은곳은 마을에서 퍼그나 떨어져있어 간혹 어른들이나 헤엄치러 오는 외진 드레소였다.

나는 물가에 퍼더버리고 앉아 잔모래가 소말거리고 푹지, 버들치때가 유유히 헤엄치는 물속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관관한 돌등에 벌렁 누워 비취색 하늘에 걸려있는 흰구름장우로 마음달리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날씨가 더워지자 나는 훌러덩 옷을 벗고 물속에 뛰어들었다. 혼자서 헤엄을 치고 기슭에 나와 해조임을 하고 다시 물속에 뛰어들고...

외기러기 놀음이라 흥이 나지 않았다.

이로써 나의 상급학교 진학의 길은 끝나고말았다.

날이 저물어서야 나는 무슨 죄라도 지은것처럼 동리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나타나자 한창 저녁쌀을 일고있던 어머니의 손놀림은 무뎌 굳어져버렸다.

《빠스를 못탔어요.》

어머니가 묻기전에 나는 본의아닌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는 내 목소리를 듣고 사이문을 열어제치는 다섯 동생들에게 낮에 먹다가 우정 남긴 찰강냉이떡보자기를 던져주었다. 《노나먹어.》

어머니는 어째서 빠스를 못탔는가 캐여묻지 않았다.

나의 목소리, 표정, 행동거지에서 벌써 모든것을 간파한듯싶었다.

어머니는 쌀을 마저 일어 술에 안치더니 그제야 아궁앞에 쭈그리고 앉아 쉼나무가지를 꺾어넣고있는 나에게 눈을 주며 물기 배인 음성으로 한마디 했다.

《리당위원장이 너를 꼭 공부시키라고 했었는데...》

3

어머니를 도와 농사를 할 결심을 한 나였지만 선뜻 호미를 들고 띄약벌아래 나서게 되지는 않았다.

어머니 역시 아직 애젊은 나에게 농쟁기를 들려주고싶지 않아했다.

《날도 무더운데 집이나 보면서 얼마간 놀아라. 이제 일을 시작하면 한평생 해야겠는데...》

나는 어머니의 말을 좇아 집일이나 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었다.

어느날 한낮이었다.

점심식사뒤의 식곤이 물려와 나는 토방에 멍석을 펴고 벌렁 드러누웠다.

인차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던지...

그 무엇이 코등을 자꾸 간지럽혀 나의 단잠을 여리게 했다.

나는 눈을 뜨지 못한채 필경 개미가 기어오르는 상싹은 코마루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잡히는것은 없었다. 그런데도 손을 떼니 여전히 코등이 간질거렸다.

참아보기도 하고 다시 손으로 코등어리를 탁 때려보기도 하고... 그러느라니 잠은 멀리로 달아나버리고말았다.

나는 아쉽게 생각하며 스르시 눈을 떴다.

다음순간 나는 어리벙벙해지고말았다.

뜻밖에도 리당위원장 박동진이 내 머리말에 와 앉아 나를 내려다보고있는것이 아닌가. 그의 오른손에는 내 코등을 간지럽히던 연한 풀대가 여전히 들려있었다.

《허허, 팔자가 늘어졌군그래.》

리당위원장은 꺾꺾 웃으며 멍석우에 물러앉았다.

벌떡 일어나앉은 나는 멍적어져서 공연히 뒤더 수기로 손을 가져갔다.

《어머니를 도와 농사일을 하겠다는건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대낮에 잠이나 자서야 곡식이 자라겠나.》

리당위원장은 여전히 얼굴에 웃음발을 띠고있었으나 빈정대는투로 말을 건네왔다.

《...》

내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목덜미를 붉히자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 일을 꽤 해낼것 같아?》

그 소리는 나를 앞잡아 시까스르는 기미가 력연한 것이었다.

술머시 기분이 언짢아올랐다. 피, 남 다 하는 농사일을 나라고 못할가 하는 반발심이 솟아올랐다.

《요즘 공부는 뭘하나?》

리당위원장이 또 물었다.

공부라니, 상급학교를 단념하였는데 공부는 무슨 공부... 물느니 대답 공간 소리만이어서 나는 여전히 입을 봉한채로 있었다.

《꿀먹은 벙어린걸 보니 책하군 담을 쌓은 모양이지, 난 그래도 전문학교를 지망했다기에 명현이한테 어떤 뜻이 있는가 했는데 이제보니 고무풍선이었구만.》

그 《고무풍선》이라는 소리에 나는 약이 올랐다.

모욕감이 온몸을 지지였다. 그러면서도 반발할 소리가 없는게 더 화가 났다.

아무 소리든 한마디 내쏘아야 속이 내려갈것 같았다.

《일을 해도 공불 해도 내 마음 먹기에 달린건데 괜한 참견 마십시오.》 하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이었다.

그러나 입밖으로 나가지는 못했다.

마을에 온지 오래지 않은 리당위원장과 단둘이 마주앉아 이야기해보기도 처음인데다가 리당위원장이란 그 직체가 자못 엄엄하게 느껴지기때문인 듯했다. 전쟁에 참가하여 훈장을 많이 탄 군관이며 영예군인이라는데서 뿜어온 존경심이 또한 나의 반발을 억제한 듯싶었다. 리당위원장이 나를 공부시키라고 우리 어머니를 설복시켰었다는 인식이 나의 감정을 달랬는지 몰랐다.

리당위원장은 나에게서 무슨 대답을 기다리듯 지긋게 나를 마주보았다. 그 눈길에 놀리워 나는 눈을 들수 없었다.

그때 리당위원장의 두눈은 웃고있었지만 모욕감으로 열이 오른 나는 그것을 알수 없었다.

이윽하여 리당위원장은 자리를 일어 우리 집 허청간이며 나무난가리주위를 말없이 돌아보았다.

그런 다음 떠나가며 이런 말을 남겼다.

《에 말할 재미가 없어 가겠다. 학교선생님이 명현이한테 글짓는 재능이 있다고 해서 책도 많이 읽고 말도 잘하는가 했더니 영 아니로군.》

나의 부아를 한층 더 돋켜주는 소리였다.

나는 리당위원장의 고르지 못한 발자국소리가 저쪽으로 잦아든지 오래도록 토방우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4

나에게 약을 바짝 올려준 리당위원장의 말마디들, 특히 그가 우리 집을 떠나면서 남긴 나에게 글짓는 재능이 있다고 한 소리는 서서히 뇌리에 새겨져 좀처럼 떠날줄 몰랐다.

사실 나는 학교과정에 문학에 취미를 두고있었다. 학교도서실책을 적지 않게 읽었고 글짓기때마다 좋은 평가를 받곤했었다. 이에 대하여 리당위원장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던진 말은 나에게 자신의 취미를 되새기게 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문학수업을 해보고싶은 충동을 느끼게 했다.

리당위원장이 다녀간 그이튿날에 우리 집으로 학교 문학선생님이 찾아왔다.

선생님은 책을 여러권 가지고 왔는데 주로 작가수기들과 문학청년들을 위한 참고서, 소설, 희곡집들이었다.

선생님은 생활이 창작의 어머니라는데 대하여, 농민출신의 어느 작가의 경험에 대하여, 내가 아직 읽지 못한 작품들에 대하여 시간가는줄 모르고 이야기해주었다.

선생님의 그 말과 그가 가져다준 책들의 내용은 나의 문학수업 의욕을 한층 더 북돋아주었다.

나는 다시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학교도서실책을 한아름씩 빌려다가 밤을 패워가며 읽고 또 읽었다. 웬만한 부피의 중편소설은 하루에, 장편소설은 이틀에 한책씩 읽어치웠다. 소설, 시, 희곡, 평론 할것 없이 닥치는대로 읽었다. 작품에 그려진 다양한 생활세계에, 작중인물들의 매혹적인 성격에 심취될수록 나도 그런 작품을 써보고싶은 의욕이 솟구쳤다.

일이 될 때라 그무렵부터 리소비조합상점에서 위탁 책매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상점에는 책임자이자 판매원으로 서영복이라는 아바이가 있었다.

그는 보름에 한번씩 소달구지를 끌고 읍으로 상품을 실으러 나가곤했는데 그때마다 읍 서점에 들러 새로 나온 책들을 받아다가 팔아주는 것이었다.

도서보급은 소비조합상점에서 할 일이 아니며 책 몇권씩을 위탁판매하는데서 수입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 학구심있는 마을청년들을 위해 아바이스스로 그런 부담을 걸려진 듯했다. 그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책에 미치다나니 간혹 집일과 어머니를 돕겠다던 나의 결심이 흔들릴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이악스레 마음을 건잡곤했다.

교박 두달동안을 나는 책에 묻혀 살았다. 머리 깎는것마저 잊고 더부룩해서 지내는 때가 드문했다.

가을걷이때에만은 어쩔수없이 책을 놓아야 했다. 그때도 밤에는 등불밑에 책을 펴들었지만 피곤하여 몇줄안팎에 었던채로 잠들고말았다.

집집에서 난알털기가 속속 끝나가는 때에 우리 마을에도 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되었다.

우리 집은 선참으로 조합에 들었다. 어머니와 함께 나의 이름도 조합원명부에 기입되었다.

아침마다 우리 집 뒤동산우 가래나무에 매단 포탄각지종이 땡땡 울리면 각이한 연령의 조합원들이 선전실앞마당에 모여들어 하루일을 의논한후 밭으로 나가군했다.

나는 드문히 조합일에 결근을 했다.

새로 읽기 시작한 소설이 재미있어 손에서 놓기 싫을 때는 일을 나가지 않았다. 갓 일을 시작한 내가 측은하여 어머니는 기꺼이 승낙해주군했다. 동리 어른들도 내포래 쫓내기 조합원들이 결석하는데 대해서는 관후하게 대하였다.

나는 학교도서실과 교원들의 집에 있는 책들을 다 읽는데 이어 25 리밖 만년광산 도서관에 찾아가 호소하여 책을 빌려보기 시작했다.

광산도서관에서는 규정상 한거번에 많은 책을 주지 않는터여서 한주일이나 열흘에 한번씩은 그곳을 다녀와야 했다.

왕복 50 리길을 걷고나면 그다음날 아침은 일어나기 빠근하여 늦잠을 잤다. 그리고는 온 하루 책을 읽었다.

그러느라니 나는 열흘에 이틀씩, 때로 조합적인 휴식일이 끼인 때에는 사흘씩을 집에서 보냈다.

소한머리의 어느날 저녁이었다.

민청초급단체총회가 있다고 해서 나는 이미 보기 시작한 소설책을 거드랑이에 끼고 선전실로 갔다.

우리 마을에는 청년들이 많았다. 갈노전 열장을 칸 작지 않은 선전실은 이미 민청원들로 꽉 차있는데 키낮은 책상을 놓은 집행석에는 민청초급단체위원장과 함께 리당위원장이 앉아있었다.

총회안건은 조합의 첫 영농준비작업에서 민청원들이 앞장설데 대한 문제였다.

회의안건을 통과시킨데 이어 초급단체위원장이 보고를 시작했다.

조합을 무어 첫째 농사를 잘 짓자면 무엇보다도 거름이며 소농기구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영농준비의 필요성과 의의를 언급한 초급단체위원장은 조합일에서 모범적인 민청원들의 이름을 들어 소개해나갔다.

회의장 한쪽구석에 앉은 나는 보고를 듣는동안은 등하며 희미한 등불에 비쳐 소설책을 계속 읽고 있었다.

사춘기청년들의 우정과 첫사랑의 감정을 그린 중편소설이었다.

한마을 아래웃집에 살면서 서로 각별히 위해주고 때로 다투기도 하던 사이의 녀동무가 부모를 따라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그 처녀가 자기 가슴속에 얼마나 소중히 새겨졌는가를 비로소 느끼게 되는 애젊은 청년의 허전하고 안타까운 심리가 짙게 그려져있었다.

나으로 보나 호상 감정적 전제로 보나 사랑을 고백할 정도가 못되면서도 마음이 달떠 한밤중에 처녀의 집주위를 빙빙 돌고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며 내가 피씩 웃음을 지을 때였다.

문득 내 이름소리가 고막을 자극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보니 회의 참가자들의 눈길이 나에게 집중되고있는 속에 선전실 한가운데서 일어난 토론자가 나를 비판하고있었다.

토론자는 나보다 한해 먼저 학교를 졸업하고 일하는 선길이라는 민청원이었다. 그는 손세를 써가며 어성을 높이고있었다.

《...명현동무의 사고와 행동은 민청원답지 못합니다. 온 나라가 전후복구건설을 위해 부글부글 끓고있는 때에 일하기 싫어하면서 책만 끼고다니고... 건달군의 머리에 든 지식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없습니다. ...》

(뭘라고. 일하기 싫어한다고? 내가 건달군이라고?...)

온몸의 피가 정수리로 치달아몰리는듯했다. 나는 불이 이는 눈으로 선길이를 쏘아보았다.

나는 일하기 싫어서 조합일에 빠지는것이 아니다. 가정사정으로 상급학교에는 못갔지만 어떻게나 공부를 하자고 한다. 네가 쿨쿨 자는 시간에도 나는 책과 씨름을 하고있다. 나는 건달군이 아니다. 이렇게 소리치고싶었으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수도 입을 열수도 없었다. 선길이가 엄연한 사실을 말하고 있기때문이었다.

나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집행석에 있는 리당위원장에게로 향해졌다. 그만은 나를 리해해주고 두둔해주는 말을 해줄듯싶어서였다. 나에게 문학적소질이 있다는것을 깨우쳐주고 뜻있게 살아야 한다는것을 귀뜸해준 사람이 바로 리당위원장이 아닌가.

하지만 리당위원장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오히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것으로 선길이의 토론을 긍정해주는듯했다.

아, 나를 리해해주고 동정해주는 사람은 없구나. 엇그제 중학교를 나온 애송이조합원의 남다른 지향을 리해하고 도와줄 사람은 여기에 없다. 나는 민청총회가 어떻게 언제 끝났는지 몰랐다.

남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설 때 나도 따라일어나서 휘청거리는 다리를 끌며 집으로 향했다.

분했다.

야속했다.

그밤 나는 잠들수 없었다.

5

나를 비판한 선길이에 대한 반발이, 나의 지향을 리해할줄 모르는 민청원들과 아닌보살을 한 리당위원장에 대한 야속함이 나를 조합일에 분발시켰다.

민청총회가 있는 다음날부터 나는 하루도 결근하지 않았다.

그러느라니 어디 앉으면 온몸이 노그라들고 자리에 눕기만하면 인차 잠들어버렸다.

책을 불과 몇페이지 읽을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더구나 문제로 되는것은 광산도서관에 갈수 없는것이였다.

그때 두루 궁리하다가 나는 광산마을에 가서 실어오는 진거름소달구지를 물기로 작정했다.

나의 청에 작업반장은 일순 의아해했다. 아직 애송이청년인 나에게 황소를 부리게 하는것도 미덥지 못했지만 역한 냄새를 풍기는 진거름달구지를 끄는 일이라서 시켜도 선뜻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적은 일을 내가 자청했기때문이였다.

나의 타산은 이러했다. 광산마을까지 가는데 25리, 돌아오는데 25리이니 왕복 50리길을 책을 읽으며 가고 올수 있다. 그러니 온종일 독서할수 있는 시간을 얻어내는 셈이다. 광산마을에 들어가면 그곳에 조직된 가내거름생산분조원들이 진거름을 실어주니 그 시간에 광산도서관에 다녀올수 있다. 진거름에서 나는 냄새는 달구지에서 좀 멀찌기 바람방향을 고려해서 걸으면 될것이고 광산마을에서는 소를 몰면서도 오가는 사람들속에 섞여 걸으면 누가 소달구지군인지 모를것이니 면구스러움도 이겨낼수 있을것이다.

작업반장은 거듭 나의 결심정도를 타진해보고서야 소달구지를 넘겨받게 해주었다.

내가 소달구지를 몰고 광산마을로 떠날 때 앞쪽으로 빼죽 나온 황소의 뿔을 걱정스레 여겨보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우수가 어려있었다.

산기슭 자드락밭을 에돌아 굵이굽이 뻗어간 신작로로 덜경 소리를 내며 느적느적 굴러가는 소달구지 한옆에서 책에 온 정신을 팔며 견고있는 애송이청년, 때로 돌부리에 걸쳐여 앞으로 꼬꾸라질번도 했지만 인차 몸을 가늠하고 다시 책줄에 눈길을 쏟는다. 어떤 때는 소가 길가의 풀을 뜯느라 멈춰선것도 모르고 저 혼자 한참 내건다가 무춤 멈춰서 뒤를 돌아보며 어처구니없이 웃는 청년-그는 나였다.

그렇게 한행보 하고나면 다리는 빠근했지만 웬간한 책 한권쯤은 능히 읽을수 있었으니 나는 그일을 기꺼이 계속했다.

하루, 또 하루...

아침부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나 조합적인 휴식일이 아니고서는 매일과 같이 소달구지를 몰고 광산마을을 다녀왔다.

진거름소달구지를 몰면서 제일 낯뜨거운 때는 두가지 경우였다.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광산마을길에서 마주오는 자동차에 길을 띄여주기 위해 소고삐를 잡지 않을수 없는 때와 상급학교모표를 단 중학동창들을 진거름달구지옆에서 만나는 때였다.

그 누가 멀리시의 눈길을 보내는것도 아니고 값죽은 동정의 소리를 하는것도 아니였지만 어쨌든 못할 일을 하다가 들킨것처럼 얼굴이 붉어지고 눈길들기가 거북한것이였다.

한여름 어느날이였다.

그날은 숨이 헉헉 막힐 정도로 날씨가 몹시 무더웠다. 오후에 접어들면서 하늘이 흐려드는것으로 보아 비가 내릴상심었다.

소달구지를 몰고 광산마을을 벗어난 나는 《이라! 이라!》 소를 다몰아댔다. 우장을 준비해오지 못한터여서 큰비가 쏟아지면 광산도서관에서 빌려가는 책들을 적실수 있었다. 내 몸뚱 젖는것은 녀려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보던 책을 마저 읽을 생각도 단념하고 축내야 할 앞길과 흐려드는 하늘을 번갈아 살피며 소를 재촉했다.

그렇게 뒤마장 걸었을 때였다.

늘 바람이 세차 재작뒤라고 부르는 굵인돌이를 돌아서는데 저 앞쪽에서 리당위원장이 상급학교에 간 나의 동창생들 세명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내려오는것이 눈에 띄였다.

나는 저도 모르는새 무춤 멈춰섰다.

마음이 당황해났다. 동창생들을 만나고싶지 않았다. 운두높은 모자에 고급중학교모표를 단 그들의 처지가 부럽던 나머지 시샘이 나고 그만큼 내하는 일이 천한것으로 느껴져 그랬던상심다.

나는 섰지만 미물같은 소는 계속 전진했다.

됐다. 멈춰세우지 않는 한 소는 계속 갈것이다.

나는 강냉이밭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동창생들이 소달구지와 어겨 빨리 멀어질것을 바라며 나는 행길보다도 더 무더운 강냉이밭고랑으로 살금살금 전진했다.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가뜩이나 땀에 떠있던 온몸이 물침봉이 되는듯했다. 가슴이 후드득거렸다.

내가 왜 이러나, 뭐 잘못된 일이 있어서... 우리 집 형편이 곤난한것이 뭐 죄인가. 머리 들고 뿔뿔이 그들과 만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머저리짓을 해.

리성은 이렇게 꾸짖었으나 감성은 여전히 숨박꼭질을 계속하게 했다.

그렇게 한식경을 전진한 나는 그만하면 그들이 달구지와 어겨 굵인돌이로 사라졌으리라 생각하며 신작로가로 나섰다.

그런데 소달구지가 올라와있지 않았다. 강냉이밭속으로 내가 걸은 속도가 결코 소의 걸음보다 빠르지 못했은즉 소달구지는 이미 와있어야 했다.

얼마간 더 기다렸으나 소달구지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이놈의 소가 오는 도중 풀을 뜯고있는가 하는 생각에 나는 한걸음두걸음 되짚어내려갔다.

그때 《영싸! 여이싸!》하는 여럿이 함께 힘쓰는 목소리가 아래쪽에서 들려왔다.

(?)

불길한 예감이 대뜸 나의 온몸을 감쌌다. 몇걸음 더 내짚던 나는 그만 그자리에 굳어져버리고 말았다.

소달구지 한쪽바퀴가 길가 도랑창에 빠져 거의 뒤집혀진것을 리당위원장과 나의 동창생들이 뿔아내고있는중이였다.

벌써 어지간히 신고를 한듯 옷등을 벗어붙인 그들의 온몸은 땀에 떠 번들거려였다. 빠진쪽 바퀴앞 석축은 이미 허물어져있었다.

《자 다시 한번, 여이싸!》

리당위원장이 빠진쪽 달구지바퀴를 어깨로 떠밀며 소리를 쳤다.

《여이싸! 여이싸!》

동창생들이 리당위원장을 따라 안간힘을 쓰며 숨가쁜 소리를 내질렀다.

한명은 길우에 놓은 바퀴가 뒤로 굴지 않게 번치고 리당위원장과 다른 두명만이 빠진쪽을 떠밀다나니 무거운 진거름달구지는 쉬이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이 모자랐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달려가지 못하였다. 수치감과 죄의식이 내 발을 한자리에 못박히게 한듯싶었다.

일은 내가 저지르고 고생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 그들을 흠쳐보고만 있는 나의 온몸에서도 진땀이 흘렀다.

얼마후 나는 강녕이밭속으로 다시 들어가 살금살금 도착고양이걸음으로 달구지 있는곳을 향해 접근해갔다.

내가 그곳 바투로 다가갔을 때에는 리당위원장과 동창생들이 이미 달구지를 길우로 밀어올리고 허물었던 도랑석축을 다시 쌓는중이었다.

《자, 그만 손들을 씻고 먼저 가보라구. 뺄스시간 늦겠소.》

리당위원장이 동창생들에게 거듭 권고하는 말이었다. 그들은 읊으로 나가는 오후 3시 뺄스를 타러 가는길이었었던것이다.

《리당위원장동지는 안가구요?》

《음, 내 인차 뒤따라가지. 자 빨리!》

리당위원장이 다시 재촉했으나 동창생들은 도랑석축을 다 끝내고서야 일손을 털었다.

나는 그들에게 끝없이 미안했으나 여전히 나서지 못하였다.

어서 빨리 그들이 떠나주기만을 바랐다.

했으나 리당위원장은 동창생들만 보내고 자기는 그대로 소달구지옆에 남는것이였다. 소가 길설의 풀을 뜯어먹다가 다시 달구지를 빠뜨릴가 넘어져 못떠나는듯했다. 그는 소달구지의 주인을 찾는모양 아래우를 자주 휘둘러보았다.

이제 좀더 그러다 가겠지, 뺄스시간이 박두해오니까.

나는 손시계가 없었으나 룩감으로 오후 3시경이 다 돼오고있다는것을 가늠하며 리당위원장이 자리를 뜨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달구지옆을 떠날줄 몰랐다. 쉬이 떠날 기색이 아니였다.

리적으로 광산마을에 나드는 진거름소달구지가 몇대밖에 안되어 리당위원장은 소만 보고도 부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있으리라는, 그러니 그가 지금 나를 기다리고있다는데 생각이 닿자 나의 속은 더욱 송구하고 불안해났다.

에라, 이왕 일을 저지른바에야 끝까지 버텨보자. 나는 강녕이밭고랑에 궁둥이를 붙이고 앉고말았다.

시간이 흘렀다. 강녕이밭사이로 올라다보이는 하늘은 점점 더 새까매져갔다.

비가 오리라는, 책이 젖으면 야단이라는 초조한 마음이 자리를 뜨지 않는 리당위원장에 대한 못마땅한 감정으로 번져갔다.

끝내 내가 지고말았다. 3시가 이미 지난듯한데도 리당위원장이 움직이지 않기때문이었다. 그는 뺄스타기를 단념하고 나를 기어이 만나려고 하는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비꽃까지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강녕이대를 헤치고 리당위원장앞으로 나갔다.

이제 리당위원장이 무섭게 꾸짖으리라는 예감에서 나의 온 신경은 팽팽히 긴장되고 자신에 대한 모멸감으로 얼굴이 마구 뜨거워났다. 자연히 호흡이 가빠올랐다.

《...》

《...》

리당위원장은 침묵으로 나를 맞이하였다. 그의 눈빛이 어땠는지 나는 마주보지를 못하였다.

《...》

《...》

침묵속에 비방울이 잦아졌다.

《자 고삐를 받아.》

얼마후에야 그가 한 첫말이었다. 예상외로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어딘가 갈린 소리인듯했다.

내가 소고삐를 받아쥐자 그는 말을 이었다.

《명현이, 그렇게 창피한 일을 왜 자진해 말았나?》

《...》

《뜻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떳떳이 머리를 들고 사는 법이야. 주위를 굽어보며...》

《...》

《자기 생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 상급학교에 간 너희들은 공부만 하지만 나는 나서자란 고향땅을 땀흘려 가꾸면서 공부를 한다 하고 생각하라구.》

《...》

《그릇이 커야 담는것도 많은 법이야.》

그는 그이상 더 말하지 않았다.

잠시 더 나를 바라보는듯하더니 돌아서 광산쪽을 향해 걷는것이였다. 이제는 뺄스시간이 지났지만 어쨌든 그는 읊으로 가야 되는 모양이였다.

그의 불균형적인 발자욱소리가 멀리로 사라진지 이윽해서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된비판을 예감하여 한껏 긴장해졌던 마음이 줄지에 쉽게 풀려서인지 온몸이 나른해났다.

그러자 느닷없이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며 설음이 복받쳐올랐다.

아,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나도 상급학교에 가고... 그러면 이렇게 진거름달구지를 물며 창피를 느끼지 않아도 될텐데...

아버지-내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요. 어머니한테는 말 못해요. 그러지 않아도 눈물이 흐른 어머니인데 내가 서글퍼하면 또 우실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디에 하소연할데가 없어요. 아버지, 아 아버지-호흡!...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어머니도 누구도 보지 못하는 신작로우어서, 굵은 비발이 내 눈물을 가리워주어서 나는 꺼리낌없이 소리내어 울었다.

《이라!》

나는 눈물섞인 음성으로 소를 물었다. 울며 소를 물었다.

그런속에서도 광산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 젖을가봐 거드랑이에 꼭 끼고 걸었다.

6

며칠이 지나서였다.

작업반장이 나를 찾더니 진거름소달구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라고 지시하는것이였다.

《건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썩 마음싸서 하는 일이 아니였지만 그 일을 자청할 때 의도한바가 있었으므로 선뜻 내놓고 싶지 않았다.

《그 일을 나이트 조합원으로 바꿔하게 하도록 리당에서 의견이 있었다.》

《리당에서요?》

불현듯 얼마전에 소달구지를 빠뜨렸던 일이 되 생각키우며 내가 미덥지 않아 리당위원장이 그런 의견을 주었으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광산도서관에 있는 보고싶은 책들을 다 본다음에는 그 일을 더 하라고 사정해도 그만둘 작정이였었지만 제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만둔다는 인식이 나의 속을 언짢게 했다.

《너같이 농사일을 갓 시작한 청년들은 나이트 사람들속에서 함께 일하며 착실히 배우라는거다.》

작업반장의 그 말은 나의 기분을 더욱 흐리게 만들었다.

흥, 언제인가는 나보고 뜻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더니 이제 와선 착실한 농사꾼으로 만들 생각밖에 없는 모양인가.

나는 리당위원장에 대한 고까운 감정을 어찌는 수 없었다. 그 감정은 나날이 더 굳어만 갔다.

그것은 민청초급단체의 월분공으로 내가 창작한 재담이 리당위원장한테서 부결되고 따라서 조직적분공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비판을 받았기때문이었다.

가을걷이전투를 다그쳐끝낼데 대한 재담창작분공을 나는 처음부터 달갑지 않게 접수했었다.

민청초급단체에서 창작분공을 주는 자체가 가당찮게 느껴졌고 또한 나는 남모르게 희곡을 한편 습작하고있는 때였다.

그러나 조직적 분공이니 어찌는수 없어 이틀밤 시간을 바쳐 재담을 써 제출했다.

초급단체위원장과 년초에 나를 비판한적 있는 선길이란 몇몇 민청원들이 돌려보고 의견들을 제기하는것을 나는 별반 귀담아듣지 않았다. 저들이 뭐아는게 있다고, 의견을 말로만 하지 말고 저들이 쓸것이지, 나는 원고를 그대로 예술소조에서 형상하던가, 아니면 더 잘 쓸 능력이 나에겐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써우라고 주장했다.

그 재담원고가 리당위원장에게 가게 되고 그로부터 민청원들이 제기한 의견들이 다 옳은것 같으니 재담을 수정하라는 의견이 나왔던것이였다.

울며겨자먹기로 재담원고를 다시 쓰며 나는 속으로 리당위원장을 경원했다. 민청초급단체에서 주는 분공에까지 참여하여 나에게 부담을 안겨준다고...

창작분공을 받을 때부터 원고수정완성과정이라 하였으므로 그후 재담이 공연되어 조합원들로부터 반영이 좋을 때에도 나는 별로 기쁨을 느끼지 못하였다.

재담때문에 보름나마 밤시간을 소비한 나는 희곡창작을 계속했다.

시작할 때엔 단막으로 예견했던것이 써나가는 과정에 중막모양을 갖춰나갔다.

우리 고향의 두무덕이라는 해발고 높은 산상을 개척하여 수십정보의 부침땅을 얻어내는 내용을 담은 전적으로 꾸민 이야기였다.

나는 극적인 사건을 꾸며내느라고 그런 설정을 했고 한편 그 두무덕도 무용지대로 버려두지 말고 유용하게 리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비판의 주장도 없지 않았다.

《여기도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 내 조국의 한부분이요!》 이렇게 주인공의 입을 통하여 나는 소리쳤다.

그럭저럭 초고는 다 썼는데 한번 쭉 관통하여 정리하자니 사색을 지속할수 있는 통시간이 필요했다. 삼사흘만 통시간이 있으면 꽤찮은 희곡으로 완성시킬상싶었다. 그다음에는 전국문예작품현상모집에 투고하고...

어떻게 그 시간을 마련할것인가.

아무런 리유없이 며칠간 일에서 빠지면 전처럼 또다시 문제가 설것이다.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결근하기는 량심이 꺼려 못할 일이다. 그렇다면 사실대로 말하고 시간을 얻을것인가.

두루 공리하던 나는 누구나 다 좋게 평가하는 작업반장의 후한 인정에 사실대로 호소하리라 작성했다.

그러나 마음 무뎠던 작업반장아바이도 나홀이라는 나의 요구에 선뜻 대답을 주지 못하였다.

《어떻게 한다?》

작업반장이 난감해하며 거들 녀이는 소리였다.

《...》

《조합규정에 어긋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할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좋으면서도 매우 고지식한 반장이었다. 그는 한동안 생각을 굴리다가 말을 이었다.

《내 관리위원회에 가서 토론해 알려주지.》

반장과의 대화는 나를 실망케 했다.

조합관리위원회로 말하면 농사일을 책임지고 주관하는데인데 농사와 전혀 관계없는 일에 며칠씩 시간을 떼여줄리 만무하지 않는가.

밤잠을 안자고 휴식일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서 원고를 정리하는수밖에...

비라도 한 이틀 왔으면 좋으련만...

그날 저녁이었다.

우리 집으로 찾아온 작업반장의 입에서는 뜻밖의 희소식이 울려나왔다.

《승인됐다. 래일부터 글을 써라. 그사이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많은 일을 했는데 쉬는셈치고...》

《?!》

나의 청이 관리위원회에서 선선히 수락된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어쨌든 의도가 실현되어 기쁘기 그지없었다.

그밤부터 나는 책상앞에 마주앉았다.

7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사흘을 거의 뜬눈으로 지냈으나 원고는 절반도 정리되지 못하였다.

점차 흥분이 사그라져갔다.

주인공의 성격에 공감이 덜해지고 초고와는 다른 방향으로 인물들의 감정과 행동선이 뻗어나가는 것이었다.

조합관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날자는 하루밖에 남지 않아 끝을 볼 가망이 없어져갔다.

나는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다. 괜히 소문만 내고 아무런 결실도 못거두는것이 아닌가.

나는 답답하고 허무한 생각이 들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기분을 전환할 목적으로 밖으로 나섰다.

남들이 다 일하는 때에 한갓 조합원이 방안에 들어앉아 글을 쓰고있다는 미안감이 나를 멀리로 나갈수 없게 했다.

고작 마당가에 나가 섰는데 우리 집에서 마주바라보이는 산경사지발에 거름을 저울리는 우리 작업반원들의 모습이 보이였다.

나는 그들의 눈에 띄일가봐 저어하며 방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조합원들속에 끼여 두엄질통을 지고 있는 리당위원장의 모습을 일별하고 그자리에 굳어졌다.

다리가 불편한 리당위원장이 두엄질통을 지다니, 평지도 아닌 경사지에서...

그러다 상한 다리가 말뼉을 일으키면 어찌자구, 조합원들은 왜 말리지 않을가.

나는 불시에 영예군인인 리당위원장에 대한 동정감을 금할수 없었다.

다음순간, 리당위원장이 내가 왜 일을 안나오는가에 대해 물으리라는데 생각이 가닿았다.

대뜸 속이 썩기였다. 그가 지금 내 일을 안다면 조합원이 농사일에 안나오고 글은 무슨 글이냐고 문제를 세울것 같았다. 그는 농사일을 기본으로 하는 농촌리의 리당위원장이 아닌가. 그러니 그렇게 요구하는것이 옹당하기도 하다. 아참, 그는 왜 나에게 불리하게만 나타나는것일가.

나와 함께 지내는것이 아니지만 나의 일거일동생각에 이르기까지 늘 앞지르며 제약하는상싶었다.

나는 쫓기듯 집안으로 들어갔다.

책상에 다시 마주앉았지만 좀처럼 작품의 세계에 잠기게 되지 않았다.

다리를 저는 리당위원장이 두엄질을 지고 경사지발으로 오르는 모습이 원고지우에 어려오며 사색을 여지없이 허물어뜨렸다.

나는 애써 사색을 모으려 했지만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내가 며칠간 시간을 받은것은 작업반장을 통해 관리위원회와 승인까지 받은것이니 우려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렇게 자신을 위안했지만 가슴속에 불안은 더욱 짙어만갔다.

《에이 안되겠군.》

나는 제깍에 화를 내며 뒤로 벌렁 나가눕고말았다.

도배한지가 오래되어 시누렇게 황이 든 천정을 바라보며 한동안 그렇게 누워있을 때였다.

《집에 누가 있나?》하는 귀익은 목소리가 토방에서 울리였다.

문을 벌컥 열어보니 소비조합상점 책임자 서영복아바이가 와있었다.

그의 손에는 새책이 몇권 들려있었다.

《야! 무슨 책입니까?》

나는 와락 달려나가며 책을 받아들였다. 《성구속담집》, 《희곡창작수업》 또 한책은 《종합평론집》이었다.

《모두 귀한 책들이구만요!》

《요즘 몹시 바쁘게 지내는 모양이지. 책사려도 움쩍 안하는걸 보니.》

《예. 저 좀, 아바이 고맙습니다.》

《고맙긴, 난 당적 분공을 수행하는것밖에 없네.》

《?》

《리당위원회에서 나에게 리내 주민들의 생활필수품과 함께 명현이네의 공부를 도와주라는 당적분공을 주었네. 그래서 책매대를 내왔지.》

《그래요?!》

《음 어제 새책을 가지고와서 리당위원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이 책들은 꼭 명현이한테 주라더군.》

《?!》

그러니 소비조합상점에 책매대를 내온게 리당위원장이 시켜서 한 일이란말인가. 리당위원장이 어떻게 나에게 관심을 돌려줄까. 민청총회에서 내가 호된 비판을 받을 때 나의 지향점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을 긍정해준 그가 아닌가. 진거름소달구지를 빠뜨렸다고 그 일에서마져 나를 떼게 하고... 오직 나를 일 잘하는 농민으로 만들려는것이 아니었던가...

어쨌든 새책을 볼수 있게 해준 그가 고맙게 느껴졌다.

리당위원장에 대한 상념이 꼬리를 물수록 그가 일에 만나간 나를 두고 뭐라고 할것인가 하는 우려감이 더해만 갔다.

이 우려감을 더 굳혀준것은 점심식사를 하러 들어온 어머니였다.

《리당위원장이 네가 농사일에 힘들어하지 않는가 묻더라.》

《...》

나는 응대없이 어머니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리당위원장이 그 불편한 다리로 거름집을 지는게 보기 딱하더라.》

그만두래도 듣지 않는구나. 본인은 일없다고 하지만 힘겨워하는것이 눈에 알려. 아마 조합적으로 우리 작업반 거름내기가 제일 떨어져 그러는가보다. 그래 우리는 여느때보다 더 부지런히 거름을 날랐다.》

어머니는 뭐라고 더 이야기했지만 그이상 나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점심식사를 하는동안은등 하고 작업반장을 찾아갔다.

《반장아바이, 난 오늘오후부터 일나가겠습니다.》

《아니 벌써 다 끝냈나?》

《아니요. 아직 못끝냈지만 밤에 짬짬이 쓰겠어요. 조합원들한테 죄스러워서 글이 안돼요.》

《원 사내자식이 속통이 그렇게 작아서 무슨 큰일을 치겠니. 다 토론이 있어 시간을 준건데 괜한 걱정을... 군말말고 끝을 바라.》

《아니 일하겠어요. 리당위원장까지 우리 작업반에 와서 거름집을 진다는데...》

《...》

《다리가 불편한 리당위원장동지까지 와서 거름집을 지는걸 보니 우리 작업반이 제일 뒤떨어진 모양인데 내가 지금 무슨 놀음을 하고있는지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나에게 시간을 보장해준 반장아바이 립장도 딱해지고요.》

《...》

작업반장은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눈가에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우리 작업반이 제일 뒤떨어져서 리당위원장이 와서 일하는게 아니다. 너에게 글쉴 시간을 주도록 의견을 준 사람이 바로 리당위원장동무이다. 조합일이 바빠도 명현이와 같은 청년들의 희망을 꽃피우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하면서 조합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현이 대신 자기가 조합일을 해주겠다고 했다.》

내가 만류했지. 명현이 대신 일해주지 않아도 농사일이 틀려질것이 없으니 제발 그만두라고, 그러나 어디 듣더라구.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이 당일군의 본분이니 본분대로 일하면서 명현이 뒤통도 대신하겠노라지.

낮에는 그렇게 조합일에 참가하고 사무처리는 밤늦게까지 하는가보더라. 리당사무실에 새벽까지 불이 있거든.》

(아! !)

작업반장의 말마디들은 나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아, 우리 리당위원장! 나의 취미를 계발시켜 뜻있게 살도록 추동해주고 말없이 뒤받침해주는 고마운 사람!

그제서야 나는 중학교 졸업후 1년여의 내 생활을 리당위원장과 련관시켜 한줄로 꿰어보며 내 삶의 길우에 찍혀진 뚜렷한 그의 자욱을 보게 되었다.

생활에 발을 붙이고 조직과 동지들의 방조속에 성실한 인간이 되도록 나를 깨우쳐주고 땅냄새 풍기는 실농군들속에서 살며 고향땅에 바쳐지는 그들의 말없는 진정을 글에 담을수 있게 이끌어주는 사람-박동진리당위원장!

참으로 그는 농사일과 농민들의 생활만이 아니라 매 사람들의 꿈과 지향도 소중히 여기고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한없이 고마운 어머니당조직의 참된 일군이였다.

내 가슴속 충격은 말할수 없이 컸다.

나는 그길로 오후 거름내기를 하게 될 분조밭으로 나갔다.

질통은 우정 지고나가지 않았다.

필경 오후에도 일하러 나올 리당위원장의 질통을 빼앗아지기 위해서였다.

그후 나는 극작가로 자라났다.

산골중에서도 벽촌인 우리 고향에서 이름있는 예술인, 수학자, 의사 등 유능한 일꾼들이 많이 자라났다.

이들모두는 20 여년을 우리 고향에서 리당비서로 사업해온 박동진동지의 지지와 후원 속에서 자기 재능의 싹을 자래워 활짝 꽃피운것이였다.

사회와 나라에 기여하는 재능의 뒤에는 언제나 이런 당일꾼들이 서있는것이 아닌가!

물론 고향사람들 대다수는 조상의 땅에 뿌리내리고 기사-실농군이 되어 일하고있다. 그 시절 나를 비판하며 도와주던 선길이는 지금 로련한 관리위원장으로 사업하고있다.

손님들을 맞으며

허창일

구라파손님들

아시아손님들

손님맞이로

손님 환영으로

내 나라는 오늘도 경사로구나

남에게 놀리워살던 지난날에서

일년 가야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던가

와도

람루한 모습 수난자의 설음

불가봐 보잘가봐 기막히더니

보여주고싶구나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령마루를 향해

온 나라가 《80년대속도》로 달리는 오늘은

이십리 날바다를 가로막은 서해갑문

넓어지는 간석지

늘어나는 살림집

프레스래도

제힘으로 만든 1만톤프레스여서 소중하고

화학섬유래도

제머리로 연구한 비날론이어서 자랑스럽고

두메산골 크지 않은 식료공장이래도

제 원료를 써서 더없이 보배스럽구나

보여주고싶어라

가슴을 쑥 내밀고

보여주고싶어라

보겠다는것은 다

아, 력사 반만년에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셨기에

모든것의 주인된 인민의 권리로

창조하고 떨치는

슬기를!

지혜를!

수천년 인류가 꿈꾸던 락원

계급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혁명의 본보기 이 땅에 펼쳐있어

세계가 찾아오는 조선

손님이 많은 내 나라

어제는 남아메리카손님들

오늘은 아프리카손님들

아, 아침에 와도 좋구나

저녁에 와도 좋구나

조국땅을 그대로 연단으로 삼고

우리 건설한 모든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온 세상에 강의하고싶구나

계급교양주제의 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하자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당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계급교양주제의 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급교양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계급교양주제의 문학작품은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로동계급의 계급적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이다. 계급교양주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학,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이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주제분야이지만 현시기 우리 문학에서 이 주제의 작품창작은 더욱 절실하고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정세는 의연히 긴장하고 복잡하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치열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고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인 남조선괴뢰도당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반대하여 침략과 전쟁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문제가 절실한 요구로, 당사상교양사업에서 원칙적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급적 원수들을 끝없이 증오하며 로동계급의 계급적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길수 있으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도 실현할수 있다.

계급교양주제의 문학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문제는 또한 우리 혁명의 국제적 환경이 매우 복잡한것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다.

오늘 지구우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의 책동이 날을 따라 더욱 우심해지고있으며 이에 편승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계급적 리념에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조류들이 횡행하고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수 없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이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안팎의

김정웅

정세가 매우 복잡한 조건에서 우리 작가들앞에는 계급교양주제의 문학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계급교양주제의 문학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여야 우리 문학이 당과 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으며 시대와 인민앞에 지닌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다할수 있다.

계급교양주제의 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것은 특히 우리 혁명의 대가 바뀌는 현실적 조건에서 더욱 중요하고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되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며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이고 어려운 사업이다.

여기로부터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확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로동계급의 계급적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교양하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원칙적 문제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지주, 자본가들과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등장하였다. 자라나는 새세대들, 청소년들속에서 계급교양을 힘있게 벌리지 않게 되면 그들속에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발로될수 있으며 불건전한 사상조류에 물젖어 계급적 각오와 투쟁의욕을 잃어버리는 엄중한 후과가 빚어질수 있다. 계급교양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들은 자라나는 새세대들, 청소년들에게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생동한 표상을 안겨주며 그들로 하여금 로동계급의 계급적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려는 혁명적 각오를 지니도록 하는데서 비할바없이 큰 감화력을 나타낸다. 이것은 장편소설 《붉은 지평선》, 중편소설 《금녀의 운명》, 장편소설 《땅》과 같은 문학작품들이 청소년들속에서 널리 읽히우며 그들의 계급의식을 복돋아주는데 이바지하는데서 여실히 실증되고있다.

작가들은 계급교양주제의 작품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주제의 작품창작에 시 커다란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계급교양주제의 문학작품을 훌륭히 창작하려면 창작가들이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의거하여 이 주제의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계급교양주제의 작품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의거하여 창작하여야 하는것은 계급교양이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형태이기때문이다. 계급교양은 혁

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려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적 관점과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로동계급의 리익을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건결히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계급교양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형태이므로 계급교양주제의 작품은 마땅히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창작되어야 한다.

계급교양주제의 문학작품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창작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계급의식을 높이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창작한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창작가들로 하여금 작품의 종자와 소재를 선택하는데로부터 예술적 형상을 창조하는 전과정에 걸쳐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립장과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고수할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은 계급교양주제작품의 정치사상성을 강화하며 그 예술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계급교양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실천적으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피괴도당들, 지주, 자본가 등 착취계급의 반동적 본질과 부패성을 예리하게 폭로단죄하는것이다.

작가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 본질을 폭로단죄한 작품들,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행위와 더러운 정체를 폭로단죄한 작품들, 남조선피괴도당과 매국배족의 무리들을 폭로단죄한 작품 등 계급교양주제의 작품창작에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문학의 사명의 견지에서 보나 우리 혁명의 요구의 견지에서 보나 우리 문학이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형상과업이다.

계급교양주제의 문학작품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창작하려면 이 주제의 작품에서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의 반동적 본질과 부패상을 예리하게 폭로단죄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있게 형상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형상적으로 구현하는 문제는 작품의 소재와 구성상 특성에 따라 각이한 방법과 수법으로 실현되어야 할것이다. 지난 시기 작가들은 계급교양주제의 작품에서 대비수법, 회상수법 등 형상수법들에 의거하여 착취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뚜렷이 형상하였다. 작가들은 계급교양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발휘된 형상수법들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우리 시대 사람들의 미감과 정서에 맞는 새로운 형상수법들을 끊임없이 개척해내야 할것이다.

계급교양주제의 문학작품을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창작하기 위하여 미학실천적으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근로인민출신의 인물들, 긍정적 주인공들의 높은 계급의식을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그리는것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에서 계급교양주제의 작품들은 단순히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의 반동적 정체를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 시대 계급교양주제의 문학작품들은 사람들에게 투철한 계급의식을 심어주며 그들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계급투쟁의 예리한 무기로 되여야 한다.

문학작품이 이렇게 되려면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의 반동적 본질과 부패성을 폭로비판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긍정인물들이 지닌 확고한 계급의식을 뚜렷이 보여주어야 하며 사람들이 계급적으로 각성되어나가는 과정, 계급의식을 소유해나가는 과정을 잘 그려야 한다.

원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은 긍정적 주인공의 성격을 창조하는것을 기본형상과업으로 하고 있다. 계급교양주제의 작품창작도 여기서 예외로 될수 없다.

물론 경우에 따라 지난날 착취사회현실을 폭로비판하는것을 작품의 기본사상주제적 과업으로 내세울수도 있으며 작품의 형상적 화폭의 중심에 긍정인물들을 내세우지 않을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계급교양주제의 작품에서는 근로인민출신의 인물이나 그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인물들의 계급의식을 뚜렷이 형상화하여야 하며 사람들이 높은 계급의식을 지니고 계급투쟁의 전위투사로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데 예술적 해답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여야 계급교양주제의 작품들이 사람들을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며 계급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교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높은 계급의식을 심어주며 로동계급의 계급적 리익을 고수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 있어서 본보기로 될만한 작품들, 교과서적인 의의를 가지는 작품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계급교양주제의 작품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창작하려면 창작가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과 계급적 관점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은 작가의 정신적 산물인것만큼 작가의 계급적립장이 뚜렷하지 못하면 근로자들을 계급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낼수 없다.

창작가들은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계급교양주제의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당사상사업의 전초병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나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오재신

어머니가 부르면 아기는 웃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아서 자꾸만 웃습니다

하지만 글썽 떨어졌다 만나서
어머니가 부르면 울음보를 터뜨립니다

아마도 잠시 떨어져있던 그 짧은 시간이
천년인듯 길었던것 같습니다

다시 못을 세월처럼 길었던 모양입니다
다시 못볼 얼굴인듯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아, 아기에게야 온 세상 다 준대도 못바꿀 어머니
나에게도 그러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품 없이는 못살 어머니가 있습니다
영생하는 삶을 준 어머니가 있습니다

운명도 미래도 그 한품에 다 맡기고
잠시도 떨어져선 못사는 어머니 우리 당!

아아, 나에게는 그 어머니뿐입니다
이 세상엔 오직 그 어머니뿐입니다

생 일 상

전병구

꽃이 웃는 창가에
유난히도 햇빛은 밝아
온 가정의 축복속에 생일상을 받아안은
아들아, 네 모습 그대로 꽃이런가

얼마나 행복한 이 아침이나
손벽치며 웃음짓는 네 모습
영원히 남겨두고싶어
사진사도 기쁨속에 셔터를 눌러라

어머니의 지성이 고인 상우에
이 아버지 기념품까지 놓고보니
문득 떠오르누나
생일이라 한알의 닭알을 밥상에 놓아주며
말없이 축복해주던 그늘길은 어머니의 그 모습

어머니의 그 사랑이 모자라
생일날도 그리히 눈물겨웠더니
내 철이 들면서
어머니 차려준 그 생일상에서
가난한 조국을 알았더라
조국의 소중함도 깨달았더라

아들아 사랑스런 내 아들아
밝은 해빛아래 더 활짝 피여라
평범한 나날에도 너의 생일은
무궁한 행복속에 꽃피는 조국의 하루!
한생토록 조국의 귀중함을 새겨가는
은혜로운 사랑의 하루!

제 도

김원선

달빛이 가장 진하게 비치는 늦저녁이다.

주위는 정적에 잠기고 탄광과 합숙사이의 길도 조용한데 한 청년이 스적스적 퇴근길을 걷고있다. 큰 키에 몸은 다부지지 못하나 모든 부위들이 탄력 있어보여 달빛아래서도 30 전후의 젊음이라는것을 얼른 알아볼수 있다.

청년은 영덕갱 책임기사 주천일이다. 이곳 탄광에 온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총각기사라는, 혹은 대학때 중앙급 체육대회에까지 출전한적 있는 룡구선수라고 벌써 사람들속에 소문이 퍼뜨르 난 사람이다.

그런데 주천일은 이 시각, 사생활을 두고 생각하거나 주위의 정서를 감수할 겨를이 없었다. 갱사무실에서 벌어진 《비상회의》, 장벽붕락사고를 일으킨 최정태소대에 대한 처벌, 금방 돌아본 그들의 일터 등 오늘 벌어진 일들로 그의 머리는 무거웠다.

주천일의 복잡한 생각은 또 한사람이 이 길우에 나타남으로 해서 깨여졌다. 미처 돌아볼 사이도 없이 등뒤에서 작게 들리던 발자국소리가 급작스레 커지더니 하나의 형체가 주천일의 옆에 와 멎었다.

《책임기사동지가 아십니까?》

목소리임자인즉 금방 책임기사의 머리속에서 뻐뚫던 최정태소대장이다.

《동무가 어떻게… 범이 제 소리 하면 온다더니 동문 생각만 해도 찾아오는구만!》

주천일은 너무도 신통하여 걸음을 멈추고 정태소대장을 쳐다보았다.

《그 말은 옳습니다. 전 정말 책임기사동지가 저를 생각할줄 알았지요.》

《내가 동무 생각하는걸 알았다! 그건 어떻게 알았소?》

《그거야 내가 책임기사래도 말쑥 많은 소대를 두고 먼저 골치를 앓았을걸요 뭐…》

《그렇소? 허 허…》

역시 그런데 없는 말이어서 주천일은 웃고말았다. 사실 그는 오늘 내내 최정태소대의 일로 다른데 신경을 쓸수 없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는 그들의 일터에 들어가보기까지 한터였다. 정태소대원들은 이미 교대하였지만 붕락이 졌던 그 작업장을 보지 않고는 퇴근할수 없었던 그였다.

소대장과 함께 걷는 주천일에게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 이 사람은 공장대학생이다. 그의 소대태반이 대학생인데 오늘은 공부를 하지 않는 날이다. 그러니 호실에서 휴식하든가 잠자리에 들었을

수도 있는 이 시각 그는 무엇때문에 이제야 퇴근하는것인가.

《동문 도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야 가오?》

주천일은 출퇴근길에서만 들고다니는 정태소대장의 가방을 넘겨다보며 물었다.

《비판을 받았으니… 봉창을 해야지요.》

어딘가 빼뚫어진 소리이다.

《비판받은 봉창이라니, 무엇으로? 어디서말이요?》

《기계를 뜯어고치자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공무수리직장엘 갔었지요.》

《붕락을 일으킨것이 기계때문이란말이요?》

《…》

최정태소대장은 입을 봉하고 대꾸가 없었다. 더 이야기를 나눌 흥미가 없다는 태도이다.

(기계를 개조할 생각이라… 그래서 공무수리직장에 찾아갔었던말이지!)

주천일은 무엇인가 허전한 생각이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자기보다 한뼘이나 작아보이는 정태소대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제대군인인 정태소대장은 원래 주뭉거리거나 에두르는것을 질색하는 청년이다. 모든 일을 그렇게 내밀고 소대원들에게도 그렇게 행동할것을 요구한다. 그에게는 체소하나 배짱이 세고 내밀성이 강해서 《정대》라는 별호까지 붙었다.

주천일도 그의 이름에 앞서 《정대》란 별호를 먼저 알았다.

주천일의 머리에는 불현듯 《비상회의》 광경이 떠올랐다. 《비상회의》란 최정태소대에서 채탄장벽을 붕락시킨데로부터 오는 후과를 토론하는 사고심의모임이었다. 회의는 갱장실에서 벌어졌는데 성준갱장은 장벽붕락으로 채탄기가동에 지장을 주고 생산량을 떨어뜨린 책임을 호되게 비판하였다. 최정태소대에 처벌이 적용되었다. 사회주의경쟁에서 제명한다는것, 생산을 중지하고 안전교양을 받으라는것이였다. 그쫘하고 회의가 끝났다면 다른 무리가 없었을것이다.

《최정태소대에 대한 규률적용에서 다른 의견은 없소?》

갱장이 이렇게 회의를 끝내려 하자 의견이 있다면서 불쑥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뜻밖에도 당사자인 최정태소대장이였다.

《우린 이미 붕락된 구간을 다 정리하고 채탄기를 돌리고있는데 어째서 생산을 멈추고 안전교양을

받아야 합니까? 경쟁에서 제명되는것은 별수 없지만 한순간도 생산초소를 떠날수 없습니다!》

회의장소는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정대》의 기질이 또 나온다거나, 그런 의견이야 조용히 제기해야지 해결될게 뭐가 하는 말소리들이 흘러나왔다.

《동무, 앉소. 동문 채탄기에 무리를 준것만으로도 그 기계를 돌릴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요. 두말 말고 결정한대로 집행하시오!》

성준경장은 얼굴이 벌개서 책상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소대장은 굵어들줄을 몰랐다.

《집행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건 우리 소대의 열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입니다!》

《뭐요, 동무-》

경장은 억이 막혀 더 말을 못했다.

그러루한 말들이 몇마디 더 오갔고 회의는 이렇다 할 결실을 보지 못한채 끝나고말았다. 두사람은 갱초급일꾼들이 다 모인에서 자제력을 잃고 욕신각신했지만 회의끝에 얻어진것이란 신통치 못했다,

바로 이렇게 회의분위기를 흐리게 한 사람, 일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규률적용이 공정치 못하다고 욕욕하던 그 모습으로 하여 주천일의 머리속에 더욱 인상이 깊어진 정태소대장이 이젠 또 무슨 봉창을 하겠다는것인가!

《따르릉-》

종소리가 났다. 길을 횡단한 철길로 기차가 통과한다는 신호였다.

퇴근하는 두사람의 가슴앞에는 가름대가 내려졌다. 주천일은 멈춰섰으나 소대장은 가름대가 가로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밑으로 빠져서 날래게 철길을 건너갔다.

《사람두... 봉락이 오는것을 알면서도 기계를 돌렸을거라는 말이 우연치 않군!》

주천일은 오늘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말이 생각나 고개를 끄덕이였다.

기차는 지나갔다. 먼저 건너간 정태소대장도 가지는 못하고 철길너머에서 책임기사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래 공무수리직장에 가선 뭘 토론했소? 뭐 방해이 쟈소?》

한참이나 구울러간 기차바퀴소리에 마음이 가라앉은듯 주천일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럽게 울렸다.

《뭐 진지한 토론은 못했지요. 이제 첫 걸음인걸요.》

《첫 걸음이라... 혼자서 걸을 작정이요?》

《우리 한개 소대가 행군합니다. 전 척후병이지요.》

알맞춤한 군사술어를 찾아쓰는데 만족한듯 소대장의 발걸음은 시원스러웠다.

순간 주천일은 일욕심이 큰 그에게 점점 호감이 가는 자신을 의식하였다.

사실 그는 정태소대장이 비판을 받고 위축되거나 앓을가 하는 위구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역시 그는 《정대》처럼 구부러들줄을 모른다.

탄광지구 밤의 특유한 정서인 벨트콘베아의 은은한 음향이 바람결에 실려왔다.

×

《최정태소대를 찾아볼것!》

책임기사 주천일이 세운 하루행동계획가운데서 밑줄이 그어진 부분이다.

어제저녁 주천일이 정태소대장과 함께 걸으면서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지는 못했지만 그에 대한 믿음은 새롭게 자라났다. 정태소대원들은 자기네 소대문제를 취급하는 회의가 있는 이후에도 장벽봉락을 막을 하나의 기술혁신안을 놓고 토론을 벌렸다고 한다. 소대장이 공무수리직장에 갔던것도 자기들이 생각한 방패동발개조안을 수리공들과 토론했을 목적에서였던것이다.

(어째서 그들은 좋은 혁신안을 내놓고도 갱장이나 책임기사에게는 말하지 않고 공무수리직장을 찾아다닐가.)

어제밤 소대장과 헤어질 때 느낀 감정이 되살아났다. 그들에 대한 믿음은 크나 한편 그들로부터 믿음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허전하였다. 생산자를 떠난 책임기사, 생산자들이 터놓고 이야기할수 없는 그런 일군의 존재가 무슨 필요가 있으랴! 어제 회의에서도 그렇다. 갱장은 회의를 결속했으나 소대장은 그자리에서 부정한다. 이것이 최정태소대장의 배짱이나 버릇없는 태도로만 단정할 문제겠는가...

어쩐지 길을 찾지 못한채 밤길을 걸을 때처럼 흐리멍텅하고 빈구석이 느껴진다.

그렇다면 성준경장은...?

주천일에게는 성준경장과 함께 지나온 나날들이 돌이켜졌다.

대학시절 주천일은 많은 탄광들에 가보았고 실습도 했는데 바로 첫 실습을 이곳 탄광에서 했었다. 그 시절 주천일은 대학생이고 성준은 채탄중대장이였다. 주천일이 난생처음 깊이깊은 지하막장에 들어갔을 때 성준은 그의 손을 덥석 잡고 조명등을 조절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갱일을 하나하나 배워주었다. 그때 주천일의 하얀 손에는 탄물은 성준의 손자리가 또렷이 났는데 주천일은 거기서 탄부의 체취를 느낄수 있었다.

그러던 주천일이 대학을 졸업하고 채탄기사로 일하다가 영덕갱 책임기사로 임명됨으로써 둘의 인연은 더욱 밀접해졌다.

《반갑소. 대학모표를 달고 지하막장에 들어왔을 때 앞으로 여기 와서 함께 일하자구 했더니 그 약속을 지켰나보군그래. 그때 우린 막장에서 만났는데 이젠 이렇게 땅우에서 만나게 되었구만!》

책임기사로 임명되어온 첫날 성준경장이 한 말을 의미있게 들으며 주천일은 그가 내민 손을 마주 잡았다. 그때는 반대로 주천일의 손에 묻은 탄가루가 성준경장의 손에 까만 자국을 냈다.

《아니 벌써 막장에 들어갔소?》

《전 경장동무를 막장에 들어가야만 만날줄 알았습니다.》

《그래? 허허...》

성준경장은 어색하게 웃었다...

바로 이런 성준경장, 실습때 탄광일을 가르쳐주고 일본새를 보여준 그가 오늘도 주천일이 따라배우고 함께 손잡고 일해야 할 일군이었지만 어제 회의에서 받은 인상은 그렇지 못했다.

《...그렇게 하는건 우리 소대의 열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입니다!》

정태소대장의 흥분에 젖은 목소리가 이 시각도 주천일의 귀를 쟁쟁히 울려준다.

주천일은 점심때가 가까와올무렵에야 시간을 낼수 있었다. 그가 정태소대의 채탄장에 찾아들어갔을 때 소대원들은 채탄기를 새 작업구간에 들여세우고 휴식하는중이었다.

안전모에 매단 조명등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그들이 있는 휴식터로 걸어가는데 갱도의 컴컴한 구석에서 야무진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셋! 누구야? 군호?》

퍽 애된 웨침소리이다.

갑작스런 소리에 주천일은 주춤했으나 그것이 곧 자기 소대원으로 알고 하는 장난임을 알수 있었다.

《군호를 모르니 통과할수 없겠군. 자 여기 서있을테니 어서 보조장에게 한놈 붙잡았다고 연락하우.》

주천일도 룡으로 받았으나 더 응대가 없기에 소리난쪽으로 불빛을 비쳐보았다. 애된 목소리가 튀어나온 구석은 벌써 비어있었다. 목소리임자는 어느새 휴식터로 달아나고 그대신 소대원들이 모두들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왜들 일어나오? 앉아서 쉽시다. 나도 다리섬을 좀 해야겠소.》

주천일은 그들까이로 다가가서 먼저 자리를 잡고앉았다. 사실 먼 굴속길을 걸어온터이라 다리도 아팠다.

모두 자리에 앉자 주천일은 늘 들고다니는 손가방을 열었다. 소대원들은 호기심어린 눈초리를 그 손가방에 모았다. 혹시 그속에 채탄기부속이나 소설책같은것이 들어있지나 않나 하는 눈길이다.

그런데 책임기사는 가방에서 풀색상표가 붙은 병을 꺼내고 다음에는 고뿌까지 꺼내는것이 아닌가!

《이게 뭔지 맞혀보오.》

《?...》

소대원들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새로 만든 술일차라는거요. 우리 탄광 마을 아주머니들이 일하는 식료가내반에서 만들기 시작했다는데 <탄부보약>이라고 할만큼 건강에 좋다 누만. 자, 함께 맛보고 좋으면 다량 신청합시다.》

그는 병마개를 따서 술일차를 소대원들앞에 내밀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 안되겠군. 자, 소대장동무부터 받소.》

소대장의 비위를 아는지라 먼저 권했으나 역시 주밋거리기에 보니 그는 탄물은 손을 작업복자락에 문대고있었다. 그래서 그의 입에 고뿌를 가져다대고 먹여주는데 그 모습이 우스워서 소대원들은 어깨를 들썩거렸다.

주천일은 이렇게 소대원들에게 술일차도 권하며 함께 웃기도 했지만 의연히 이자리의 분위기가 자연스럽지 못함을 느꼈다. 자기들끼리라면 스스럼없이 맛보자고 할 차 한고뿌조차 책임기사가 주는 것은 받아서는 안될 물건을 받는것처럼 송구해한다.

(내가 이 사람들과 다른것이 무엇인가. 연령도 비슷하고 로동년한으로 보면 나보다 오랜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대학을 먼저 나오고 직무가 다른뿐 이 동무들과 휩쓸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주천일은 허전한 기분상태에서 소대원들을 한 사람한사람 일별했다.

착암공, 동발공, 강력콘베아운전공... 소대원들의 얼굴을 낮익히던 주천일의 시선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나어린 청년에게서 멎었다.

《나한테 군호를 묻던 동무같은데... 이름이 뭐요?》

《리형술입니다.》

아니나다를가 그 애된 목소리였다. 시선이 닿을 때마다 귀밀을 살짝 붉히군하였지만 말은 씨원스럽게 잘했다.

《탄광에 언제 왔소?》

《한뼘이 꽤웁니다.》

《한뼘이라... 학교를 졸업할 때 최우등을 했소?》

《뒤... 9 점최우등을 했습니다.》

또 얼굴을 붉히며 《9 점최우등》이란 말을 거북하게 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천일도, 소대원들도 가볍게 웃었다.

《9 점최우등도 괜찮소. 최우등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소. 앞으로 10 점최우등 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 동무도 빨리 대학생이 되고 10 점최우등생도 되어보시오.》

주천일은 형술의 애어린 모습에서도 포부의 크기, 굳은 결심을 읽을수 있었다. 그것은 곧 인간의

육체만이 아닌, 지향과 담력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주천일은 다시금 형술이한테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 요즘은 무슨 공부를 하오?》

형술은 선뜻 대답을 못하였다. 그저 뒤더듬기만 굵적거리면서 《뭐 별루…》하고 얼버무리는데 같은 또래의 청년이 말에 끼여든다.

《이 친구 요즘 영화문학을 쓰고있습니다. 참, 제목을 달았나?…》

형술의 주먹이 옆구리를 찌르는바람에 청년은 입을 다물어버렸다. 영화문학이 어느 정도 씌여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제목을 달지 못해 수태 애를 쓴 모양이었다.

《좋은걸 쓰고있군. 우리의 노동생활을 담아서 훌륭한 작품을 써보오. 그럼 우리모두 한자리에 모여앉아 <영화문학 리형술>하는 자막이 새겨지는 영화를 보게 될지 알겠소.… 아니 꼭 그렇게 되어야 하오!》

이것은 주천일이 결코 건성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 천천란만하면서도 웅심이 깊은 청년… 여기 앉은 모든 소대원들에게 다 그런 포부가 있고 꿈이 있고 지향이 있을것이였다.

곧 작업이 시작되였다. 주천일의 모습은 이내 탄문은 정태소대원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이 되였다. 주천일은 방패동발의 움직임과 장벽상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했다. 그는 강력콘베아운전공도 되고 채탄기운전공도 되어 채탄구간을 부지런히 오갔다. 점심때 주천일은 정태소대원들과 한 식탁에 앉아 영양제식사를 하였다.

《동무들, 나도 이자 일을 하면서 장벽봉락을 막아볼 생각을 해보았는데 가능할것 같소. 보조적인 방패동발다리를 설치하고 각도를 임의로 조절하면 어떨겠소?》

식사후 휴식터로 돌아오면서 주천일은 탄부들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였다.

《책임기사동지도 그 생각을 했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빨리 기계를 뜯어고칩시다!》

《정대》의 기질이 또 나왔다. 소대장은 주천일이 무슨 완벽한 수라도 내놓은듯이 흥분하여 어쩔줄 몰라했다.

《나도 동무들과 마찬가지로 첫 걸음을 땀에 불과하오. 참, 소대장동문 척후병이라구 했지, 동무는 전방척후를 서고 나는 후방척후를 담당합시다!》

정말 군사작전이라도 하듯이 소대원들은 책임기사의 주위에 둘러앉았다. 주천일은 이자리에서 당장 구체적인 방책은 토론할수 없는만큼 소대원들에게 매 부분을 담당시키고 분공을 주었다. 형술에게도 방패동발에 대한 글이 실린 기술잡지를 읽으라는 파업을 주었다.

교대시간이 되어오자 주천일은 소대장을 불렀다.

《소대장동무, 형술동무가 썼다는 영화문학원고를 읽어봤소?》

《읽어보질 못했습니다.… 난 본시 그런데는 취미가 없어와서…》

정태소대장은 별썽 웃으며 대답했다.

《이건 소대장동무의 취미에 따르는 문제가 아니요. 일단 내밀지 말고 소대원들의 마음도 구석구석 헤아려볼줄 알아야 하오.… 그 영화문학을 나도 한번 읽어보겠소. 우리 함께 제목도 토론해보지요.》

형술이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책을 느껴서인지 아니면 책임기사도 함께 읽어보겠다는데 더 변명할 여지가 없어서인지 정태소대장은 얼굴에 긍정하는 빛을 띠었다.

주천일은 정태소대가 인계준비를 하는것까지 보고서야 막장을 뗐다.

소대장과 대원들!… 나이와 생김새, 취미와 기능이 서로 다르고 성미 또한 같지 않다. 하지만 그들의 지향선만은 한곳으로 나있다. 공업의 식량인 석탄을 더 많이 캐내여 어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릴 일념만은 강물의 흐름처럼 도도하게 흐른다.

주천일은 보이지는 않으나 역세게 뻗어있는 그 지향선에 발걸음을 맞추며 걸었다.



주천일이 갱밖에 나오니 서쪽 하늘가에 걸린 광주리만큼 퍼진 해가 아스랑게 높은 뽕뿌라나무며 갱건물의 연하고도 긴 그림자를 땅위에 새겨놓고 있었다. 해가 멀어짐에 따라 그림자들은 점점 더 길어지고 희미해졌다가 마침내 자취를 감추고 황혼이 모든것을 감싸버리기 시작하였다.

주천일은 불빛이 환한 갱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무실에는 성준갱장이 혼자 앉아서 문서장들을 책상가득히 펼쳐놓은채 전화를 받고있었다. 따지기도 하고 추궁도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얼굴표정은 그닥 변화가 없었다. 전화를 다 받고난 그는 안전모며 장화를 벗어놓는 주천일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또 굴길을 걸었군. 어느 갱에 갔댔소?》

《최정태소대에 갔었습니다. 갱장동문 막장에 못들어간 모양이군요.》

《막장이 다 뭐요? 여덟시간동안 요놈의 의자에서 영치도 못떼고있소.》

그의 말을 확신시켜주듯이 또다시 전화화소리가 따르릉거리며 방안의 공기를 뒤흔들었다. 먼 막장들에서 생산실적이며 2 교대전투조직정형이 전화선을 타고 갱장의 일지에 와 실린다.

갱장의 말과 행동들은 주천일의 온 신경을 사로잡았다. 그의 말과 같이 드바쁜 시간을 보내는 갱장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렇게 바빠 보내는 시간속에서 놓치는것은 무엇인가.

주천일은 오늘 막장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정태소대의 채탄장에서 갱장을 만날줄 알았다. 회의에서 것처럼 언성을 높여 두들겨패고 엄한 처벌까지

선포했는데 어떻게 한번 소대에 들려보지도 않고
웅근 하루 사무실에 앉아 지낼수 있으라...

어쩐지 막장과 갱장의 사무실이 몇백몇천미터
가 아니라 아득히 켄수 없는 거리로 느껴지었다. 그
거리를 전화가 려결시켜줄뿐이다.

한참만에 철커덕-하고 성준갱장이 수화기 놓는
소리가 울렸다.

《갱장동무, 전 오늘 막장에 들어가서 최정태소대
원들의 기세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판받은 사람
들 같지 않더군요. 그 동무들은 장벽봉락을 막을 방
도까지 찾아냈습니다.》

《글쎄 그게 문제요. 암만 서리를 맞아도 녹초가
될줄 모르니말이요.》

성준갱장은 정태소대이야기는 하지도 말라는듯
얼굴에 불쾌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주천일은 그런데는 아랑곳없이 갱장가까이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다.

《갱장동무두 참... 눈서리를 맞으면서도 꺾기지
아라는 그런 식물이 더 좋지 않습니까.》

《서둘러 부채질을 하지 마시오. 쓸데없는 불길
은 화재를 일으킬수 있다는걸 명심해야 하요.》

성준갱장은 낫색을 찌프린채 책상우에 놓인 서
류들을 되는데로 걸어놓았다. 몹시도 언짢은 기상
이다. 주천일은 말없이 창밖으로 눈길을 보냈다. 어
스름이 깃드는 탄광구내는 곳곳에 전등이 켜져 환
해졌는데 저탄장 벨트콘베어의 고르로운 소리가 창
문으로 흘러들었다.

잠시후 외부의 소음을 밀막으며 주천일의 목소
리가 울렸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 일군들
이 일을 잘하자는 생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해
결되지 않을 때, 그릇되었다고 여기고 대책을 세웠
는데 아래에서 의견이 있어할 때 어디서 원인을 찾
아야겠는가고말입니다. 그 원인을 아래사람들에게
만 밀어버린다면... 일군이 아니지요.》

《...》

성준갱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들이대는 책임기사
의 말에 억이 막혀 대답을 못했다. 하지만 주천일의
말소리에는 더욱더 날이 섰다.

《우리 일군들에게는 명령이나 추궁하는 기질이
아니라 뜨거운 심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산자
들에게 열정과 힘을 줄 높은 열도를 지닌 심장을
말입니다. 오늘도 느낀바이지만 우리가 좀더 일찍
막장에 들어가봤더라면 장벽봉락도 미리 막았을것
입니다.》

주천일은 채탄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구태
여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한 말을 통해서
도 주천일의 의도를 충분히 꿰뚫어본듯 성준갱장의
얼굴에는 노여움이 짙게 어렸다. 그는 이윽도록 책
임기사를 쓰아보다가 입을 열었다.

《난 갱장사업을 하루이틀 해온 사람이 아니요.
엇그제 갱장이 된 사람이 아니란말이요. (그것은 엇
그제 책임기사가 된 주천일을 로골적으로 빗대놓고
하는 말이였다.) 더구나 동무는 대학때 실습을 하면
서 함께 일해보지 않았소. 그때 우리는 늘쌍 막장에
서 일하다싶이했소. 하지만 지금 우린 탄부가 아니

라 갱장이며 책임기사란말이요. 사람마다 다 자기
위치가 있고 맡겨진 임무가 있지 않소.》

성준갱장은 무엇인가 더 말할듯하다가 입이 쓰
거운지 고개를 돌려버리고말았다.

주천일도 더 말하고싶지 않았다. 그에게는 책
임기사로 임명되어왔을 때 이제는 땅우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던 성준갱장의 말이 새로운 의미를 가
지고 돌이켜졌다.

(탄부가 아니라 갱장이라... 위치가 달라졌단말
이지!)

창문으로 저녁바람이 흘러들었다. 바람은 무척
시원하였으나 모욕감에 젖은 주천일의 얼굴은 달아
오르기만 하였다. 장벽봉락과 생산량의 감소, 갱장
의 문제처리, 소대장의 반발, 번잡한 갱사무실... 요
머칠사이에 겪게 되는 이 모든 현상들이 지휘관의
위치와 관련되어있다는것을 알게 된 순간 주천일은
환멸의 감정을 느끼었다.

(당은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갈것을 요구하는데
이런 위치타령을 한다는것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인가!)

주천일은 깊은 생각을 담아서 탄광구내를 벗어나
끝없이 펼쳐진 아득한 밤하늘에로 눈길을 보냈
다.



그처럼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사고
심의회의》가 있는지 사흘만에 같은 채탄장에서 같
은 일이 벌어질번하였다. 마침 최정태소대의 채탄
장에 나가있던 주천일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장
벽봉락을 방지했으니말이지 일만 육육 내미는 정태
소대장에게 주의를 돌리지 않았더라면 다시금 회의
를 소집하는 일이 벌어졌을것이다.

가뜩이나 화제거리에 잘 오르는 최정태소대의
일이라 소문은 한것을 못넘기고 갱안을 채우고 남
아 갱사무실에까지 날아들었다. 성준갱장은 말이
없었다. 다만 《책임기사, 어디 두고 보시오.》 하는
속대사가 숨배인 쓴웃음을 한번 웃었을뿐이다.

주천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
었지만 그는 방패동발개조문제에 불을 달았다. 그
는 저녁에 기술혁신안의 확정을 위한 기술협의회를
열었다. 방패동발개조안이 구체적으로 토론되어 당
장 필요한 부속들을 가공하기로 락착되었다...

이튿날 저녁녘, 막장으로 들어가는 인차안에는
두 일군이 앉아있었다. 인차가 퍼그나 달렸으나 둘
이 다 입을 봉한채 말이 없다. 인차는 갱도벽에 매
단 전등불빛을 병곳병곳 흘러보내며 막장깊이 들어
갔다.

《갱장동무와 함께 막장에 들어가자니 또다시 실
습하던 때 일이 떠오르는군요. 그때 갱장동문 전투
시작전에 꼭꼭 독보를 시켜서 탄부들이 땅속에 있
지만 항상 새소식을 먼저 알도록 했지요.》

주천일은 오래간만에 둘이 함께 인차를 타게 되
니 감회가 새로운 점도 있었으나 따분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싶어 말을 걸었다. 하나 그렇게 시작된
말이라 자연스러울리 없었다. 아닐세라 성준갱장의
입에서는 뉘틀린 말이 흘러나왔다.

《무슨 소릴 그렇게 하오? 거야 동무가 매일 신문을 가지고 들어와 읽어주어서였지 어디 내가 그렇게 조직했겠소?》

《그런데 참 오늘아침에 돌린 <전투속보>를 보았습니까? 청년갱에서는 일정총화를 막장에서 짓는다고 하더군요.》

주천일은 신문이야기가 벌어지자 사무실에서 보고 들어온 탄광의 《전투속보》 생각이 나서 말머리를 돌렸다.

《난 아직 보지 못했소.》

《다른 동무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갱장동무, 우리도 일정총화같은것은 막장에서 짓지 않겠습니까?》

《남이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하겠소?》

《합리적인거야 받아들이는것이 좋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지요.》

성준갱장의 스스럼없는 대답에는 그게 무슨 그리 큰 발기가 되어 그러는가하는 속생각이 담겨있었다.

《아예 우리 이자리에서 결정지읍시다. 갱장동무도 좋다면 래일부터라도 당장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장소는 다 준비되어있습니다!》

《?!》

성준갱장은 일순 얼굴에 놀라운 빛을 띠고 주천일을 쳐다보았다. 그 표정은 마치도 (이 사람이 도대체 날 어찌하는것인가)하는 그의 내심을 담은듯했다.

성준갱장에게는 책임기사로 배치되어오자마자 막장부터 찾아들어갔다 나온 주천일의 탄문은 손을 잡던 일과 일군들에게는 명령이나 추궁하는 기질이 아니라 뜨거운 심장이 필요하다고 열변을 토하던 일이 선하다. 그때는 그저 신입일군들에게서 흔히 있게 되는 일시적인 열정으로 간주했는데 일정총화를 막장에서 지으려는 그의 결심에는 이런 주관과 허영이 담길것 같지 않았다.

주천일은 성준갱장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싶었지만 《어힘, 어힘》하는 그의 헛기침소리만 인차 바퀴 구을음소리처럼 잦게 들려오므로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리고는 생각했다. 전투지휘일군들이 인차를 타도 이렇게 호젓이 앉아갈것이 아니라 탄부들가운데 앉아가야 제격이 아니겠는가! 탄부의 숨결로 숨쉬고 탄부의 목소리로 말하고 탄부의 생각을 담아 전투를 작전하고... 그렇게 되면 왜 일군의 명령이 아래에 먹여들지 않을수 있겠는가?

인차가 멎어섰다. 두사람은 인차에서 내려 굴이 갈라진 지점에 이르렀다.

《어느쪽이요?》

《이쪽 막장으로 옮겼습니다.》

최정태소대의 채탄장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주천일이 앞장서 걸었다.

최정태소대의 채탄장에 이른 그들은 의외의 광경에 놀랐다. 교대시간이 되어 두교대 성원들이 다

채탄장에 있었는데 그들은 방패동발을 뜯어내고 무엇인가 분주히 갈아대고있었다. 주천일은 그들이 방패동발개조에 달라붙었다는것을 알았다.

최정태소대장은 그들이 가까이 오는것도 모르고 일을 지휘하다가 누가 귀땀해서야 기름묻은 손을 씻으며 허리를 폈다.

《책임기사동지, 지금 소대는 방패동발다리 시험중에 있습니다!》

《가만, 지휘관이 왜 그렇소? 갱장동무와 함께 온걸 모르오?》

책임기사는 이렇게 통을 주고나서 정태소대장이 당황하여 돌아가는 모습이 우스워서 미소를 머금고 서있었다. 마침 성준갱장은 저쯤 떨어져서 장벽상태를 찬찬히 살펴보며 벨트콘베아를 따라 걸어가고있었다.

정태소대장은 일이 우습게 되어 난처한 빛을 띠우며 갱장에게 다시 보고할수도 없어서 주뺏겨졌다. 그러다가 생각난듯 옆에 놓인 도면을 집어들고 갱장한테로 다가갔다.

《갱장동지, 이걸 봐주십시오. 책임기사동지와는 이미 토론했는데... 방패동발개조도면입니다.》

소대장은 미리 갱장이 통을 놓지 못하게 하려는듯이 책임기사와 이미 토론했다는 대목에서 억양을 높였다.

성준갱장은 소대장이 내민 도면을 받아들고 찬찬히 훑어보았지만 이렇다할 말 한마디 없이 도로 주었다.

《어떻습니까? 되겠다든지, 안되겠다든지...》

정태소대장은 참지 못하고 다우쳐물었다.

《그렇게 꼭 찍어서 말해야 되겠소. 그건 동무들이 이미 토론을 거쳐 확신하고 달라붙은 문제가 아니요. 난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있소. 저 장벽을 보시오. 동무네 담당구간의 탄층은 봉락이 자주 오게끔 돼먹었소.》

《그건 저... 우리들도 알고있습니다.》

《뭘요? 전번 봉락사고를 냈던 구간도 이렇겠소?》

《물론입니다.》

《흥, 잘하오-》

성준갱장은 두눈을 홑뜨고 정태소대장을 쏘아보았다. 주천일은 갱장의 그 시선에서 장벽조건이 불리한 구간을 말아가지고 전투를 벌려온 정태소대원들의 뜨거운 열의에 소대장이 말하듯이 《찬물》의 작용을 논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는 자책의 심정을 읽을수 있었다.

《소대장동문 뉘치지 않소. 그러한 구간이면 응당 보고를 해야지 갱장이 어떻게 이런 사정까지 다 알겠소?》

《우리는 보고 안해도 갱장동지가 다 알고계시는줄 알았지요. 그렇지만 이제 저 방패동발다리만 개조되면 장벽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문제없습니다. 우리 <정태소대>가 담보를 모르게 됐지요.》

정태소대장은 멋적어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불러준 별호를 자기자신이 스스럼없이 불렀다.

성준경장은 이자리에 더 있기가 숨가쁘듯 소대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채탄장을 뒀다.

어느새 따라섰는지 주천일이 옆에서 경장의 걸음걸이에 맞춰 천천히 발을 옮겨놓았다. 저벅저벅 두사람의 발자국소리가 갱도벽을 울렸다.

《동문 떨어져서 저 사람들이 하는걸 봐줘야 하지 않겠소?》

《나갔다가 다시 와보겠습니다. 하긴 우리 없이도 저 동무들이 다 해낼겁니다.》

갑자기 커진 소음때문에 주천일의 말소리는 끊어졌다. 갱도에는 탄부들의 말소리며 웃음소리, 성급히 뛰어가는 발자국소리로 번잡했다. 교대한 탄부들이 인차장으로 가는것이다. 이어 인차 떠나는 소리가 멀어지다가 마침내 찾아들고 두사람의 발자국소리만이 또다시 갱도벽을 울렸다.

주천일은 끊어진 말을 잇듯이 다시금 입을 열었다.

《갱장동무는 정태소대에 규률이 없고 그들의 착안도 보잘것없는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전 그렇게만 보고싶질 않습니다. 그들에겐 결함도 있지만 일하는 열의는 대단합니다. 소대의 막내이인 형술이 까지 뭔가 자기의 지혜를 합치지 못해 안타까와하지요... 오직 생산을 더 많이 내기 위해 애쓰는 동무들입니다.》

《...》

갱장은 여전히 잠자코 걸었다. 말없는 가운데 몇미터 더 전진했다. 다시금 주천일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지휘관들이 자기가 배부르고 더울 때에도 아래사람들이 배고프고 추울수 있다는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가르치심입니까? 그런데 저도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일하지 못했습니다. 아래사람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있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말하자면 생산조직을 책임진 사람이 생산자들의 정신상태를 모르고 일했지요.》

《그만하오!》

이윽고 성준경장이 한마디 했다. 주천일은 더 말하지 않았다.

인차가 이미 떠났으므로 두사람은 걸어서 나가야 했다. 하지만 둘중 누구도 인차를 놓쳤다는 생각,

먼 굴속길을 걸어갈 걱정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인차장이 멀어지자 갱도벽에 매단 전등도 없어 굴속길은 끝간데 없이 캄캄했다.

두사람은 어느덧 먼 굴길을 걸어 밖에까지 나왔다. 어느새 밖은 캄캄해져서 굴속이나 별반 다름이 없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담배를 붙여물고 갱사무실쪽으로 걸어갔다. 그들의 손에 들린 담배불만이 포물선을 그리며 흔들거리고있었다.

뒤에서 저벅저벅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급히 주천일의 옆을 지나가다가 걸음을 늦추었다.

《책임기사동지구만요. 담배불을 좀...》

낮교대를 한 채탄기운전공이었다. 담배불이 없었던지 그는 주천일을 알아보고 그의 담배불을 빌리려다가 옆에 선 갱장을 보고는 움츠러들고말았다. 그러거나말거나 잘각 하고 라이타 켜지는 소리가 울리고 채탄기운전공앞에는 한점의 불꽃이 피어났다. 한데 그 라이타는 갱장의 손에 들려있었다.

《어서 불이오! 그래야 나도 동무들한테서 담배불을 얻어불일게 아니요.》

성준경장의 목소리는 뜨겁게 울렸다.

채탄기운전공의 무안해하면서도 감동에 젖은 얼굴표정이 불빛에 드러났다. 그는 앞서 갔다.

다시금 둘은 구내길을 걸어갔다. 말밑천이 드러난듯 한참만에 성준경장의 입에서는 전혀 탄말이 흘러나왔다.

《책임기사동무, 어디 봐둔 처녀는 없소? 갱일뿐이 아니라 자기 살림꾸릴 생각도 해야지!》

성준경장의 말은 통담같으면서도 진정이 담겨있었다.

《관심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내가 관심하기전에 벌써 탄부들이 걱정한다고 하오. 그걸 알기나 하오?》

《?!》

주천일은 얼굴이 달아와 아무 말도 못하였으나 가슴속에 받아들이는 충격은 컸다. 보이지는 않으나 사업과 생활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시키는 일군과 생산자의 뜨거운 교감을 그는 느꼈다. 그 교감이 이끌리듯 두 일군의 발걸음은 기운차졌다.

쿵쿵-막장깊이에서 울리는 발파음이 그들의 걸음을 재촉하는듯싶었다.

탁월한 령도에 대한 서사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 사업에서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품모의 위대성을 인식 시키는데 기본을 두어야 합니다.》

우수가 지나고 경칩을 바라보는 대동강의 얼음이 터갈라지던 어느날, 우리는 조선문학창작사 평양시 창작실 시인 동기춘을 찾아갔다.

그것은 추고작업을 끝내고 출판단계에 이른 그가 쓴 장편서사시 《고요한 바다》에 대한 창작경험을 듣기 위해서였다. 이 서사시로 말하면 날바다 한복판을 가로막아 서해갑문을 일떠세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시형상에 담아 노래한것이였다.

서해갑문이 건설되던 그때를 생각하는듯 시인의 얼굴표정은 근엄하였다.

《현실에 들어가보니 보고 느끼는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가슴이 좁아서 짐짓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서는 못건딜 심정이였지요.》

서해갑문 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일한 그때를 돌이켜보는 시인의 어조는 흥분에 떨려있었다...

저녁부터 일기 시작한 바다바람이 저 멀리 은물땅 우중충한 산들너머로 비구름을 몰아갔다. 구름들이 흘러간 뒤로는 별들이 총총한 밤하늘이 나타났다.

밤이 깊어갈수록 건설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육중한 발전기가 들어앉을 언제물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여갔다. 저기 타빈실에서도 속도전의 불바람이 일고있다.

번뜩이는 용접불빛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자는 대형구호판들이 환하게 드러났다.

시인 동기춘은 밤이 깊어가는줄도 모르고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열정에 넘쳐 언제타입장에서 일하고있었다...

감회깊은 그때를 회고하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하에 어제날까지 사납게 파도치던 날바다우에 오늘은 조국의 력사를 장식하는 대기념물이 창조되고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의

평범한 나날의 로동이 조국의 력사속에 빛나게 기록되고있다는 그것이였습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망망대해 한복판을 가로질러 뻗어간 서해갑문정경이 우뚝이 떠올랐다.

시인의 말은 계속되였다.

《제가 건설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깊이 느낀것이 생활이야말로 서사시를 준다는 그것이였습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업도 생활속에 있고 또 위대한 위업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주인공들도 생활속에 있는것입니다. 위대한 위업이 생활속에서 펼쳐지는것과 함께 그 위업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충성심도 바로 생활속에서만 빛납니다. 저는 현실에 침투하여 건설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실생활을 통하여 령도의 위대성을 체득한 작가만이 좋은 글을 쓸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웁은 말이였다.

오늘의 사람들은 위대한 령도따라 지칠줄 모르고 달리고있다. 그들은 시대가 자기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고있다. 실로 현실은 우리 작가들의 짓줄기이고 어머니인것이다.

우리는 탁월한 수령의 위대한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유명무명의 혁신자들의 초상으로 풍만해질 우리 문학을 그려보았다.

《이 나날속에서 저는 우리 문학을 깊이 알게 되였고 시인으로서 더 성장하였습니다. 서해갑문이 완공된 그날, 저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영광을 지니였습니다.》

정녕 우리 작가들처럼 행복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것이다. 그들은 보람찬 일터에서 현실체험을 하며 우리 문학의 자랑스러운 화원을 가꾸고있다.

참으로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사는 시대에 사는 우리 작가들만이 받는 혜택인것이다.

우리는 시인 동기춘동무의 장편서사시 《고요한 바다》가 하루빨리 독자들의 손에 쥐여지기를 바라면서 창작실을 떠났다.

본사기자

법 칙

-한 로탄부가 들려준 이야기중에서- (제 4 회)

정창윤

이들이 지나갔다. 고통스러운 이들이었다. 현모는 갯내 휴게실의 딱딱한 나무결상우에서 자고 깨면서 말 한마디 없었다. 나를 보면 시선이 부딪칠까 봐 머리를 떨구거나 돌려버렸다.

그동안 것처럼 열성을 기울여 관찰하던 라선동발이나 벽면 석탄층의 상태변화에도 별로 관심을 두는것 같지 않았다. 깊은 생각속에 잠기어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앉아있다가는 기술과에서 갖다보던 자료철들을 죄다 도로 가져가고 새로운 자료철들을 들고와서 들여다보곤하였다.

나는 예리한 눈으로 현모를 살피고있었다. 그의 속생각도 알아맞춰보려고 애썼다. 나로서 바라는바는 이제라도 그가 나에게로 와서 《형님, 전진합니다. 제가 앞장에 서겠습니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이들이 지나도록 말 한마디 없었다.

나는 갯밖으로 나가 기사장실로 간 틈을 리용하여 그가 새로 가져다놓고 보는 자료문서철을 보았다. 그리고 몹시 놀랐다. 그것은 전혀 뜻밖의것이였다. 그것은 혁신갱의 8번구역 자료가 아니라 북산갱의 우측지대에 대한 자료들이었다. 나는 머리에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 그결에 퍼놓은 현모의 사업일지장을 들여다보았다.

...오늘 북산갱의 우측지대로 시험지를 옮기기로 결심함. 자료연구에 착수, 자료는 세부측면에서 매우 부족함...

나는 북산갱의 우측지대가 어떤 지대라는것을 잘 아는 사람이여서 한동안 전기줄에 붙어서 떨어지지 못하는 사람처럼 움직일수 없었다.

북산갱 우측지대-건드릴수 없는 지대로 알려진 석탄매장지, 현모의 생각이 그리로 뻗었다만인가?

300 만톤의 일등급 기름덩어리탄들로 가득차있는 북산갱의 우측지대는 여러가지 의미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는 생탄밭이였다.

덕향골울림밭이 40 리 골짜기를 막아버린 북산은 해발고가 1,400 이나 되는 지대이다. 이 북산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예전엔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외통도로를 따라 덕향골로 들어오면 그때엔 이 세상 모든것과 인연을 끊어야 했던것도 이 북산서쪽으로 트인 길이 없었기때문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북산일대는 반세기전까지만 하여도 울울창창한 원시림으로 뒤덮여있었다.

참나무, 이깔나무, 머루와 다래... 봄이 되면 북산을 장식한것은 진달래였다. 여름에는 폭이 넓어지고 힘이 세진 계곡수가 떨어져내리며 층층을 이룬 바위들을 치는 소리도 소리였거니와 튀어오르며 뿔뿔이 흩어진 물방울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양은 그대로 구슬을 뿌려놓은듯싶었다. 범도 많고 메돼지도 많아 포수들이 찾아들기는 하였으나 밭을 불이기가 어려워서 오솔길조차 내지 못한곳이었다.

이렇듯 험한 고장이였으나 략탈에 미쳐돌아가는 왜놈들은 놓치지 않고 밀려들어와서 탄광을 개발하였다.

《조선무연탄주식회사》란 간판을 내건 강도집단에 의하여 북산이 뚫리기 시작한것은 이때부터였다.

왜놈들은 유치하기가 비길데 없었던 당시의 탐사방법으로나마 이곳이 석탄자원으로 가득차있다는것을 알아내었다. 놈들은 하루 한끼도 얻어먹지 못하고 방랑하는 실업인부들을 모집하여다가 석탄굴속으로 들이밀었다.

《조선무연탄주식회사》는 처음엔 북산 하나만을 개발하였으나 후에는 덕향지구의 모든 산들을 개발하였다.

인적기도 없이 적막하였던 덕향골안엔 철도가 들어오고 2,000 여호나 되는 주택들이 들어섰다. 술집들이 찾아들어 색등들을 켜놓고 불쌍한 탄부들의 주머니를 털어내었다. 일년이 가고 또 일년이 가는 사이 덕향골안의 인종은 늘어만났다. 교대때마다 탄부들은 굴아구리가 미여지게 엇갈려들어가고 나오곤하였다. 아무런 로동보호시설도 없었던 막장들에서는 굶주린 사람들이 곡괭이질을 하다가 천반

에서 떨어지는 돌에 맞아죽고 사래처럼 쏟아져내리는 탄에 묻혀죽었다. 북산갱에서는 하루에 2 명이나 3 명이 죽거나 병신이 되어 들것에 실리어 나오곤하였다. 어떤 날엔 10 명이나 15 명이 무리죽음을 당하는 참사가 벌어지곤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극적 기록을 남긴것은 1939 년의 출수로 인한 대집단 인명피해였다. 북산갱의 우측지대 초입마구리에서 터진 물은 강물처럼 쏟아져내려 그날 입갱하였던 탄부들중 한사람도 살아나가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북산갱의 우측구역은 건드릴수 없는 구역, 건드려서는 안되는 구역으로 되어 그속에 묻혀있는 탄은 못본체하던가 망각해버려야 하였다.

왜놈들은 개발초기 북산갱의 좌측지대에만 집중하여 탄을 캐내다가 얼마 안있어 우측구역으로 달려들었다. 그것은 우측구역의 탄질이 놀랄만큼 좋은 기름덩어리탄이라는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놈들은 우측초입지역의 첫 마구리를 헤쳐먹다가 물구멍이 터져 물러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때부터 북산갱 우측구역에 대한 많은 말들이 만들어졌다. 그중에서도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어 오늘날까지도 전해져내려오는것은 《북산속의 호수》에 대한것이였다. 그에 의하면 북산갱속의 우측상부지대엔 석탄밭고도 금은보화가 헤아릴수 없이 묻혀있는데 이것으로 하여 먼 옛날에도 외적들이 자주 쳐들어왔다는것이다. 그렇지만 그 외적들중 이 금은보화를 탐내어 굴을 파던놈들은 한놈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는것이다. 북산속엔 돌레가 오리나 되고 깊이가 사람키의 일곱배나 되는 호수가 있어 출렁이다가 강도들이 달려들면 물벼락을 뒤집어썩워 귀신으로 만들어버린다는것이였다. 북산지하호수는 수십년만에 한번씩 옷뚜껑을 열고 달빛도 안아보고 별빛도 받아들어 제 품에 안고있는 금은보화가 빛을 뿌려보게 하는데 그것은 누구나 다 자는 깊은밤에만 있는 일이어서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것이였다.

1939 년의 비참한 출수피해가 있었기때문에 이 전설같은 이야기는 곧 진실로 인정되어 악착한 략탈자들인 왜놈들도 이 구역을 외면해버리게 되었다.

해방후 1948 년에 이 지대에 파견된 지질조사단이 북북산(북산 우측지대를 이렇게도 부른다.)내부 지질상태를 여러날에 걸쳐 탐사하였다. 그때 지질조사단은 북산호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많은 측면에서 긍정하고 돌아갔는데 그 긍정면이란 상당한 량의 물이 틀림없이 이 산속에 있다는것이였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보다 훌륭한 탐사기구들을 준비하여가지고 다시 울것을 약속하였으나 조국해방전쟁으로 하여 그 약속은 실현될수 없었다.

전후엔 매우 급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될 지대들이 많았기때문에 북산탐사에 큰 역량을 돌릴수 없다가 차츰차츰 새로 편성한 지질조사단을 한두집단씩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어느 조사그룹이라도 북북산의 지하수량을 정확히 계산해내지 못하였다. 파견되어왔던 지질조사단들은 자기식 나름으로 북북산의 지하수량을 계산해내기는 하였으나 그 어느 계산결과도 신뢰성이 있는것은 아니였다. 그럴수밖에 없었던것은 아직 북산지하수의 분포상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있었기때문이다.

북산의 지하수가 암석의 전체 단면을 지나흐르는것이 아니라 균열을 이룬 틈을 따라 흐르기때문에 여기엔 아무런 규칙성도 없었고 또 그 계선을 확실하게 그어버리기도 곤란하였다. 세부조사로써 그것을 밝혀내려고 하였지만 매우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를 이루고있기때문에 지하수이동상태를 알아낸다는것은 힘든 일이였다.

이런 형편에서 북산갱 우측지대에 새로운 탄밭을 마련할 설계를 할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수문지질계의 큰 연구집단이 파견되어와서야 북산내부상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였다.

정확한 조사라고는 하지만 그 역시 상대적인것이였다. 오늘날까지도 의연히 북산 우측지대로의 진출통로는 갑론을박상태에서 확정되지 못하고있다.

이러한곳으로 현모가 자기의 라선동발을 이끌고 가려 한다.

기사장실로 가서 무엇인가 토론하고 온듯한 현모가 휴게실에 들어섰다. 나는 주인없는 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적이다가 들킨 사람처럼 어색한 표정을 짓고 그를 바라보았다.

《저를 기다렸습니까?》

《그렇네. 자네 결심이 달라진것 같아서 말 좀 하려구.》

《...》

현모는 내결에 앉기는 하였지만 널상우에 퍼놓은채 갔던 북산갱 자료철들의 폐지수가 넘겨진것들을 바라보면서 대답하기를 서두르지 않았다.

《이것들은 어째서 갖다 보나? 북산갱 우측지대 탐사자료들말일세.》

나는 이 말을 물으면서 요 이틀사이에 처음으로 현모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순간 그의 시선에서 심한 번뇌끝에 지친듯한, 그러면서도 날카로운 빛이 번뜩이는것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그가 나로부터 가혹한 비난을 들은 이래 이틀낮, 이틀밤을 끝없는 고민속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다가 그 어떤 비장한 결심을 품게 되었음을 알게 하였다.

《저는 북산 우측지대에서 50 메터의 시험구간을 돌파할 결심을 하였습니다.》

현모의 목소리는 흥분기때문에 약간 떨렸다.

《자네 거기가 어떤 지대라는것을 충분히 파악했나?》

《아직은 완전한 파악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조건들과 맞서게 되리라것만은 알고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압이

센 출수지역들을 극복해야 하고 물주머니들을 가르며 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지압의 끝없는 위험과 암석층이 련속될 수도 있습니다.》

《...》

나는 현모의 결심을 바꾸도록 해주고 싶은 심정이 불같이 타올랐다. 탄갱속에서 한생을 보낸 나로서도 감히 용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결심을 그가 하게 된 것이다.

현모는 확실히 자신의 나약성을 극복하였다. 그렇다하여 이처럼 모험의 길로 자신을 채찍질하여 내몰 것까지는 없을 것이다. 라선동발로 말하면 아직은 그런 험한 지대조건에서 견디어낼 만한 담보를 주지 못하였다. 하거늘 이것은 때이른 감을 주었다. 그때문에 나는 그가 결심을 바꾸도록 해주고 싶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현모를 아끼는 나의 마음이였다. 나는 현모를 그런 험한 곳으로 들여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나 자신이 그리로 들어가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전부 아는 그런 험지에 현모가 들어가서 매시각 죽음과 싸우라고 내버려둘 마음은 손톱논만큼도 없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 난 자네가 보다 복잡한 지질조건이 있는 지대로 시험지를 옮기는 데 찬성인데. 그런 구역은 복산갱 우측지대 말고 또 얼마든지 있네.》

나는 진정을 담아 애원조로 간청하듯이 하였다.

《인젠 늦었습니다. 저는 요 이틀사이에 자신을 돌이켜볼 대로 돌이켜보았습니다. 형님은 물론 가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혹성속에 깔려있는 사랑과 참삶에 대한 뜻을 그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예전에도 형님은 저를 끌고 폭탄웅덩이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덕분에 저는 망나니로부터 모범탄부로 되었는데 늦었습니다. 이번엔 형님이 저의 가슴속에 참다운 당의 과학자로 될 수 있는 량심과 의지를 주었습니다.》

《...》

현모의 말은 나의 가슴속을 뜨겁게 덥혀주었다. 그의 말소리는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였다. 나에게 있어 이 순간은 행복한 순간이기도 하였다.

《형님은 제스스로는 도저히 내릴 수 없는 결심을 제스스로 내리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는 어제밤에 만메터상공으로 시험비행을 떠나는 비행사를 생각하였습니다. 이곳 탄광기사는 내가 현지시험지를 달라고 했을 때 실패한 거듭 해오면서 중년이 되어버린 벼의 성공을 위해 가장 지질조건이 좋은 탄밭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고마운 벼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조건에서조차 겁을 내던 저였습니다. 고공이 아니라 저공에서 시험비행을 하면서도 떨었습니다. 이젠 수치며 과학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발명품의 선전목적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지까지 자기를 끌고가서 비판해보았습니다.》

《...》

침착한 허지만 흥분기를 가시지 못한 현모의 어조는 내 가슴속 구석구석에 자극적인 점을 찍으며 스며들었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와서 여러 번 얼굴을 돌리었다.

《저는 라선동발을 그 어떤 위험속과 그 어떤 복잡성속에서도 견디어내는 그런 것으로 완성하려고 합니다. 오직 이 하나의 목적때문에 가장 어려운 구간을 시험지로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험하다가 복산갱속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는 않겠습니다.》

현모는 말을 마치더니 내 담배팩에서 담배 한대를 꺼내어 피어물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담배를 입에 대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가 지금 얼마나 비장한 결심을 품었는가를 다시 한번 더 알게 되었다. 우리 두 사람사이에서는 잠시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더이상 현모의 결심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은 이제부터 현모의 새 결심 실행을 방조해주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보았다.

《그럼 래일부터 8 번째탄장은 털기 시작할가?》

《그랬으면 합니다. 그보다 앞서 형님이 저를 위해서 해주어야 할 일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건 박필명선생을 방문하여 조언을 듣도록 해주는 겁니다.》

덕향탄광의 산 력사라고 말하는 박필명기사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현모가 안것은 오늘 전성교기사장을 통해서였다. 인제는 늙고 병든 70 고령의 로인이 되어 집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그는 석탄계 지성인들중에서 년조로 보아 최년장자로 알려져 있다.

왜놈들이 덕향지구를 개발하던 초기기부터 이곳에서 근무한 그는 덕향의 력사는 물론이고 덕향탄전의 지질구조나 갱내 조직들을 할것없이 환히 꿰뚫고있는 사람이였다.

덕향의 해방전후나 전쟁전후의 크고작은 갱건설 설계치고 이 박필명기사가 관계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다. 그 하나하나의 설계는 다 직접 그 자신이 설계하였거나 그에 의하여 검토되었다. 대학교과서도 여러권 집필하였고 채탄분야에 종사하는 기사들이 품에 지니고 다니며 언제나 읽어야 될 두툼한 참고서들도 여러권 썼다.

박기사가 활동하던 시기엔 그를 만나기 위하여 과학원의 학자들과 대학교수들이 자기네 논문들의 의견을 받아보려고 이리로 수없이 다녀갔다.

그를 소환하려고 학계와 부, 위원회들에서 무척 애를 썼지만 그는 끝내 덕향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덕향을 떠나지 못합니다.》

소환을 거부할 때마다 그는 이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말속엔 그가 덕향에 내린 뿌리의 깊이와 덕향을 사랑하는 심장의 뜨거움이 담겨있어 상대방들도 더는 그런 말을 내비치지 못하였다.

현모가 갱에서 일을 하던 때는 박기사의 명성이 최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그를 찾아 중앙급과 도급 일꾼들이 끝없이 왔고 학계의 인사들이 끊임없이 왔었다. 그리고 탄광내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

은 모든 일들에 관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현모와 같은 애 어린 청년탄부와는 면목을 익힐 경향이 없었다.

이제 현모가 북산우측지대로로 자기의 시험지를 옮기면서 그로부터 필요한 조언들을 들으려고 만나고 싶어하였다.

나는 현모가 그를 만나도록 해주기 위하여 저녁에 찾아갔다. 심한 기관지천식증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는 이불을 포개여 벽에 붙이고 거기에 의지한채 글을 읽고있다가 내가 찾아온 연유를 알고 쾌히 응해주었다.

그리하여 다음날 나와 현모가 그를 찾게 되었다. 탄광기사장 전성교도 매우 바쁜 몸이지만 우리와 동행하여주었다. 그자신 자주 탄광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들고 찾아가서 이 늙은이의 방조를 받고 있는것이다.

우리가 들어섰을 때 로인은 예전과 같이 이불을 포개여 벽밑에 놓고 거기에 기대어앉아서 무슨 책을 읽고있었다. 그 책이 오래되어 종이색갈마저 변한데다 활자나 제본형식도 달라서 궁금했으나 뚜껑이 없어 무슨 책인지 알수가 없었다.

《이 책은 왜놈총독부가 출판한 조선지질자원보고서입니다. 조선전문가라는 일본인학자들이 자원탐사정형을 쓴 글들을 종합한거지요.》 로인은 우리가 그 책에 관심을 보이자 제 먼저 알려주었다.

《오래된 책이군요.》

《요즘 나는 일본학자들 말고도 외국인학자들이 조선지질에 대하여 쓴 책들을 읽고있습니다. 짧은 시절에도 읽었던 책들입니다.》

그때에도 필요한 책들은 여러번 반복하여 읽어드렸습니다. 하지만 늙어버린 지금에 와서 다시금 읽으면서 놈들에 대한 증오심이 얼마나 크게 타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로인은 기침이 터질가봐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였다.

《그 외국인들이 덕향지구에 대해 쓴 자원조사보고서도 있습니까?》

기사장이 물었다.

《있지요. 일본놈들도 있고 구라파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대목을 읽어드릴까요.》

로인은 벗었던 두터운 렌즈의 돋보기를 다시 걸더니 읽던 페이지를 접어놓고는 앞부분을 뒤적거린후 어느 한 대목을 찾아내었다.

《덕향일대엔 질 좋은 무연탄이 두텁게 깔려있다. 우리의 탐측자료에 의하면 이만한 부탄층의 매장지는 본토(일본)에는 거의 없다. 북산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16키로미터구간은 완전한 탐사로 확인된 곳이다. 거기서 벗어난 린접지대들도 식물학적 징후나 암석학적 징후로 보아 상당한 정도의 석탄이 매장되어있는것으로 추측된다.》

우리가 만일 조선을 영원히 통치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 일대의 석탄을 채취하는데서 선택적인 방법은 피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선택채굴을 한다면 일시적인 출탄량은 많을수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탄은 잃어버릴수 있기때문이다.》

로인은 여위여서 종이장처럼 얇아진 살가죽이 썩어져있는 자그마한 손에 들고있던 책을 내려놓은후 한동안 자기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그렇지만 조선을 영원히 통치할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그들은 마구 뜯어냈지요. 몇개의 갱을 만들고 선택채굴을 했을뿐입니다. 갱내작업설계조차 선택채굴을 전제로 했으니깐요.》

《...》

조국자원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높은 이 성실한 기사의 맑고 낮은 목소리는 우리에게 서정가요의 선율처럼 부드럽게 들려왔다.

《슬픈것은 오늘도 자기들의 조국자원을 채굴하면서 채취률을 높이지 못하는겁니다.》

《...》

로인은 길게 탄식의 한숨을 내쉬고 우리는 생각되는바가 깊어 눈을 반쯤 내려감았다.

《보다 참을수 없는것은 과거의 략탈자들은 선택채굴을 목적으로 한 설계에 의거했지만 우리 사람들은 완전채굴의 설계대로 굴진을 해놓고도 채취률을 높이지 못하는거지요. 이건 우리들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 기사들과 과학자들은 새형의 채탄기들과 동발을 아직도 연구해내지 못한데 대하여 강한 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로인은 격하여 어성이 높아지려는것을 가까스로 누르고있었다.

그속엔 이 땅의 기사로 한생을 바친 자신을 두고 책하는 감정도 있다는것을 알게 되어 우리는 더욱 무거워지는 기분이였다. 이 정직한 로인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대로 우리의 가슴속에도 자책의 그림자를 던져주었다.

《선생은 이 늙은 사람이 ...》

하고 박필명기사는 현모쪽을 보며 하던 말을 이었다.

《이 늙은 사람이 조국의 채굴전선에서 한생을 보냈건만 한일이 없는 자신을 두고 꾸밈이나 하는것으로 듣지 않는지요?》

《공연한 말씀입니다.》

현모는 곧바로 앉은 자세에서 머리를 약간 숙여례를 표하였다.

《어제 오교관으로부터 선생의 라선동발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젠 집에 박혀서 기침약이나 먹고보니 선생같이 희생적인 과학자가 우리에게 있다는것조차 몰랐습니다. 선생과 라선동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막을 알게 된 어제저녁엔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흥분이 지나쳤던것 같습니다. 저- 뭐라고 할가요. 우리 시대의 큰 숨결과 창조적 기적을 두고 다시한번 충격을 받았다고 할가요. 대단한일을 벌리고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기사는 역시 품위있게 처신하며 말하며 생각할줄 아는 사람이였다.

《과분한 말씀을 듣고보니 송구해집니다.》

박기사는 자기옆에 두루말이를 해놓았던 북산갱의 우측 지질도를 펼쳐놓았다. 백로지 한장에 널직널직하게 북산갱 우측일대의 지질층과 수문지질상태를 그려놓은것이다. 나와 기사장과 현모가 그 끄트머리 한귀씩 잡고 들여다보았다.

《이건 선생이 찾아오신다기에 제가 밤에 그려본것입니다. 자료적 기억과 상상력을 동원한 북북산내부도이지요. 이젠 기억력도 상상력도 전갈지 않아서 약간의 오기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는 70 고령의 박기사가 이처럼 북북산의 내부상태를 아직도 그대로 기억하고있는데 대하여 놀랐을뿐아니라 현모를 방조하기 위하여 건강치도 못한 몸으로 이 지질도를 만들어놓은 수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가 숙여졌다.

《빨간색갈로 표식한것들은 제가 기억하고있는 탐사자료에 의한것들입니다. 그리고 풀색은 제가 확신하고있는 상상속의 형태들입니다.》

박필명기사는 돋보기를 끼더니 연필을 손에 쥐고 짚어가며 설명을 시작하였다.

《몹시 복잡한 내부지질층을 가진 북산갱 우측 구역 300 만톤 매장지입니다. 탄질은 단연 일등급입니다.》

바위투성이, 물투성이, 지하수들의 가느다란 류동선들 그리고 박기사가 그려놓은 류의할 지압구역들, 탄맥의 주향방향들, 특별위험구역표식을 한 지하의 물주머니들로 가득찬 북산갱 우측내부였다. 30 분정도의 지질도 설명이 있던 다음 박기사는 잠시 숨을 돌렸다. 그리고나서 계속하였다.

《나로서 선생께 권고하고싶은 구역은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은 북북산의 중심위치에서 40 메터쯤 북쪽으로 더 나가있습니다. 내가 이 지점을 라선동발시험장으로 권고하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곳은 언젠가 좌측갱도로부터 우측에로의 이행을 시작했던 한 기사가 준비굴진하여 착탄지점까지 도달했던 일이 있어서 비교적 파악이 있다는것입니다. 둘째로 이 구역은 석탄매장지의 전형적 난관현상들이라고 말할수 있는 각종의 방해물이 자연상태대로 있기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지하수들의 흐름방향이 이 구역에서는 탄맥의 주향방향과 일치하지 않고 건너질렀거나 스치면서 에돌아 나가고있습니다.》

끝으로 박기사는 결속하는 말을 짧게, 그러나 자신있게 하였다.

《저의 상상이긴 하지만 많은 점에서 정확하리라 믿습니다. 만일 여기서 선생의 라선동발이 건디여낸다면 그건 우리 나라의 그 어느 탄광 그 어떤 지하의 험한 자연조건에서도 건디여낼수 있다는것을 보증받을수 있습니다.》

박기사는 자기의 자료기억과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밤새워 그린 북북산 내부지질도를 현모에게 내맡겼다.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모는 박기사의 내부지질도 해설을 듣는 기간 거의 자기를 잃은채 집중하였었다. 안색으로 판단하건대 박기사의 막힘없는 설명을 끝없이 들었으면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박기사는 몹시 피곤해하였다. 그리고 기침이 터질가봐 조심하였다. 이제는 우리에게 더이상 이 병약한 늙은이를 붙들고 앉아있을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였다. 아쉽지만 일어서야 했던것이다. 탄광설계실에 설계원으로 있는 박기사의 딸도 자주 약병을 들고 들락거리며 우리를 바라보았다.

끝으로 탄광기사장 전성교가 현모를 위하여 꼭 알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던지 미안한 어조로 또하나의 질문을 하였다.

《선생님은 그 시대에서 겪게 될 위험이 어떤것들인지 한 말씀 해주실수 없을까요?》

로인은 방금 딸이 덤혀가지고 들어온 약사발이 식을가봐 천천히 그것을 마시고나서 우리를 보며 대답대신 조용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단독시험비행을 하거나 위험한 지하구역으로 침투해들어가는 사람에겐 불안을 주는 이야기들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나의 경험이고 믿음입니다. 진실로 용감한 사람은 위험앞에서도 언제나 용감했습니다. 용감성의 원수는 불안입니다.》

우리가 박기사네 집에서 나왔을 때는 한낮의 햇볕이 길가집들의 유리창들에 반사되어 눈이 시게 빛을 뿌렸다.

우리는 요즘 숨쉴수있는 료리사가 와서 손님들을 배나 더 끌어들인다는 탄광거리 중심에 자리잡고있는 국수집으로 들어가서 땀면을 먹었다.

현모는 박기사네 집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다가 나갈 때까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확실히 그의 기분은 지금 무겁고 각오는 비장한것이였다.

우리는 혁신갱의 8 번 시험채탄장에서 철야작업을 하여 재빨리 철수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시험지에로의 이동준비를 다그쳤다. 나도 현모도 시험작업반 성원들 전원이 잠을 자지 못해서 눈가장자리에 피발이 서기까지 하였다. 북북산으로의 이동준비를 하는 우리들의 감정은 마치 적후중심깊이로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병사들의 감정 그대로였다.

그때문인지 시험성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와 한마디한마디에서는 정숙과 긴장이 깃들어있었다.

30 메터분의 회수동발과 나머지 20 메터분의 동발이 새로 제작되어 새 시험지에 운반되였다. 각종 공구들도 옮겨졌다. 처음엔 갱마다에서 선발되어온 청년들이어서 작업에서 손발이 잘 맞지 않았지만 지금은 오래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처럼 손발과마음이 잘 맞아 돌아가는 시험성원들이였다. 그사이 라선동발을 다루는데서도 상당한 숙련을 쌓아서 누구나 한몫의 담당자들이였다. 자기들은 앞으로 석탄화선에 도입될 《신형무기》의 첫 창조성원들이라는 긍지 또한 높아진 청년들이였다.

이제 곧 우리는 북산강 우측지대의 무시무시한 내부에 침투하게 된다. 물론 공포도 크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입밖에 내지 않았다. 대렬편성도 일부 달리하여 지난번보다 작업조 조직을 좀더 치밀하게 하고 분공도 빈틈없이 하였다. 벌써 우리에게겐 경험에 기초할수 있는 밑천이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이날 대렬편성표를 작성하면서 휴게실에 앉아있는 나에게로 현모가 들어섰다. 여전히 무겁고 긴장된 얼굴표정이었다. 그는 내앞에 와서 앉더니 한동안 조용히 벽면의 한점에 시선을 주고있었다.

《오늘은 꼭 좀 자는게 좋겠네. 로친네가 두부 망질도 하더군. 나도 이제 곧 내려갈테니 먼저 가라구.》

나는 현모쪽은 보지도 않고 대렬편성표만 쥘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형님께 할 말이 좀 있어서...》

현모는 내 눈치를 살핀다는것을 나는 수그리고 있는 머리뒤등으로 감추하고 얼굴을 들었다.

《뭔가? 무슨 일이 생겼나.》

《아무 정황도 달라진건 없습니다. 그저 좀...》

《말하라구. 어쩌면 매번 것처럼 조심스러운가?》

나는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그가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고르고 또 고르고있었는지 그때까지는 알수 없었다.

《저는 기사장과 이번 시험에서는 형님을 빼놓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뭐라구?》

나는 자신도 모르게 어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현모는 내가 이렇게 나오리라는것을 알고있었던지 처음 표정 그대로였다.

《노여워하실건 없습니다. 인젠 젊은 사람들이 제몫을 다하니만치 형님이 더이상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

당장 내 입에서는 《나쁜놈들 같으니라구.》하는 말이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나를 빼놓다니... 란 광 60년 생활에서 빼돌림을 당해보기는 처음이어서 내가 이처럼 격했던것이다.

《형님도 우리가 어떤 힘지에서 시험전진을 하게 된다는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단말인가?》

《물통을 만날 때마다 헤엄쳐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압이 어느 정도로 높으리라는것도 짐작할수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도 그때엔 몸빼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자네를 그런 사지판에 밀어놓고 가만있을상심은가?》

《고집하지 마십시오. 형님의 그 심정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걸 아는 자네가 나를 빼돌려?》

《형님은 한평생 너무도 험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 형님을 저까지...》

나는 여기서 더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도 자네는 라선동발이 자네를 위한것인줄 알고있나? 그건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석탄을 위해서 필요한거야. 그러니 내가 늙기는 했지만 당원인이상 빠질수는 없어.》

《...》

현모는 머리끝까지 성이 치받쳐 소리소리 지르는 나의 울대뼈가 가죽밖으로 나올것처럼 급하게 울통불통해지는것을 보더니 입을 다문채 오래동안 그대로 앉아있다가 다시금 기사장한테로 가고말았다.

이렇게 되어 하마터면 나는 라선동발의 최종시험이 진행된 북복산 전투대렬에서 떨어져나갈번한것을 겨우 막을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현모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달라졌다.

마치 현모가 아득한 높이에 올라서있는 사람처럼 느껴진것이다.

현모가 오랜 세월 내 몸과 내 마음속가까이에 있었지만 전혀 몰랐던 사람처럼 돋보이는것이였다.

확실히 현모에 대한 나의 생각은 짧았다. 현모는 결코 비겁한 사람이 아니였다. 안전한 길을 택하여 명예나 얻어보자고 하는 사람도 아니였다.

조국의 석탄전선을 당이 요구하는 높이로 이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위험지대이라도 뛰어들 정신사상적 준비가 되어있는 성실한 과학자였다.

현모의 마음, 그것은 곧 내 마음이었다. 현모의 생각, 그것은 곧 내 생각이였다. 아니 나보다도 훨씬 더 깊이있고 폭이 넓은 생각을 할줄 아는 그런 현모였다.

나는 이런 현모가 형님이라고 불러줄 때마다 가슴속에 든든한 믿음의 기둥이 뿌리를 깊이 박는것만 같았다.

×

한달이 지났다. 그리고 또 한달, 날과 달은 흘러갔다. 나라의 석탄전선에 관심을 두고있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가운데 우리의 라선동발은 힘겨웁게 한치한치 북산강 우측내부의 험악한 자연장애물들을 뚫으며 전진해 들어갔다.

우리가 물통을 만나서 헤엄쳐 나온 회수는 시험기록장을 보아야 정확히 말할수 있다.

바닥은 언제나 물창이였다. 머리우에서 떨어지는 석수로 하여 옷은 안이고 밖이고 언제나 젖어있었다. 그런가 하면 지압이동이 오면서 당장 우리 모두를 파묻어버릴듯이 내리눌렀다. 그때마다 우뢰소리를 내면서 산속의 어느 구석을 두들겨서 버그러지게 하였다.

하지만 라선동발은 그속에서 쓰러지지도 않았고 놀리워 편포착이 되지도 않으면서 우리와 함께 건디여내었다.

전진목표 50미터 구간에 도착했을 때 우리모두는 울었다. 그리하여 라선동발은 자기의 시험기간을 훌륭히 마치게 되었다.

우리가 최종시험의 성공을 확인하고 갱밖으로 나왔을 때 갱입구는 환영일색의 꽃보라천지였다. 선전대의 취주악단이 불어대고 방송차의 확성기가 끝없이 라선동발의 성공을 알리고있었다.

신문들과 방송, 잡지들과 기록영화촬영가들의 렌즈가 우리들을 향하여 끝없이 조준되었다. 갱밖으로 나오자 온몸의 탕개가 탁 풀린 현모는 갱입구에 주저앉아서 더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하는수없이 내가 격에 맞지 않게 기자들이 기다리는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라선동발은 오늘로서 완전한 성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라도 당장 들어가면 든든하게 뻗치고 서있는 석탄전선의 <신형무기>를 보게 됩니다. 과학원 연구사 리현모선생이 일생동안 고심탐구한 라선동발로 하여 우리의 석탄생산은 앞으로 보다 높은곳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체과학자들은 당이 언제나 관심하고있는 또 하나의 중요고리를 풀었습니다.》

그다음은 나도 앞이 흐려지고 아래도리가 후들거려서 말을 계속할수 없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도로밖에 말을 할수 없습니다.》

그다음 나도 겨우 사람들 틈을 빠져서 곁에 있는 북산갱 갱장사무실로 들어가서 그 방의 긴의자에 눕고말았다.

그랬지만 라선동발 취재기자단은 흩어지지 않고있었다. 한두마디라도 좋으니 기어이 리현모의 말을 들어보자는것이였다.

기자들의 뜻이 이렇다는것을 알게 되였는지 그동안 힘을 회복한 현모가 그들에게로 와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앞에 서있을 기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라선동발에 대하여 보도할 때 제이름과 이것을 련결시킬것이 우려되어 이처럼 나타났습니다. 라선동발이 성공하도록 한것은 덕향의 탄부들과 굴진공들, 기사들입니다. 저는 다만 그들과 같은 자격으로 이 시험에 참가한 성원에 불과합니다.

라선동발의 시험과정과 그 성공이 말해주는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과학사업은 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 서로 협조하고 방조할 때만 성공할수 있다는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이 증명된것입니다. 경험은...》

그랬으나 현모는 더이상 계속할수 없었다. 기사장 전성교가 와서 현모를 차에 싣고 탄광병원으로 갔기때문이다.

더는 차창밖에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그대신 산이다. 나에겐 낮이 익은 산들이다. 기차가 길게 고동을 울린다. 이제 곧 렬차는 우리 나라 굴지의 무연탄생산전선중 하나며 라선동발의 고향인 덕향에 닿게 될것이다.

1987. 6

작가의 문체

오영환

(제 2 회) 작가의 관찰력과 문체

어찌하여 저 스물을 곰팡 넘겼음직한 어린 처녀에게 그렇게도 깊은 궁냥이 깃들어있을가?... 어찌하여 저 자그마한 가슴속에 든 심장은 그처럼 크고도 뜨거울가?... 온밤 온낮 쪽잠 한잠 못들고 뛰어다니고 웃고 울고 걱정하고 열변을 토하고 그리고 또 생기와 정력에 넘쳐 뱅뱅한 저 작은 몸의 어느 구석에서 대체 그런 큰 힘이 솟구쳐나오는것일까?... 저러한 심장과 함께라면 끝이 없다는 우주의 끝까지들 못가랴!

아, 행복하구나, 행복!...

(지칠줄 모르는 사람에 대한 관찰)

주인공 명숙에 대한 군당위원장의 이러한 심리는 지향이 같으면 남남이라도 운명을 같이한다는 생활의 철리를 밝혀주고있다.

이러한 생활철리가 앞의 레문과 같은 표현수법과 표현수단에 의하여 밝혀지고있다. 겹친 수사학적 물음법의 리용이라든가, 감탄사 《아》와 부사 《어찌하여》의 선택이라든가, 이것들은 소설가 김병훈에게서 나타나는 개성적인 말투와 숨씨의 또 다른 한 측면이라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여기서 다른 하나의 문제가 제기된다.

작가는 작품을 창작할 때 이미 축적했던 관찰자료중에서 그 작품에 필요한 모든것을 리용하게 된다는것이다.

그렇다면 작가들에게 있어서 이미 축적해둔 관찰자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창작속도로 작가들을 구별해보면 빠른 작가와 굼뜬 작가로 나누어진다. 거기에는 다른 요인도 작용하지만 중요하게는 이미 축적해둔 관찰자료의 량과 질에 관계된다.

창작은 누구에게나 초행길이지만 작가마다 헤쳐야 할 가시덤불은 같지 않은것이다. 낮익은 길은 빨리 갈수 있지만 낯선 길은 더디게 가기마련이다.

낮익은 길로 빨리 가자면 관찰에서 공간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을 깨달은 작가는 관찰력을 키우는 일을 그만큼 중시하게 된다.

작가가 일생동안 관찰력을 어떻게 키워나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편집자는 한 작가의 원고를 받으러 갔다가 그의 서재에서 잠깐 머무른적이 있었다.

작가는 편집자에게 세번씩이나 걸음을 시키고 또 이번에도 기다리게 해서 미안했던지 책꽂이에 세워놓은 필기장들중에서 한권을 뽑아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걸 보느라면 심심치는 않을게요. 그러나 보면서 웃지는 마시오.》

편집자는 받아든 필기장의 걸가위부터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밤색천을 씌운 뚜껑에는 (8)이라고 씌여있었다. 색이 바랜것이라든가, 손때가 묻은것으로 미루어보아 오래전의 필기장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고개를 들어 책꽂이를 다시보니 (1)에서 (23)까지 가지런히 세워져있었다.

(저것들이 무얼가?)

편집자는 의문을 풀기 위해 손에 든 (8)권의 첫장을 번졌다.

내용이 서로 련결되지 않는 단문들이 한칸씩 사이를 두고 적혀있었다.

그 단문마다 첫머리에는 자,초,심, 정,사로 된 표식들이 있었다.

몇개의 단문을 읽어보니 그것이 무슨 표식들인지를 인차 깨달을수가 있었다. 일상적으로 관찰한것을 자연, 초상, 심리, 정황, 사건 등으로 구분해놓은것이였다.

편집자는 시간가는줄 모르고 그것을 읽어내려갔다.

아쉽게도 필기장의 절반도 읽기전에 편집자는 작가로부터 정서된 원고를 받게 되었다. 원고를 받

았으니 필기장을 내주어야 하였다. 그러나 선뜻 그것을 내어줄수가 없었다.

원고는 받았으나 작가에게는 아직 빛이 남아있다고 생각한 편집자는 필기장을 마저 읽고 돌려주면 안되겠는가 물었다.

편집자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작가는 여전히 빛진 마음이었다. 그 덕분에 편집자는 작가의 관찰자료(8)를 마지막까지 읽어볼수 있었다.

그때 편집자가 자기 수첩에 적어둔것은 이러한 것들이었다.

심: 사람은 얼굴의 주름살을 보고야 세월의 빠름을 알게 된다.

자: 바위에 이끼가 덮여있다. 굳은것과 부드러운것이 저렇듯 어울리는가.

심: 내물은 낮은곳으로 흘러내리고 인간은 높은곳으로 거슬러오른다.

초: 문턱에 서서 하품을 하니 입이 큰지 문이 큰지 분간키 어려웠다.

정: 단풍계절은 이제야 시작인데 밤에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찬바람이 온몸을 파고든다.

이런 때 사람들은 길고짧은 생애에서 등골이 섰던 일을 회상하며 지금은 따뜻한 집과 정다운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것을 상기하고 다시한번 어깨를 으쓱해본다.

그것은 행복에 대한 감각이다.

초: 저 사람은 걷는 모양이 반쯤을 추는것 같지만 언제 보아도 산돌레처럼 듬직해보인다.

자: 비 지나간 뒤에 젖은 산들은 튀어나오듯 선명해진다.

정: 어미개는 어디에 가있다가도 나팔소리가 나면 달려와서 주둥이를 쳐들고 우는듯 짖어대군한다.

자: 저녁의 맥없는 햇빛이 뜨락에서 줄고있을때 잠자리 몇마리가 맴돌고있었다.

심: 부지런하다면 자네는 자신의 앞날을 락관해도 좋네.

초: 코구멍이 저렇게 크면 오가는 감기 다 잡을게야.

심: 세태에 물젖기는 쉽고 사상에 불타기는 어렵다.

초: 가슴이 폭 꺼지면 걸음도 휘뚱거려지는 모양이다.

심: 행복은 혼자 누리더니 불행은 함께 나누자고 왔다.

사: 어느 한때의 량심의 기억이 일생을 잡치는 단서로 될수 있다.

정: 소방차가 평화론 도시의 흐름속으로 요란한 사이렌소리를 울리며 살같이 지나간다.

심: 자기 불행에 울지 않으려고 남의 행복에는 눈을 감았다.

자: 뿌리없이 물병에 꽂힌 다리아는 꺾이던 때의 고통은 흔적도 없이 밤새에 다른 망울마저 활짝 피워놓았다. 뿌리만이 꽃피우는 재주를 가진줄 알았더니 대도 그 재주를 가지고있었다.

심: 지나간 날을 되물릴수 있다면 이루지 못한 첫사랑을 찾고싶었다.

초: 머리는 주먹만한데다가 텃이가 얇은 입술을 새주둥이같이 내여밀었다. 거기에 어울리게 곧은 목은 아닌데도 옆사람을 볼 때면 눈알만 돌리곤 한다.

이것이 한 작가의 관찰자료에서 뽑은것들이다. 물론 작가마다 관찰력을 키워나가는 방법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수 있다. 한 작가인 경우에도 문학의 청년기와 중년기, 노년기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을수 있다.

그 차이를 세가지로 나누어볼수 있다.

하나는 기초훈련단계인바 이 단순한 단계에서는 인간생활과 자연현상의 지식을 습득하는데 기본을 둔다.

다른 하나는 기량훈련단계인바 이 복잡한 단계에서는 보다 예술적 가치를 획득하는데 기본을 둔다.

또 다른 하나는 기초훈련과 기량훈련을 병행시켜나가는것이다.

우에서 실패로 든 한 작가의 관찰자료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기초훈련단계를 거쳐야만 기량훈련단계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처럼 이 두 단계의 내용을 동시에 해결해나가는것은 우월한 방법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23 권의 관찰자료를 가진 작가를 상상해보라. 그러한 작가의 관찰자료는 그의 창작적 개성을 이루어나가는 밑천으로 되며 따라서 개성적인 문체를 이루어나가는 밑천으로 된다.

다시 소설가 김병훈의 문체으로 돌아가자.

아니아니할수록 걱정은 넋쿨을 뻗고 마디를 치면서 건잡을수 없이 번져나가 인간의 몸을 칭칭 씹아매는것이였다.

(근심에 빠진 사람에 대한 관찰)

이 레문은 의원인 인관로인이 산에 들어와 의의로 오래 묵게 되면서 여러가지 집걱정을 하는 대목의 한 문장이다.

걱정이 생기면 마음의 안정을 잃은채 조바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걱정은 또다시 근심거리를 낳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오는 법이다.

이러한 생활리치를 넝쿨이 뻗어 마디를 치면서 몸을 움아매는것으로 밝히고있다. 여기서 넝쿨은 문맥상에 새뜻을 주는 숨은 비유이다.

형태가 없이 번져나가며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걱정을 넝쿨이 뻗어 마디를 치면서 몸을 움아매는것으로 형태화함으로써 형상성과 생동성, 정서성을 높여주고있다.

이것은 생활의 철리를 자연의 리치로 밝힌 실례로 된다.

오금에 바람찬 풍각쟁이가 있대도 초면에는 제발로 뛰어나오기 어려운 법이다.

(처음 대하는 군중앞에 나서기를 망설이는 사람에 대한 관찰)

이 레문은 오락회에서 신입대원들을 불러내는 대목의 한 문장이다.

아무리 재주가 있고 뽐내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처음 만난 사람들앞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것은 하나의 인간심리이며 생활의 리치이다.

그러한 인간심리와 생활의 리치를 속담 《오금에 바람이 차다》를 리용하고 형용사의 《ㄴ》형

다음에 《법》을 써서 필연적이고 합법칙적임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성구속담리용수법을 활용하고 명사 《법》을 선택하여 생활리치를 밝힐수 있다는 다른 또하나의 방도로 된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는 이외에도 생활철리를 담은 명문장들이 적지 않다.

아래에 그것을 구분하여 려거해본다.

(뒤틀린 감정을 안고 물러가는 사람에 대한 관찰, 옮김법을 리용한 실례)

《흠, 아무렇게나 말하게. 패장은 유구무언이라는 옛말도 있으니…》

(집떠난 자식을 둔 부모들에 대한 관찰, 동사의 《는》형 다음에 《법》을 리용한 실례)

《…자식을 외지에 둔 부모는 바깥에서 찬바람에 가랑잎 구르는 소리만 들어도 꼬바기 밤을 지새우는 법이라오. …》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채 헤어지는 남녀관계에 대한 관찰, 직접비유법을 리용한 실례)

…작별을 앞둔 이 마당에서야 갈라져 살수 없는 남다른 정이 제 가슴 깊은곳에 숯불처럼 묻혀있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호에 계속)

그날의 전호가에서 외 1 편

리 석

그 어디나
위문품속에 넣어보낸
처녀들의 편지 읽으며
고향을 추억하던
그 은혜호가

그 어드메나
달고 선 땅 한치라도 내주면
머슴군의 멍에를 다시 쓴다고
생의 마지막 순간 아바이전사 당부하던
그 중기관총좌지가

하루에도 수십번
밀물처럼 밀려드는 원쑤들 무찌르며
만세 높이 부르던 전호가
마지막 결사전을 앞두고
장군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펼쳐놓고
이름 적어넣던 바위턱은 어드메나

전승의 광장에 함께 오지 못한
전우들 떠다심은 애 어린 소나무는
한껏 푸르렀구나
차례진 한모금의 물마저 중기에 부어넣던

잊을수 없는 좌지넘어
꽃은 피고 새들이 우짖누나

진정한 인민주권과
주인된 권리를 맛본 땅
조국을 어떻게 사랑하고
원쑤를 어떻게 증오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준 언덕이여

원쑤와의 판가리 마지막 계선에서
내 그때 한발자국 뒤로 물러섰다면
오늘은 여기에 이처럼 뗏뗏이 서서
저 푸른 하늘과
수려한 조국강산 바라볼수 없으리

사철 푸른 숲 설레이고
해마다 산꽃이 곱게 피고지며
온갖 새들 즐겁게 지저귀는다고
불타던 전호가를 내 잊으랴
아 세월이 흘러도 변할수 없는
신념이 간직된
나의 영원한 전호여

그 어디에 가있어도

정깊이
속깊이
마음속에 흘러드는 목소리
신통하구나

아름찬 파제를 앞에 놓고
내 잠시 주저할 때
이 손에 새 용접봉 쥐여주며
자신있게 불꽃을 날려보라고
성공을 바라던 그 눈길마저...

아슬한 철탑 오르던 그 아침
허리에 맨 안전띠 당겨주며
마음이 흔들리면 오르지 못한다고
가슴속 탕개를 든듯히 조여주던
미더운 그 손길이여

어떻게 알았을가
사연깊은 처녀의 편지
작업복 옷주머니에 넣고
남몰래 보던것까지

내 공연한 생각했구나
고향의 역두에서 나의 어머니
다심히 애무하던 그 눈길
멀리 있다고 생각한것이

아, 불바람 휘몰아치는 대건설장들과
새힘이 약동하는 개발지...
이 나라 그 어디 그 어느곳 가도
당일군 그대들은 어머니처럼
말하는 눈길도
잡아주는 손길도
언제나 한모습이구나

그래서 너, 나 우리모두
형처럼 어머니처럼
마음을 터놓고 새힘을 얻으며
우리 당의 위업
자랑찬 위훈으로
보람찬 삶으로 반들어가는것이여라

눈오는 계절은 있어도

김룡연

분계선초병들에 대한 취재를 마치고 머나먼 출장길에서 돌아온 날 저녁.

며칠만에 만난 아버지의 목을 두팔로 휘감고 품에 안기며 유치원에 다니는 귀염둥이 딸애가 한 첫 말은 이런 물음이었다.

《아부지, 겨울은 눈오는 때지?... 그렇지만 춥지는 않지?》

천진스러운 어린것이 아직 자연계의 리치를 미처 몰라 이런 모순되는 물음을 던진다고 단순하게 생각한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래그래... 눈오는 계절이구말구... 하지만 눈이 오면 춥단다.》

《아니야, 춥지 않아!》

뜻밖에 딸애는 머무랄같은 두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돌차게 항변했다. 그러더니 안기던 때처럼 도로 튀어나 쪼르르 달려가서는 저쪽 벽장문을 발각 열었다.

순간 눈에 확 안겨오는것은 눈덩이같이 하얀 토끼털로 지은 외투, 노란판에 빨간 점이 다문다문 박힌 겨울털모자, 안과 목도리에 복신티신한 털을 댄 까만 구두, 애기꿈이 서로 불안고 씨름질하는 그림 무늬가 찍힌 빙어리장갑...

《아버지원수님께서 우리를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주신 옷들을 좀 봐요.》

아이이는 장이 넘쳐나게 들어찬 제 겨울옷가지들을 연방 자랑하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할머니가 이걸 차려입고 나시면 눈속에서 덩굴어두 춥지 않다고 했어... 아버지진 몰라...》

《!...》

순간 나는 이름못할 충격으로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아! 그래서 겨울은 눈이 와도 춥지 않다고 했구나. 그래서...)

아이이는 아버지를 이겼다는듯 발쑈 웃더니 이번엔 할머니한테 다가가 품에 안긴다. 어째선지 불이 약간 부었다.

《야, 겨울이라는데 왜 빨리 눈이 오지 않을가.》

기쁨과 실망이 함께 실린 목소리.

딸애의 얼굴에는 한점 티도 그늘도 없고 그런 손녀애를 무릎에 앉힌 어머니의 주름많은 눈가에는 이슬이 맺힌다.

아하-레사로운 이 저녁은 얼마나 하찮은것을 생각케 하는것인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의 은덕에 대하여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과거와 오늘의 처지와 생활을 대비하면서 잘 깨우쳐주어 모든 사람들이 수령님의 은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며 수령님과 당을 변함없는 충성의 한마음으로 받들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맺혔던 이슬이 두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그 눈물의 사연을 안다. 어머니는 지금 손녀에 나이때의 자기 처지를 돌이켜보는것이리라.

내 이미 그 이야기를 몇번이나 들었던가.

...아버지가 앓아누웠을 때 꺾은 쌀 한말 빛이 새끼에 새끼를 쳐 도저히 갚을길 없이 된 신세, 그 빚값으로 눈이 퍼붓는 엄동설한에 지주집아이보개로 끌려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일곱살 잡힌 소녀.

《에그, 겨울이나 지나서 보내게 사정 좀 봐주시우. 이 어린걸 무릎도 가리우지 못하는 몽당치마를 입혀 보내고서야 어미가슴에 재가 앉아 어떻게 살겠소...》

《엄마야 나 안갈래... 안갈래, 밭시려 못겉겠어.》

종이 끊어져자간 짙은사이로 버선 한켠레 걸치지 못한 빨간 발가락이 빼여져나와 퍼렇게 얼어드는데 그 정상을 보다 못하여 어머니는 딸의 한쪽발을 두손으로 꼭 싸쥐었다.

했건만 악착한 지주놈은 어린것의 체비공지갈은 머리채를 나꾸채가지고 눈보라속으로 사라졌다.

《애야-》

《엄마야-》

애간장을 뚫리며 어머니와 딸이 서로 부르고 불렀으나 눈보라마저 기승을 부리며 그 애절한 목소리들을 삼켜 허공중에 태절해버렸다.

겨울, 지난날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이 없던 그 시절의 겨울이란 살기뻔치고 울씨넌스러운 계절이었다.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시달리며 그래서 야속스럽고 저주와 영영 오지 말기를 바라던 계절이었다.

아, 그러던 계절이 어찌하여 우리 귀염둥이들의 세대에 와선, 오늘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는 기다려지는 계절로, 춥다는 표상마저 잊게 하는 정다운 계절로 된것인가!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품에 안겨 사는데야 겨울이 무슨 추운 계절이겠냐...》

손녀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하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러자 가슴을 후덥게 하며 밀물처럼 가득히 차오르는 생각...

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따사로운 품이 없다면 우리 인민이,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추위를 모르는 겨울을 생각이나 할수 있을것인가.

만경대의 추녀낮은 초가집 사립문을 나서신 때로부터 장장 반세기가 넘는 세월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고스란히 바치시는 아버지수령님.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시려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걸으시는 길 또한 몇천몇만리런가!

그 위대하고 빛나는 로정에 우리의 귀중한 로동자들이 일하는곳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한곳이라도 들어가보아야 한다시며 석수떨어지는 금골의 지하막장을 찾으셨던 사랑의 자욱이 력력히 찍혀져있고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귀중한 보배들인 학생들을 사랑하라고 저 멀리 풍산땅의 학교에 들리시여 붓나무껍질에 남기신 뜻깊은 글발이 빛나고 있다.

나는 후대들을 위한 이런 시각이 제일 행복하다시며 새벽이 가까와오는 깊은 밤에까지 대성산유희장 건설장에서 보내시고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세명의 학생들을 위하여 사랑의 통학승용차가 산골길을 누비고 열한명의 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다리》가 저 구월산기슭 은천군 초교리의 구석몰마일에 놓여졌거니 내가, 나의

후대가 아니, 우리 인민모두가 안겨사는 우리 당의 품은 얼마나 따뜻하고 자애로운것인가!

승엄한 감정에 휩싸여 생각은 깊어만 지는데 어느새 창문계로 다가간 딸애의 환성에 가까운 목소리가 울려왔다.

《아이, 아버지 눈이 와요. 눈이...》

나도 움쭉 일어나 창문가로 다가갔다.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는지 꽃이파리같은 소담한 함박눈이 펄펄 쏟아져내렸다.

가로수의 가지마다에는 눈꽃이 피었고 잔디밭 위에 하얀 융단이 펼쳐졌다.

아이는 좋아라 손뼉을 치더니 어느새 털외투며 털모자며 병어리장갑이며... 입과 쓰고 끼며 밖으로 달음박질쳐 나갔다.

(오나 맘껏 덩굴어라.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속에 안겨사는 너희들예겐 아니, 전체 우리 인민예겐 눈오는 겨울은 있어도 추운 계절은 영영 없다. 영영...)

이렇게 자꾸만 외우게 되는 나의 달아오른 가슴속에선 새로운 결심이 끓어번졌다.

내 더욱 충성다해 살며 일하리라. 이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받들어 한생을 살아도 빛나게 순간을 살아도 빛나게...

한겨울에 접어든듯 눈은 더욱 호함지게 쏟아져 내렸다.

그러나 춥지 않았다.

눈은 내려도 우리는 언제나 포근한 요람속에서 살고있다. 한없이 따사로운 그 품에 안겨...

이 별로 오시라

량덕모

진정 아름다운 처녀를
그대 사랑하고싶거든
어서 오시라
이 별로 오시라

벼수확기를 타고
급나락의 바다우에 하냥 웃음 날리는
청년분조 저 처녀들
그대 그리는 선녀가 아닌가

새벽이슬 남먼저 털어서만도 아니라고
꽃나이 꿈을 묻고 땀을 묻어
너른 벌 땅빛마저 달라지게 기름지운
그 뜨거움이 이랑이랑 물결친다오

스쳐지나는 바람결에도 풍겨온다오
쭈정이 한알 밝은 가을 흐리울것 같아
벼꽃 피는 소리를 지켜 밤새우던

그 가룩한 마음의 향기

어서 오시라
이 별로 오시라
그대 한번 오면
그냥은 못가시리

그러나 쉽게는 사랑을 터놓지 않으리
눈비바람 다 이겨내고
황금의 구슬을 꿰어단듯
천만이삭 하나같이 여물린 그 마음들

아, 이런 처녀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행복의 열매도 무르익히리
그대 한생의 기쁨을 안고싶거든
어서 오시라
이 별로 오시라

봄

오필천

봄이면 푸르른 들판
아지랑이 헤쳐넘는 모내는 기계 타고
농립모의 채양에 가리워
쉬이 볼수 없던 그 얼굴

여름이면 김매기 들판에서
이랑이랑 타고넘을 때
벼포기에 가리워 강냉이숲에 묻혀
쉬이 볼수 없던 그 얼굴

진날 마른날 온 한해 벌에 살며
온 들판 곡식을 손으로 다 쓰다듬으며
진정을 쏟아 땅을 걸구고
지성을 고여 포전을 가꾸어온 사람

연백벌 백리에 가을이 오니
그날에야 사람들은 보았더라

농립모 시원히 벗어제끼고
평양하늘 우러러 한껏 웃는 그 얼굴

수령님 바라시는 농사를 잘 짓고서야
이마를 씻으며 높이 든 그 얼굴
휘늘어진 벼단을 안고
이삭우에 높이 들린 그 얼굴

농민의 얼굴은
들가득 익힌 만풍년을 안고서만
밝게 웃는 가을의 미소여라
우리 수령님 가장 기뻐하시는...

아, 이런 얼굴이 비껴
내 조국의 풍년들이 설레이고
그 마음들이 어려
내 조국은 더 빛나는것이여라

담시

씨앗

한기운

포연이 흐르는
적후의 봄
정찰병은 들렀네
산기슭 외진 농막집에

아들처럼 반기며
맹물 끓는 부엌에 불지피던 어머니
어이하랴 생각끝에
토방기둥 귀한 씨앗 내리울 때

전사는 간절히 말했네
-어머니
농사군이 굶어두 씨앗은 배고 죽는대요
어머니도 속삭이듯 말했네
-이사람아, 땅이 있구야 종자도 있지

아, 전화속에 모든것 불타버렸어도
다시 올 봄을 그려
다시 가꿀 땅을 믿어
어머니 교이 안아 지켰다는 씨앗!

전사는 조용히 떠났네
어머니 물길러 박우물에 나간 순간
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담아
토방기둥에 다시 걸어놓고간 씨앗!

아, 전사의 가슴속에서도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도
움트고있었네 군민의 정을 안은 그 씨앗은
그 씨앗은 승리의 봄이었네!
그 씨앗은 승리한 조국이였네!

시적 착상과 형상적 구현

김해월

눈보라라고 하면 누구나 다 흔히 모진 추위를 생각하기도 하고 시련과 엄혹성, 간고성을 비유하여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면 백두산의 눈보라를 노래한 가사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명가사로 될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가사 《백두산의 눈보라》(차영도)는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여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와 념원을 뜻깊은 시적 형상으로 노래한 명가사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이 부른 합창 <백두산의 눈보라>는 우리 인민이 체험한 혁명적인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좋은 노래입니다. 합창 <백두산의 눈보라>는 완전히 우리 식으로 형상하였습니다.》

가사는 혈전의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며 혁명의 준엄한 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이 심장깊이 체험한 혁명적인 생활을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아득한 밀림에 울부짖는 눈보라
혁명이 남긴 그 자욱우에 눈보라 눈보라
피어린 싸움길 백두산은 못잊어
오늘도 잠못드네 눈보라 눈보라

가사를 읊노라면 수령님을 따라 중중첩첩 막아나서는 혁명의 시련과 난관을 뚫고 피어린 혁명의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승승장구한 우리 혁명의 로정이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세월이 갈수록 혈전의 언덕을 헤치며 싸워온 피어린 투쟁의 나날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가사는 백두산을 우리르며 혁명의 준엄한 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노래하기 위하여 백두산에서 울부짖는 눈보라를 시적 계기로 삼고 사색의 나라를 펼치였다.

백두산은 오늘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는 혁명의 성산이다.

이 영광스러운 혁명의 성산에 혁명전통의 력사적 뿌리가 내리고 그 뿌리가 있기에 우리의 주체혁명위업은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이다.

가사 《백두산의 눈보라》는 혁명의 성지에서 울부짖는 백두산의 눈보라를 두고 시상을 펼치여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시인은 백두산의 눈보라를 한갓 자연의 눈보라로 감수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누구나 백두산에 오르면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며 조선사람으로 태어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고 어머니 조국을 빛내여 혁명할 결심이 더 굳어지는것이다.

가사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혁명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가려는 우리 인민의 이 불같은 념원과 의지를 눈보라를 통하여 뜻깊게 노래하였다.

이 기발한 시적 착상은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혁명의 한길을 곳곳이 걸어가려는 불같은 심장을 지닌 사람만이 느낄수 있고 발견할수 있는것이다.

우리들은 이때까지 눈보라를 혁명투쟁의 간고성이나 엄혹성을 노래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써왔다. 그러나 이 가사에서는 백두산의 눈보라를 우리 혁명의 기발로 보았기때문에 그것이 단순한 자연의 눈보라가 아니라 백두산과 우리 혁명, 우리 인민의 념원과 의지와 같은 폭넓고 웅심깊은 시적 사상감정을 격조높이 노래할수 있었다.

가사는 1절에서 자연의 현실적인 눈보라를 타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력사상 류례없이 간고하고 준엄했던 조선혁명이 걸어온 길에 대하여 깊은 사색속에 돌이켜보게 한다. 하여 우리에게는 조선혁명이 생사기로에 놓였던 로야령의 그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어주신 《반일전가》를 부르며 혁명의 난국을 헤쳐간 투사들의 불굴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안겨오기도 한다.

1절에서 눈보라는 이처럼 백두산과 더불어 피어린 길을 걸어온 우리 혁명의 싸움길을 돌이켜보게 하면서 시세계에 폭 잠기게 한다.

가사는 2절에서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이 영광에 넘친 준엄한 행군길은 오늘 시대와 시대의 언덕을 넘으며 80 년대로 이어지고있으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영원히 이어나가야 한다는것을 우리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고있다.

가사는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천만산악 뒤흔드는 백두산의 눈보라
끝나지 않은 행군길우에 눈보라 눈보라
혁명절개를 버리지 말자고
소리높이 폭풍치네 눈보라 눈보라

우리 혁명이 걸어온 행군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 혈전의 언덕을 헤치며 개척해오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빛나게 이어가시는 영광의 길이다.
가사는 우리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끄시는 행군길은 승리와
영광에 넘친 길이며 오직 난관과 시련을 뚫고
걸어가야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내어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들의 가슴에 새겨주고있다.

가사에서 눈보라는 우리들에게 계속혁명의 사
상과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투지를 노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뜻깊은 철학적사색으로 우
리들을 이끌어가고있다.

백두산의 해돋이에 붉게 물든 눈보라
기발처럼 휘날리는 눈보라 눈보라
당을 따라 혁명할 하나의 신념
천만 심장 불태우네 눈보라 눈보라

우리들에게 우리 혁명이 걸어온 길에 대하여 생
각하게도 하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혁명
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것을 호소하며 울부짖던
눈보라가 백두산의 해돋이에 붉게 물든 눈보라로
전환된다.

눈보라는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위대한 수령
님의 혁명위업을 이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맞
이하여 그 찬란한 해돋이에 물들어 주체의 혁명정
신을 상징하는 눈보라로 승화됨으로써 우리 혁명의
기치로, 기발로 되어 휘날리게 되었다.

이처럼 백두산의 눈보라를 단순히 자연의 눈보
라가 아니라 우리 혁명의 기치로, 백두의 혁명정신
으로 승화시켜 우리들에게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
게 이어나가야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안
겨주었다.

바로 여기에 이 시의 성과가 있고 매력이 있는
것이다.

가사 《백두산의 눈보라》는 높은 시형상을 창
조한 모범을 보이고있다.

가사는 사상적 내용이 좋아야 할뿐아니라 예술
성이 높아야 한다. 가사의 예술성은 시의 본성인 품
부한 서정성을 보장함으로써만 이루어진다.

가사는 우선 심오한 사상적 내용을 정서적으로
잘 노래하기 위하여 의인화된 눈보라를 효과적으로
잘 살려씀으로써 사람들에게 구체적 표상을 안겨주
고있다.

가사의 매절 첫 편에서 눈보라는 그 절에서 노
래하려는 사상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생동한 표상을
안겨주면서 사람들을 심원한 시세계에로 이끌어주
고있다. 사람들에게 시적 표상을 안겨준 눈보라는
매절 2 행에서 가사에서 노래하려고 하는 사상을
심어주면서 사람들에게련상작용을 불러일으키며
승화되고있다.

가사에서 눈보라의 반복은 구체적인 표상을 가
지고 사람들을 상기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깊은
사색과 여운을 특색있게 안겨주고있다. 그리하여
영원히 수령님을 따라 당을 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으로 살며 일하려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은 구체
적인 감정으로 강한 호소성을 가지고 반복되면서
승화되고있다.

가사는 매절 하나의 완결된 사상감정을 나타내
면서도 1 절에서 노래한 감정정서가 2 절에서 고조
되고 승화되어 3 절에서 절정을 이루고있다.

가사 《백두산의 눈보라》의 서정은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낳은 충성의 감정이다.

가사는 또한 알기 쉽고 리해하기 쉬운 형상적인
시어들로 시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아득한 밀림》, 《천만산악》 등은 우리들이 익
숙한 표현이면서도 사람들에게 새로운 뜻과 감명을
불러일으키면서 구체적 표상을 안겨주어 정서를 한
껏 살려주고있다.

가사는 이처럼 시적 착상이 기발하고 형상수준
이 높은것으로 하여 명가사로 될수 있었다. 이것은
당의 뜻을 받들고 시적 사색을 끝없이 심화시켜나
간 시인의 피어린 탐구의 결실이다.

동 지

럼우봉

전화의 그날
내 고지우에 쓰러져
멀리 어머니의 손길
못견디게 기다려질 때
숨가빠 달려와

따뜻이 일으켜준것은
가까이 동지였거니
아, 동지는 언제나
나의 삶에

그날의 그 손길!

심 장

전찬기

아끼면 작은 가슴속에
조심조심 뛰고
바치면 우리 당 대오속에
높이 고동치는 그것

량심을 저버리고
백년을 살아 뻗들 무엇하리
뜨거운 의리를 지낼 때
한없이 귀중해지는것

순간이나마 거기에
거짓이 깃든다면

무엇이 다르랴
길가에 뒹구는 하나의 돌덩이와

오, 신념과 배신이
정녕코
함께는 자리 못잡을
심장

오로지 하나뿐인 그 심장
자신이 아꼈었이나
혁명의 숨결속에 높이 고동칠 때
우리 당은 영원히 아껴주더라

금강의 문필봉

유영하

너를 들면 금시라도
똑똑 먹물이 떨어질듯
하늘에 대면 금시라도
별같은 글발이 돌아날듯

봄날의 꽃을 노래할가
가을의 단풍 그려볼가
재주를 부리는 천만피석
재롱을 피우는 억만구슬

일출봉 해돋이 먼저 그리자니
월출봉 달맞이 눈앞에 떠오르고

만물상 천선대 선참 부르자니
해금강 맑은 물 반기며 설레이네

이래서 천년토록
너를 들어 노래하지 못했던가
문필봉 문필봉
아, 금강의 붓아

네끝이 다 닳도록
금강의 아름다움 적고싶다만
나도 첫 줄을 땔수 없어
너를 세워둔채 가슴만 뚫이노라